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정본사업백서



다산학술문화재단  
Tasan Cultural Foundation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정본사업백서



다산학술문화재단  
Tasan Cultural Foundation



# 목차

발간사 .....	6
제1부 정본사업 개괄	
1장. 정본사업 개요 .....	11
2장. 정본사업단 추진 체제 .....	21
3장. 사업비 결산 내용 .....	25
제2부 정본사업 경과 및 내용	
1장. 개요 .....	29
2장. 기획 준비 단계 .....	33
3장. 연구 단계 .....	37
4장. 출간 단계 .....	55
제3부 정본화 토대 연구	
1장. 표준범례안 연구 .....	77
2장.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84
정본사업의 성과와 과제 .....	127
부록 .....	133

## 발간사

『여유당전서』 정본사업백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펴 뜻깊게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1년 9월\*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2012년 12월 출간을 마칠 때까지 장장 11년이 넘는 기간 많은 분들의 합심과 각고 끝에 이루어진 우리 학계의 기념비적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500만 자가 넘는 거질의 전서, 그것도 경학·시문·정치경제·역사지리·법학·의학·음악·언어 등 다방면에 걸친 백과사전적 저작들을 정본화 하는 큰일이었습니다. 우리 학계로서 이렇다 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작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추진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일의 크기를 가늠하지도 못한 채 뛰어들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찌 무수한 난관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사에 사업의 시작을 2002년으로 기재하였으나 『백서』 발간 과정에서 2001년 9월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한국고전번역원(舊 민족문화추진위원회)과 자료협정을 체결하는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업추진 착수시점을 2001년 9월로 확정.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학계의 숙원이었고, 국민적인 이해 또한 깊었기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으며, 정부와 관련 단체의 결심이 보태어져 대과(大過)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사업의 자초지종이 담긴 『백서』를 남기는 것이 추진 책임을 맡은 재단의 책무라 생각하였습니다. 반성하는 자료이기도하고 앞날의 참고가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백서』를 펴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아쉬움과 모자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자위하면서 감히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재단의 이주행 연구실장과 이대승 연구원 등 관계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학 그리고 한국학의 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2014. 9.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정해창 삼가 씀

# 제1부

## 정본사업 개괄

- 1장 | 정본사업 개요
- 2장 | 정본사업단 추진 체제
- 3장 | 사업비 집행 및 결산



## 1. 개괄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012년 다산 탄신 2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총 37책의 『정본 여유당전서』\* 및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 간찰집』(이하 『다산 간찰집』) 1책을 발간하였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신조본 《여유당전서》(154권 76책, 1934~1938, 이하 ‘신조본’으로 약칭)를 저본으로 하여 표점 및 교감을 더하고, 여기에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를 정본으로 편입하여 총 37책으로 출간되었다.

1998년 말 다산학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산학술문화재단은 국내외 학술 대회 개최, 학술지 『다산학』 발간, 다산학술상 시상 등으로 재단 활동의 기초를 다지게 됨에 따라, 2001년 9월 다산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학술사업으로 《여유당전서》 정본화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다. 당초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기획 및 준

\* 1930년대 신조선사에서 편찬한 다산 선생 문집은 《여유당전서》로, 2012년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정본화한 다산 선생 문집은 『정본 여유당전서』로 표기한다.

\*\* 1975년 다산학회에서 편찬한 책은 《여유당전서보유》(약칭 『보유』)로, 2012년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정본화한 책은 『여유당전서보유』(약칭 『보유』)로 표기한다.

비에 착수하였으나 재단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004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총 11년에 걸친 연구 끝에 정보사업을 대과(大過)없이 마무리하게 되었다.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은, 500만 자에 이르는 신조본의 원문을 전산 입력하여 디지털화 하고, 표점(標點) 작업을 통해 원문의 가독성을 높이며, 신조본이 지닌 오탈자 및 오류를 바로잡는 교감(校勘) 연구를 통하여 다산 저술의 원전에 가장 가까운 ‘정본(定本)’을 만드는 학술사업이다. 이러한 정보사업은 당시 학술계로서는 다분히 생소한 미개척의 분야였으므로 출발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준화 된 교감 및 표점 범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교감을 위한 대조 필사본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정보 연구에 참여할 전문 연구자와 연구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여유당전서』의 탄생에 대한 다산학계의 간절한 소망이 사업의 착수와 진행, 그리고 정본의 완성에 이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80여 명에 이르는 다산학 및 한국학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결집되고, 8개년(2004년~2012년)에 걸친 정부의 꾸준한 사업비 지원과 민간단체의 출연이 뒷받침되어 국제적 수준의 현대화된 원문 텍스트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민간·학계·출판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 낸 성과로서 고전 자료를 현대화하고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사업의 대표적인 전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보 출간에 더하여 국내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화와 온라인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으며, 미래의 다산학 연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정보 여유당전서』에 의거한 번역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완역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학제(學際) 간의 연구들도 활성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정보사업의

성과는 다른 고전 원문 자료의 정본화를 향한 길을 터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산 학술문화재단은 정보사업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기획에서 출간까지 그 경과와 내용들을 정리하여 반성과 평가의 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미래의 정보사업을 위한 한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2. 사업 배경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 대한 연구는 다산 서거 100주년(1936)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가 발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조본은 다양한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을 154권 76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경학·시문·정치경제·역사지리·법학·의학·음악·언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민치하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민간의 노력을 모아 ‘조선 출판 역사의 금자탑’이라고 할 거질의 전서로 출간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신조본이 발간된 이래 이 판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정약용 연구의 기본텍스트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 《여유당전서》를 저본(底本)으로 2,000편이 넘는 논문과 200여 편 이상의 박사학위논문, 100권이 넘는 단행본이 출판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산학(茶山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현재 통용되는 신조본의 편차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편차

대분류	집수/권차	서명	원문 글자 수	총계
詩文集	1/1-7	詩集	163,229	671,469
	1/8-22	文集	436,944	
	1/23	文獻備考刊誤	9,445	
雜纂集	1/24	雅言覺非	38,881	671,469
		耳談續纂		
	1/25	小學珠串	22,970	
經集	2/1	大學公議	28,350	1,414,189
	2/2	大學講義	24,325	
		小學枝言		
		心經密驗		
	2/3	中庸自箴	18,800	
	2/4	中庸講義補	43,752	
	2/5-6	孟子要義	73,175	
	2/7-16	論語古今注	292,537	
	2/17-19	詩經講義	89,601	
	2/20	詩經講義補遺	26,219	
	2/21	尚書古訓序例	35,478	
	2/22-28	尚書古訓	204,479	
	2/29-32	梅氏書平	142,055	
	2/33-36	春秋考徵	103,070	
2/37-44	周易四箋	234,356		
2/45-48	易學緒言	97,992		
禮集	3/1-16	喪禮四箋	437,428	656,974
	3/17-20	喪禮外編	108,931	
	3/21-22	喪儀節要	53,885	
	3/22	祭禮考定		
	3/23	嘉禮酌儀	32,824	
		禮疑問答		
3/24	風水集議	23,906		
樂集	4/1-4	樂書孤存	92,874	92,874

政法集	5/1-15	經世遺表	362,728	1,011,173
	5/16-29	牧民心書	370,208	
	5/30-39	欽欽新書	278,237	
地理集	6/1-4	疆域考	128,772	240,728
	6/5-8	大東水經	111,956	
醫學集	7/1-6	麻科會通	120,150	125,933
	7/부	附醫零	5,783	
총계				4,21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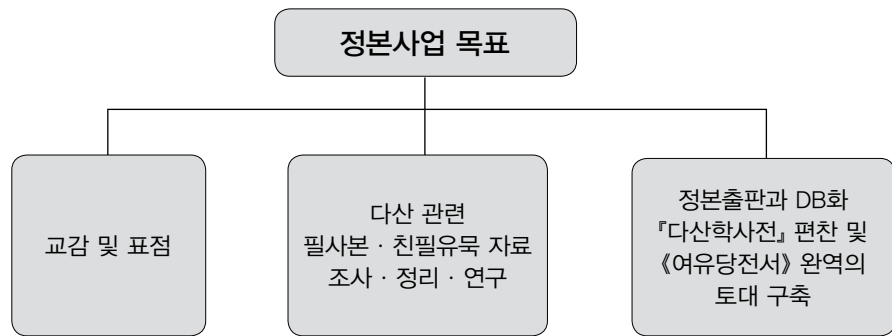
신조본은 다산의 저작을 시문집 및 잡찬집, 경집, 예집, 악집, 정법집, 지리지, 의학집의 총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전집’의 형태로 출판되었는데, 다산 사후 100년 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였다. 신조본이 지난 80년간 다산학 연구의 원문 저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과연 이것이 다산 저작의 원형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다산 저작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먼저 다산의 저서가 그의 생전에 출판된 것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하는 필사본들은 전사傳寫 과정에서 많은 오사誤寫와 탈자脫字가 발생 했을 것이다. 당시 이미 주요한 필사본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자료수집의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편집과정에서 편수의 오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편집 체제에 있어서도 다산이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밝혔던 것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다산의 저작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수록되고, 오히려 『민보의』와 같이 명백하게 다산의 저작으로 판단되는 자료가 누락되었다. 이에 다산학회 김영호金泳鎬는 오랜 공력 끝에 누락된 자료들을 모아 《여유당전서보유》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필사 선본을 찾아 《여유당전서》를 교감하고, 국제적인 고전정리 방식인 표점을 적용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갖추며, DB화를 통해 고전원문 자료를 현대화하는 것은 다산학계의 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정보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고조되었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을 위한 정보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추진되었다.



1. 국제적 고전정리 방식인 표점을 표시하여 원문 해독을 용이하게 한다.
2. 신조본과 필사 선본의 대조를 통해 신조본의 오·탈자 및 내용을 교감한다.
3. 한글쓰기 체제에 따른 가로쓰기를 채택하여 현대화된 편집·출판 체제를 확립한다.
4. 교감을 위한 필사 선본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필사본을 조사·정리·연구한다.
5. 《여유당전서》 미수록 저술을 조사·수집하고 진위판정을 통해 『보유』로 편입한다.
6. 『정보 여유당전서』의 DB화와 웹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7. 『다산학사전』 편찬 및 『정보 여유당전서』 완역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 3. 사업 내용과 성과

『정보 여유당전서』는 신조본을 저본으로 하여 여기에 총 13개 부호의 표점을 적용하고 1만여 자에 이르는 교감 연구를 거쳐 총 37책으로 출간되었다. 정보는 신조본의 분류체계를 따른 34책에, 《보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약 48만 자에 이르는 내용을 따로 3책으로 엮어 편집·출간하였다. 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정보의 구성

번호	서명	번호	서명	번호	서명	번호	서명	
1책	詩集	7책	孟子要義	19책	喪禮四箋Ⅱ	29책	牧民心書Ⅲ	
2책	文集Ⅰ	8책	論語古今注Ⅰ	20책	喪禮四箋Ⅲ	30책	欽欽新書Ⅰ	
3책	文集Ⅱ	9책	論語古今注Ⅱ	21책	喪禮外編	31책	欽欽新書Ⅱ	
4책	文集Ⅲ	10책	詩經講義	22책	四禮家式	喪儀節要	32책	疆域考
5책	雜纂集		文獻備考刊誤			詩經講義補遺	祭禮考定	33책
		雅言覺非	尙書古訓序例			嘉禮酌義	34책	麻科會通
		耳談續纂	尙書古訓Ⅰ		禮疑問答	附醫零		
	小學珠串	12책	尙書古訓Ⅱ		風水集議	35책	與猶堂全書補遺Ⅰ	
6책	大學公議	13책	梅氏書平	23책	樂書孤存	36책	與猶堂全書補遺Ⅱ	
	大學講義	14책	春秋考徵	24책	經世遺表Ⅰ	37책	與猶堂全書補遺Ⅲ	
	小學枝言	15책	周易四箋Ⅰ	25책	經世遺表Ⅱ			
	心經密驗	16책	周易四箋Ⅱ	26책	經世遺表Ⅲ			
	中庸自箴	17책	易學緒言	27책	牧民心書Ⅰ			
	中庸講義補	18책	喪禮四箋Ⅰ	28책	牧民心書Ⅱ			

또한 필사본 출장 조사 과정에서 함께 발굴된 다산의 간찰 121점을 묶어 『다산 간찰집』 1책이 박철상의 책임연구로 출간되었다.

이렇게 정본의 연구와 감수, 출간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연구자는 송재소(宋載邵, 연구책임자)를 필두로 원로 학자 및 소장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에 이른다. 각 분야별 책임연구자와 감수자는 다음과 같다. (정본사업 전체 참여자 명단은 부록 참조)

○ 『정본 여유당전서』 책임연구자 및 감수자

번호	서명	책임연구자	감수자
1책	詩集	심경호	송재소
2책	文集 I	심경호	김언중
3책	文集 II	심경호	김언중
4책	文集 III	심경호	김언중
5책	文獻備考刊誤	심경호	김언중
	雅言覺非	심경호	김언중
	耳談續纂	심경호	김언중
	小學珠串	심경호	김언중
6책	大學公議	이광호	송재소
	大學講義	이광호	송재소
	小學枝言	이광호	송재소
	心經密驗	이광호	송재소
	中庸自箴	이광호	송재소
	中庸講義補	이광호	송재소
7책	孟子要義	이지형	송재소
8책	論語古今注 I	이지형	김언중
9책	論語古今注 II	이지형	김언중
10책	詩經講義	김언중	심경호
	詩經講義補遺	김언중	심경호
11책	尙書古訓字例	임재완	김문식
	尙書古訓 I	임재완	김문식
12책	尙書古訓 II	임재완	김문식
13책	梅氏書平	이지형	김만일
14책	春秋考徵	금장태/박종천	이광호
15책	周易四箋 I	방인	황병기
16책	周易四箋 II	방인	황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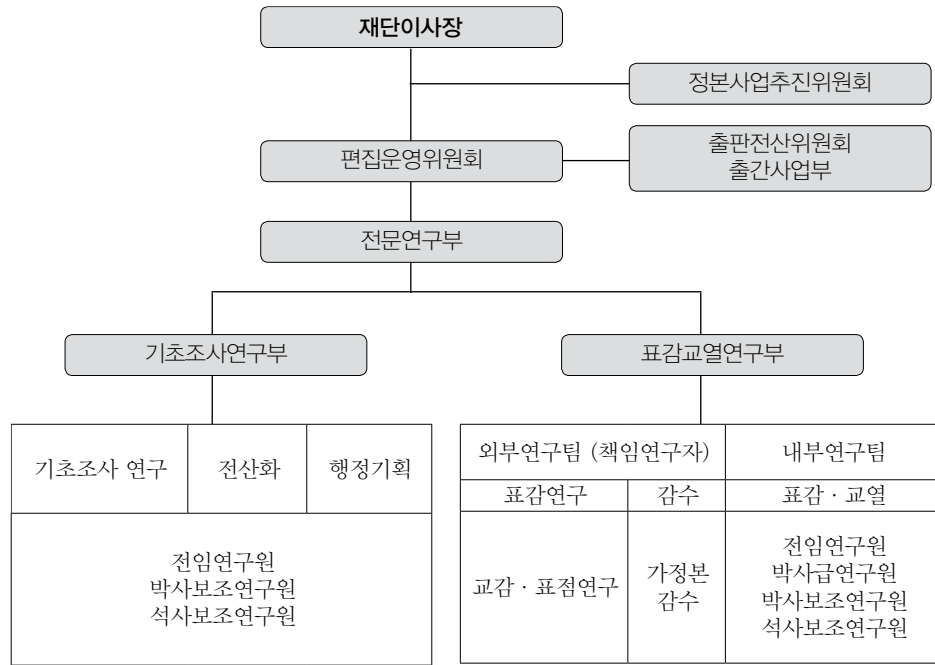
17책	易學緒言	방인/장정옥	김영우	
18책	喪禮四箋 I	장동우/박종천	박종천/장동우	
19책	喪禮四箋 II	장동우/박종천	박종천/장동우	
20책	喪禮四箋 III	장동우/박종천	박종천/장동우	
21책	喪禮外編	박종천	장동우	
22책	四禮家式	喪儀節要	박종천	장동우
		祭禮考定	박종천	장동우
		嘉禮酌義	박종천	장동우
	禮疑問答	박종천	장동우	
	風水集議	박종천	장동우	
23책	樂書孤存	권태욱	이상필	
24책	經世遺表 I	김태영	이봉규/이원택	
25책	經世遺表 II	김태영	이봉규/이원택	
26책	經世遺表 III	김태영	이봉규/이원택	
27책	牧民心書 I	손홍철/이주행	이상필/안병직	
28책	牧民心書 II	손홍철/이주행	이상필/안병직	
29책	牧民心書 III	손홍철/이주행	이상필/안병직	
30책	欽欽新書 I	이종일	정금식	
31책	欽欽新書 II	이종일	정금식	
32책	疆域考	조성을	박인호	
33책	大東水經	양보경	조성을	
34책	麻科會通	김대원	백정의	
	附醫零	김대원	백정의	
35책	與猶堂全書補遺 I	김언중	이정섭/요대용	
36책	與猶堂全書補遺 II	김언중	이정섭/요대용	
37책	與猶堂全書補遺 III	김언중	이정섭/요대용	

## 2장

# 정본사업단 추진 체제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본사업단’을 재단의 기구로 설립하였다. 정해창(丁海昌) 재단 이사장이 총괄하는 정본사업단은 국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2003년 정본사업단의 연구체계 확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결 및 토론 기구로 편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본의 편집 및 출판 체제를 연구하기 위한 출판전산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였다. 정본사업단은 2004년 9월부터 체계적인 정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송재소(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연구부를 운영하였다. 2012년 2월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문연구부는 연구의 두 축인 교감·표점 연구 및 필사본·연활자본·친필유묵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출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11월부터 출간이 완료된 2012년 12월까지, 김태영(金泰永, 출간책임자)을 중심으로 출간사업부를 운영하였다.

○ 정본사업단 체제



편집운영위원회는 전문연구부의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의결하고, 전문연구부와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을 위해 각 분야별로 책임연구를 맡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책임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편집운영위원회는 정본사업 기간 동안 연 2회 편집운영회의를 가지면서 연구 진행 정도를 확인·조정하고, 교감 및 표점 범례, 정본의 편집 체제, 출간 등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여 정본 연구의 추진을 견인하였다. 편집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편집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비고
송재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한문학	위원장
이지형	前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문학	위원
김태영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	위원
금장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종교학	위원
이광호	연세대학교 교수	철학	위원
김언중	고려대학교 교수	한문학	위원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교육학	위원
방인	경북대학교 교수	철학	위원
조성을	아주대학교 교수	역사학	위원
김문식	단국대학교 교수	역사학	위원
심경호	고려대학교 교수	한문학	위원
장동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철학	위원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연구기획실장	철학	위원

전문연구부는 실제의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하며 표감교열연구부와 기초조사연구부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특히 교감校勘과 표점標點, 교열校閱의 실무를 수행한 표감교열연구부는 내부연구팀과 외부연구팀으로 나뉜다.

먼저 외부연구팀은 직접 교감과 표점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자와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154권 76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경학·시문·정치경제·역사지리·법학·의학·음악·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여유당전서》의 연구를 몇 명의 전임연구원들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문집·잡찬집, 경집1, 경집2, 경집3, 예집, 정법집, 약집·지리·의학집, 《보유》 등 분야를 나누고 다시 15개 팀으로 세분하여 각 팀마다 책임연구자와 감수자를 선정하였다.

내부연구팀은 전임연구원, 박사급연구원, 박사보조원, 석사보조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매해 년도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외부연구팀의 연구결과를 교열하여 가정본(假定本)을 완성하며, 전년도에 간행된 가정본의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감수본(監修本) 간행을 책임졌다.

기초조사연구부는 국내외 필사본의 조사·정리 및 연구를 진행하였고, 필사본 등 관련 자료의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초조사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전산화, 행정실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정보사업의 추진을 위해 간사(이주행, 연구기획실장)를 두어 전문연구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실무 처리를 도모하였다.

## 사업비 결산 내용

### ○ 정보사업 총 사업비

- 사업기간: 2002년 1월 ~ 2012년 12월
- 총 소요비용: 2,916,447,061원
  - 국고: 1,962,955,760원(한국학중앙연구원)
  - 재단: 953,491,301원(SBS 문화재단 4억원 포함)

		연도	재단	국고	합계
기획 준비		2002	17,816,340	-	17,816,340
		2003	19,667,000	-	19,667,000
연구	1 단 계	2004	16,000,000	10,102,000	26,102,000
		2005	24,295,090	75,898,500	100,193,590
		2006	64,549,752	153,683,739	218,233,491
		2007	84,821,905	196,700,000	281,521,905
		2008	78,738,068	251,947,089	330,685,157
	2 단 계	2009	137,475,154	189,425,794	326,900,948
		2010	98,133,643	242,373,973	340,507,616
		2011	255,151,240	239,796,188	494,947,428
출간		2012	156,843,109	603,028,477	759,871,186
총계			953,491,301	1,962,955,760	2,916,447,061

# 제2부

## 정본사업 경과 및 내용

1장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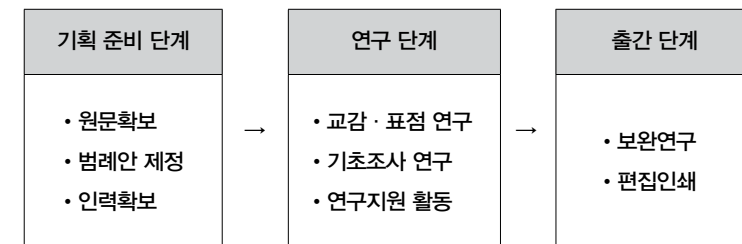
2장 | 기획 준비 단계

3장 | 연구 단계

4장 | 출간 단계

‘정보사업’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2001년에 착수하여 2012년 출간에 이르기까지 크게 기획 준비 단계, 연구 단계, 출간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 정보사업 전체 경과



## 1. 기획 준비 단계

- 시기 : 2001.09 ~ 2004.08
- 내용 :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9월 정보사업 시행을 결정하면서부터 우선적으로 ①전산 입력된 원문의 확보 ②교감 및 표점 연구를 위한 표준범례안 제정 ③교감을 위한 필사본의 확보 ④연구 인력의 확보 ⑤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정보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1년 11월부터 한국고전번역원(舊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하 현재 명칭 사용)과 업무협정을 통해 《여유당전서》 입력 데이터를 제공 받았다.

## 2. 연구 단계

- 시기 : 2004.09 ~ 2012.02
- 내용 : 2004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하 현재 명칭 사용)의 국학진흥연구사업(1단계) 및 한국학진흥사업단(2단계)의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서 정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단계(2004.9~2008.12) 기간 동안 가정본 19책과 감수본 14책을 발간하였으며, 2단계(2009.03~2012.02) 기간 동안 가정본 18책과 감수본 23책을 발간하고 2012년 2월에 정보 연구를 완료하였다.

## 3. 출간 단계

- 시기 : 2008.말 ~ 2012.10
- 내용 :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008년 말부터 정보출간을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출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2011년 11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어 출간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은 2012년에 드디어 『정보 여유당전서』 37책 및 『다산 간찰집』 1책을 발간하였다. 이후 12월 20일 사업 성과 발표(한국학진흥사업단 주최, 서울 하얏트호텔)를 하였으며, 12월 21일 '정보출판기념회'(서울, 코리어나호텔)를 가졌다.



○ 정보사업 진행표

단계		사업 내용	비고
기획 및 준비 2001.09 ~ 2004.08		사업 기반 구축	한국고전번역원 원문 데이터 제공
연구	1 단 계	1차 2004.09 ~ 2005.08	《여유당전서》 원문 전산화 완료
		2차 2005.09 ~ 2006.07	가정보 9책
		3차 2006.08 ~ 2007.06	가정보 7책, 감수본 9책
		4차 2007.07 ~ 2008.05	가정보 8책, 감수본 7책
		5차 2008.06 ~ 2008.12	가정보 8책, 감수본 8책
연구	2 단 계	1차 2009.03 ~ 2010.02	가정보 6책, 감수본 5책
		2차 2010.03 ~ 2011.02	가정보 6책, 감수본 6책
		3차 2011.03 ~ 2012.02	가정보 6책, 감수본 12책
출간	2008.말 ~ 2011.11	출간 준비 작업	2012.12.21 출판기념회
	2011.11 ~ 2012.10	『정보 여유당전서』 37책, 『다산 간찰집』 편집 및 출간	

2장

## 기획 준비 단계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첫발을 딛다

### 1. 추진 일정

일 자	내 용
2001.09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시행 결정
2001.11	한국고전번역원과 업무협정
2002.01.10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준비모임
2003.02.07	《여유당전서》 범례시안을 위한 소모임
2003.04.28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편집운영위원회 발족
2003.10.04~05	표준범례안 마련을 위한 공동(퇴계학연구원) 워크숍
2003.10 ~ 2004.08	《여유당전서》 정보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

### 2. 세부 내용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의 시의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2001년 9월 정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였고, 먼저 방대한 다산 저술의 정보화를 위한 가능성과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조본만이 다산학 연구의 원문 자료로 활용되던 당시에 한국고전번역원으로부터 《여유당전

서》 전산 입력 자료의 단계적 제공을 약속받고 2001년 11월 이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먼저 작업이 완료된 『시문집』 전산 입력 자료를 제공받았고, 조속한 작업을 위해 『경집』의 전산 입력 자료에 대한 교열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산화된 원문 확보를 위해 한국고전번역원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이후 다산학술문화재단은 한국고전번역원으로부터 입력이 완료된 전산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공받았으며, 전문연구부를 통하여 각 분야 책임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500만 자에 이르는 원문 전산 자료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위해 연구시스템 확립은 중요한 과제였다. 《여유당전서》는 내용의 다양성과 방대성으로 인해 각 분야 전문 연구진에 의한 분담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다산학에 평생을 매진한 원로 학자, 소장 연구자들을 아울러 단독 혹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당초 15팀으로 세분화 된 각 연구팀의 책임연구자는 일정기간 연구계획에 따라 담당부분의 연구를 맡기로 하였고, 2006년(3차년도)에 책임연구원의 감독 하에 연구팀의 연구 초교본에 대한 책임 감수 및 교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004년 국고의 지원으로 정보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8개년에 이르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원문 전산 자료의 확보, 연구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1차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2002.01.10) 금장태, 송재소, 심경호, 유권중, 이광호, 이지형, 정순우, 정해림, 이주행 등이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한국고전번역원의 업무협조와 관련한 토론이 있었고 표점 및 교감 범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연구시스템과 책임연구자들의 계획안이 얘기되었다. 또한 신조본을 정보 연구의 저본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표

준범례안’을 확정하기 위해 우선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모임을 다시 갖기로 하였다. 심경호, 김문식, 이광호, 이주행 등이 모여 《여유당전서》 범례시안을 위한 2차(2002.02.07) 회합을 가졌는데, 회의 결과 심경호가 표준범례 1차 시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서 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마침내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편집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2003.04.28) 1차 회의를 가졌다.

원문 전산 자료의 확보, 연구시스템 확립, 편집운영위원회의 발족 등 정보사업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1차 범례 시안을 바탕으로 표점 및 교감연구를 위한 표준범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4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보사업의 첫 문을 열었던 퇴계학연구원과 함께 공동 워크숍(수유리 아카데미)을 가졌다. 공동 워크숍은 두 민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으로 정보사업을 주제로 토론했던 학술 모임이었다. 당시 논의의 주요 쟁점은 무엇보다도 정보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였고, 또한 표준범례안에 대한 두 기관의 이견이었다. 특히 이 워크숍을 통해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여유당전서》의 교감을 위해서 필사본이나 친필유묵 같은 기초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가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교감을 위한 필사 선본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박철상(고문헌연구가)을 초빙하여 국내외 필사본, 특히 해외 필사본 조사·수집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제 시기 다산 저작의 필사 선본들 다수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특히 주요 선본이 일본·미국 등지에 산재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먼저 일본 지역 필사본 조사·수집에 착수하였다. 2004년 마침 일본에 유학 중이던 노경희에게 일본 소재 필사본을 조사하여 목록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목록을 바탕으로 일본 소재 필사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출장 조사 및 복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및 미국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기초자료 조사연구’ 참조) 또한 국내 필사본의 경우,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소장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먼저 장서각에 소장된 다산 관련 필사본들을 복사 입수하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001년부터 당면한 여러 난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 연구를 수행할 연구 인력의 확보와 사업비의 조달이라는 중대한 난관에 직면하였다. 민간 학술연구지원기관인 다산학술문화재단으로서는 정보사업의 규모면에서 볼 때 국가 연구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에 재단은 그간 준비해 온 연구기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기초토대연구로서 정보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여 2004년 9월부터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 연구 단계

정보사업 날개를 달다

### 1. 개괄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004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 착수하였고, 1단계 5개년(2004.9~2008.12, 국학진흥연구사업), 2단계 3개년(2009.3~2012.2, 한국학진흥사업단)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총 2단계 8개년에 걸친 정보사업은 크게 교감·표점 연구, 기초조사 연구, 연구지원 활동 세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전문연구부는 신조본에 대한 교감·표점 및 교열 연구를 진행하여 총 37책의 가정보假定本 및 감수본監修本을 완성하였다. 또한 교감과 표점의 원칙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여유당전서》를 위한 표준범례를 확정하였으며, 그간의 시행착오를 정리한 교감기를 작성하였다.(‘교감기’는 부록 참조)

전문연구부는 기초조사연구를 통해서 정보사업에 필요한 필사본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연구하여 필사 선본을 복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신조본이나 《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친필유묵 등의 자료를 발굴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신조본의 출간배경 및 필사본 전승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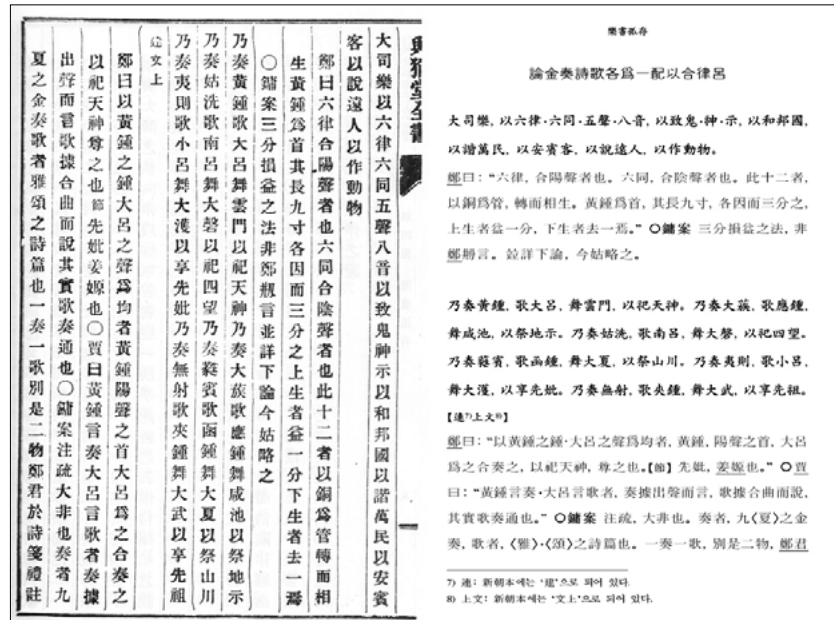
또한 편집운영회의, 실무회의 등 연구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사업이 원활하게 진

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연구지침 논의, 그리고 연구진행 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총 15회에 이르는 대외·대내 워크숍을 통해 연구 관련 과제들을 토론했고 연구결과를 정리·발표하면서 전문가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2. 교감·표점 연구

교감·표점 연구는 정보사업의 주요 연구 분야이다. 교감校勘 연구는 다산 저술의 필사본 가운데 선본을 대조하여 신조본의 오자 및 탈자, 편집 체제 등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표점標點 연구는 가로쓰기 체제로 입력된 원문 데이터에 13개의 표점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향후 전산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조본을 저본으로 교감·표점 연구를 거쳐 정보화 된 원문을 예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 ○ 교감·표점 작업 예시



〈신조본〉

〈정본〉

전문연구부는 교감·표점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선발주先發注 → 가정본 → 감수본을 발간하는 연구 수행 체계를 세웠다. 정보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분야별로 15개 팀으로 나뉘어 전문 연구가들로 구성된 외부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1차 연구) 내부의 표감교열연구부는 연구 계획에 따라 입수된 외부연구팀의 1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외부연구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을 거친 가정본을 발간하였다.(2차 연구) 다음으로, 연차별로 완성된 가정본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교감과 표점 상태에 대한 감수를 의뢰하고, 그 감수 결과를 반영한 감수본의 발간을 수행하였다.(3차 연구) 그리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년도 교감·표점 및 교열 대상 자료를 선발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단계별로 진행된 가정본·감수본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단계별 교감·표점 연구 도표

단계-연도	가정본	감수본	차년도 선발주	
제 1 단계	1차년	《여유당전서》 원문 입력·전산화		
	2차년	春秋考徵 梅氏書平 大學公議 大學講義 小學枝言 心經密驗 孟子要義 論語古今注 I	-	-
	3차년	論語古今注 II 中庸自箴 中庸講義補 詩經講義 詩經講義補遺 樂書孤存 疆域考	春秋考徵 梅氏書平 大學公議 大學講義 小學枝言 心經密驗 孟子要義 論語古今注 I	麻科會通 附醫零 周易四箋 I 周易四箋 II 經世遺表 I 經世遺表 II 經世遺表 III 疆域考

	4차년	麻科會通 附醫零 周易四箋 I 周易四箋 II 經世遺表 I 經世遺表 II 經世遺表 III 疆域考	論語古今注 II 中庸自箴 中庸講義補 詩經講義 詩經講義補遺 樂書孤存 疆域考	文集 I 文集 II 文集 III 文獻備考刊誤 雅言覺非 耳談續纂 小學珠串 詩集
	5차년	詩集 文集 I 文集 II 文集 III 文獻備考刊誤 雅言覺非 耳談續纂 小學珠串	麻科會通 附醫零 周易四箋 I 周易四箋 II 經世遺表 I 經世遺表 II 經世遺表 III 疆域考	尙書古訓 I 尙書古訓 II /尙書古訓序例 喪禮外編 嘉禮酌儀 喪儀節要 祭禮考定 禮疑問答 風水集議 易學緒言
	총계	19책	14책	
제 2 단계	제1차년	尙書古訓 I 尙書古訓 II /尙書古訓序例 喪禮外編/嘉禮酌儀 喪儀節要/祭禮考定/ 禮疑問答/風水集議 易學緒言 欽欽新書	詩集 文集 I 文集 II 文集 III 雜纂集	欽欽新書 II 喪禮四箋 I 喪禮四箋 II 喪禮四箋 III 與猶堂全書補遺 I 與猶堂全書補遺 II
	제2차년	欽欽新書 II 喪禮四箋 I 喪禮四箋 II 喪禮四箋 III 與猶堂全書補遺 I 與猶堂全書補遺 II	尙書古訓 I 尙書古訓 II /尙書古訓序例 喪禮外編/嘉禮酌儀 喪儀節要/祭禮考定/ 禮疑問答/風水集議 易學緒言 欽欽新書 I	牧民心書 I 牧民心書 II 牧民心書 III 大東水經 與猶堂全書補遺 III 與猶堂全書補遺 IV
	제3차년	牧民心書 I 牧民心書 II 牧民心書 III 大東水經 與猶堂全書補遺 III 與猶堂全書補遺 IV	欽欽新書 II 喪禮四箋 I 喪禮四箋 II 喪禮四箋 III 與猶堂全書補遺 I 與猶堂全書補遺 II 牧民心書 I 牧民心書 II	
			牧民心書 III 大東水經 與猶堂全書補遺 III 與猶堂全書補遺 IV	
	총계	18책	23책	
총계	총 37책	총 37책		

단계별 연구 경과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1단계

1단계 연구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4년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에 착수하면서 먼저 《여유당전서》의 입력·전산화된 원문을 확보하였고, 2차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감·표점 연구를 진행하여 가정본 19책, 감수본 14책을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표준범례안을 수정 보완해갔다. 1단계 5차년에 걸친 사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는 교감·표점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신조본의 원문을 입력·전산화 하였다. 정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입력 원문은 협력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으로 전산 입력이 완료될 수 있었다.

2차년도에는 정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진행된 외부연구팀의 연구결과를 결집하여 처음으로 가정본 4책을 만들었다. 그 주요 내용은 1차년도 필사본 기초조사연구를 마친 『경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1책: 『대학공의』·『대학강의』·『심경밀험』·『소학지언』·『맹자요의』, 제2책: 『논어고금주』 I, 제3책: 『매씨서평』, 제4책: 『춘추고징』 등 총 4책에 대하여 교감·표점 및 교열을 진행하여 4책의 가정본이 만들어졌다. 가정본은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외부연구팀의 1차 연구와 전문연구부의 2차 연구(교열 및 수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문연구부는 해당연도에 선발주한 연구의 성과를 수합하여 교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교감과 표점을 담당한 책임연구자와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동시에 그동안 준비하였던 표준범례안을 교감·표점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범례안을 수정·보완하였다.

3차년도에는 교감·표점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연구 대상의 글자 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정본과 감수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확정하였다. 더불어 연구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년도 연구 대상 가정본을 1년 전에 미리 선발주 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 완성된 가정본 4책에 대해서는 다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수를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감수 결과를 반영하여 처음으로 감수본 4권을 완료하였다. 전문연구부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감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보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감수결과 의견문’ 양식을 만들어 자료로 남겨두었다.(‘감수결과 의견문’ 양식은 부록 참조)

3차년도부터 1단계 연구가 완료된 5차년도까지, 전문연구부는 진행 일정의 엄밀한 관리와 외부연구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계획에 따라 선발주, 가정본 및 감수본 발간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다만 3차년도에 계획된 제7책 『상서고훈』·『상서고훈서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번역본도 없기 때문에, 편집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4차년도) 과제로 이월하였고 대신 『아방강역고』·『중용자잠』·『중용강의보』 등 다른 저작으로 대체하였다. 『상서고훈』·『상서고훈서례』에 대한 정보 연구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기간을 늘여서 2단계 1차년도에 가정본을 완성하였다.

1단계 마지막 연도(5차년도)에서는 당시까지 표점·교감·교열 및 감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표준법례에 따른 각종 부호의 통일성, 책임연구자가 진행한 작업의 완성도에 관한 문제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향후 정보의 최종 확정 및 다른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감수자·교감자·교열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구 내용과 형식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2) 2단계

2단계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에 이르기까지 총 3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단계에서는 가정본 18책, 감수본 23책을 발간함으로써 계획된 37책의 가정본과 감수본 연구를 완료하였다. 특히 다량의 필사본이 존재하여 선본 확정이 어려웠던 『흠흠신서』와 『목민심서』, 그리고 번역서가 없고 작업이 까다로운 예집禮集과 《보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1단계에서 완료되지 못했던 『상서고훈』 I·II와 『역학서언』에 대한 정보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여유당전서》 가운데 경집에 대한 교감·표점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또한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예집과 《보유》에 대한 정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유》의 경우, 활자가 아닌 필사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글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탈초와 입력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번역서도 없고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점 및 고유 명사에 대한 밑줄 작업의 난이도가 높았으므로, 이에 《보유》 연구는 3차년에 이르러 비로소 완료하게 되었다. 3차년도에는 필사본이 많아서 대조 작업량이 적지 않은 『목민심서』 I·II·III, 그리고 연구가 지연되었던 『대동수경』을 마지막으로 정보사업의 대장정을 끝낼 수 있었다.

### 3. 기초자료 조사연구

#### 1) 연구 내용

기초자료 조사연구는 교감·표점 연구를 위한 서지적 토대를 구축하는 연구로서, 정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 낸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신조본에 대한 교감을 위해 시급했던 과제가 대조·교감을 위한 필사 선본을 확보하여 책임연구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부는 기초조사연구부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그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체계를 확립하였다. 정보사업 기간 동안 기초조사연구부는 국내외에 산재한 다산 관련 필사본·친필유묵 등 자료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이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고, 필요한 자료들을 복사하여 연구자들에게 교감 및 연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꾸준히 자료를 검색하고 발굴하여 목록정보를 보완해 나갔다. 기초조사연구부가 수행한 연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국내외에 산재한 다산 저작 관련 필사본 및 연활자본의 조사·연구를 통해 교감 및 대조본으로서의 선본을 확정하고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 신조본에 수록되지 않는 다산의 저작을 정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유》를 연구하는 동시에, 《여유당전서》 미수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산 및 관련 인물들의 친필유묵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 필사본, 친필유묵 등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신조본 및 『정본여유당전서』의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단계별 기초자료 조사연구 도표

형태		1단계	2단계	비고
필사본·연활자본 조사 정리	소장처별·저작별 목록 작성	필사본 306종(국내235, 해외71) 연활자본 144종(판본 37종)	필사본 9종 발굴, 1종 삭제	필사본 총 314종 연활자본 총 144종
	고서목록카드 작성	필사본 298종(국내235, 해외63) 연활자본 29종		
	서지파일 제작	필사본 298종(국내235, 해외63) / 사진 7,852컷/ 전산화 302종 연활자본 29종/사진 1,332컷		
	출장조사 및 자료수집(복사)	필사본 298종(국내235, 해외63) 연활자본 57종 출장조사(판본 29종)/ 11종 복사	출장 36회, 필사본 24종, 친필유묵 45종, 기타자료 7종 열람. 사진 4178, 마이크로 필름 45장 입수	
국내외 필사본·연활자본 연구		17편	6편	총 23편
《보유》 연구		원문 전산 입력 시詩 일부, 교치설 탈초 해제	입력 1,2차 교정 나머지 탈초 해제	진위 연구 실시 (총 49편중 17종 다산 저작 아님)
친필유묵 조사 연구		간찰 40종, 유묵 30종 수집	간찰 63종, 유묵 보완	간찰 총 103종 유묵(간찰첩포함) 총 33종

## 2) 단계별 특징

기초자료 조사연구는 먼저 국내외 필사본 소장 현황에 대한 조사·정리부터 착수하였다. 먼저 국내 주요 소장처, 일본·미국 등에 산재된 해외 필사본 소장처를 조사하여 소장처 목록을 작성하였고, 국내외 소장처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복사 및 촬영을 신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소장처 목록 및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저작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소장처별·저서별 목록작성과 더불어 ‘고서목록카드 작성’ ‘서지파일 제작’ 등 다산 관련 고자료 정리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기초조사연구부는 국내 필사본의 주요 소장처인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1단계 5개년도 동안 필사본 306종, 연활자본 144종을 발굴하여 조사 정리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기초조사연구 2단계부터는 1단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추가 출장조사를 통해 필사본과 연활자본 목록을 보완하고 전산화하였다. 또한 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외에 학계에 보고된 자료를 비롯하여 박물관과 옥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들을 탐색·수합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사본, 간찰, 유묵 목록을 최종 완성하였다. 필사본 최종목록은 1단계 필사본 목록을 수정하고 새로 발견한 자료를 추가하여 총 314종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필사본과 함께 연활자본도 144종이 정리되었다.

또한 기초조사연구부는 서지 전문연구가를 초빙하여 필사본 및 연활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선본을 확정하여 교감연구자에게 제공하였고 정보의 체계 확정을 위한 서지 정보를 갖추었다. 이 과정에서 총 23편에 이르는 관련 논문이 『다산학』 및 타 학술지를 통해 학계에 발표되어 다산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게 되었다.(논문 목록은 부록 참조)

전문연구부는 신조본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저작이나 시문을 발굴하여 『정보 여유당전서』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먼저 《보유》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보유》에 실린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진위 연구를 의뢰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보유》 관련 필사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보유》에 실린 49종 가운데 다산의 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17종을 제외하고 전산 입력을 진행하여 1차 교정을 완료하였다. 2단계부터는 교감과 표점을 진행할 책임연구자를 선정하여 2012년에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편집운영위원회에서는 교감·표점연구를 거친 《보유》 자료들은 『정보 여유당전서』 체제 속에 『보유』(35~37책)로 편입시키기로 하였고, 정보사업 과정에서 새로 발굴되고 신조본과 《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간찰들은 『정보』의 시문집에 편입시키지 않고 따로 자료집으로 묶어 출간하기로 하였다.

필사본 조사·정리와 출장과정에서 40종의 다산 간찰과 유묵 30종이 확인·입수되었는데, 2단계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 수집을 진행하여 63종에 이르는 간찰을 확보하여 총 103종의 간찰 목록이 완성되었고, 이에 대한 정리와 연구도 진행되었다. 먼저 입수된 자료의 진위를 판별하고, 진본의 경우 탈초를 하였으며, 신조본 및 《보유》와의 대조를 통해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수록 자료일 경우 상세한 정보를 입력한 정리카드를 만들었는데, 2단계까지 총 103종의 간찰과 간찰첩을 포함한 33종의 유묵에 대한 정리카드가 완성되었다.

또한 미수록 자료들을 정보화 하기 위해 탈초·표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출간될 정보가 신조본의 체제를 따르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신발굴 자료는 시문집에 편입되지 않고 자료집으로 별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출간사업 기간(2011.11~2012.10) 동안 보완연구를 진행하여 총121종의 간찰로 정리하여 『다산 간찰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을 목표로 연구 초기부터 정보의 체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집, 《보유》, 신조본의 출간배경, 필사본 전승 등에 관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체제 결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연구논문 목록은 부록 참조)

#### 4. 연구지원 활동

전문연구부는 교감·표점 및 기초자료 조사연구를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하고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지원회의(편집운영회의와 실무회의 등) 및 워크숍 등의 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 ○ 연도별 연구지원 활동

		연구지원회의			워크숍	비고
		편집운영회의	실무회의	출판전산회의		
1 단 계	1차년	2회	-	-	1회	
	2차년	2회	-	2회	2회	필사본 연구회의 5회(2006년)
	3차년	2회	매주 1회 이상	-	2회	
	4차년	2회	매주 1회	-	2회	
	5차년	2회	48회	2회	2회	
	<b>총괄</b>	<b>10회</b>	<b>-</b>	<b>4회</b>	<b>9회</b>	
2 단 계	1차년	2회	매주 1회	-	2	
	2차년	2회	매주 1회	-	2	
	3차년	2회	매주 1회	-	2	
	<b>총계</b>	<b>6회</b>	<b>-</b>	<b>-</b>	<b>6회</b>	
<b>총계</b>	<b>16회</b>	<b>-</b>	<b>-</b>	<b>15회</b>		

#### 1) 연구지원회의

연구지원회의는 정보 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관리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문제를 논의하여 연구의 지침을 제시하며,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편집운영회의, 실무회의 등을 시행하였다.

편집운영회의는 외부연구팀의 책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 2회 총 16회에 걸친 편집운영회의를 가졌다. 편집운영회의에서는 당해 연도 연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표준범례안이나 감수자 선정 등 연구관련 중대한 문제들을 논의·결정하였다. 8년 동안 각 해당연도에 실시했던 편집운영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편집운영회의 내용

연도	일시	내용
1 단 계	1차 2005.0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범례의 확정(『여유당전서』 표점 및 교감 범례)</li> <li>『여유당전서』 정보의 체제 논의</li> <li>《보유》의 정리 문제</li> <li>기타(워크숍 개최, 1차 원고 교정 및 감수 방법, 표감작업 현황 및 차년도 연구계획, 국내의 필사본 조사 및 연구현황 등)</li> </ul>
	2차 2005.0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범례안 수정</li> <li>『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의 운영 체제 논의</li> <li>《보유》의 정리문제</li> <li>기타(워크숍 개최 등)</li> </ul>
2 단 계	1차 2005.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범례안의 수정 및 보완 검토</li> <li>2차년도 가정보 대상 선정</li> <li>《보유》 연구</li> <li>기타(워크숍 개최 등)</li> </ul>

1 단 계	3차년	2차	20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분에 대한 감수자 선정 방법 논의</li> <li>정본사업 연구기간 연장조절 의견 수렴</li> <li>교감·표점·교열 진행방법 논의</li> </ul>
		1차	2006.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년도 연구 진행 점검</li> <li>정본사업 진행계획 재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논의</li> <li>기초조사연구부분 연구발표의 내용 및 일시 정리</li> <li>3차년도 가정분 감수자 선정</li> <li>표준범례안 수정 및 보완 내용 검토</li> </ul>
		2차	2007.0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분 출간 계획 변경 논의</li> <li>정본사업 기간조정과 연구내용 재조정 및 보유편 논의</li> <li>3차년도 가정분 발간 내용과 순서 변경</li> <li>재정지원 요청</li> </ul>
	4차년	1차	2007.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년도 정본사업 경과보고 및 교감대상 변경 논의</li> <li>4차년도 가정분 감수자 선정</li> <li>전체 교감·교열 진행 상황 및 정본사업기간 연장조정</li> <li>표준범례안 수정</li> <li>기타(워크숍 주제 및 발표·토론자 선정 등)</li> </ul>
		2차	2008.0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년도 정본사업 연구결과 심사결과 및 정본사업 경과보고</li> <li>표준범례안 개별적 적용의 재량권 허용 논의</li> <li>4차년도 가정분 감수자 선정</li> <li>기타(5차년도 변화된 일정 의결, 교열담당 연구원 증원 의결, 교감책임자 및 교열연구원 간의 토론회 등)</li> </ul>
	5차년	1차	2008.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년도 연구결과와 5차년도 진행상황 경과보고 및 점검</li> <li>표준범례안 세부적 문제 심의</li> <li>교감주 작성의 용례 및 표현 통일안 심의</li> </ul>
		2차	2008.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년도 정본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li> <li>5차년도 정본사업 진행상황</li> <li>5차년도 가정분 시문집 및 『경세유표』에 대한 감수자 선정</li> </ul>

2 단 계	1차년	1차	2009.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5차년도 정본사업 연구결과 보고</li> <li>2단계 1차년도 진행상황 경과보고</li> <li>차년도(2차년도) 정본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점검</li> <li>표준범례안 수정사항 의결</li> <li>기타(워크숍 주제 및 일정 논의 등)</li> </ul>
		2차	2009.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년도 정본사업 진행상황 점검</li> <li>2차년도 정본사업 점검</li> <li>《여유당전서》 정본 체제 논의</li> <li>기타(하반기 워크숍 점검 등)</li> </ul>
	2차년	1차	2010.0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년도 정본사업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진행상황 경과보고</li> <li>3차년도 정본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점검</li> <li>정자·속자·이체자 규정에 대한 표준범례안 검토</li> <li>기타(2차 워크숍 주제 및 일정 논의 등)</li> </ul>
		2차	2010.1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년도 정본사업 진행과정 점검</li> <li>3차년도 정본사업 계획 논의</li> <li>《여유당전서》 정본 체제 문제, 한국고전번역원 표점지침 확정에 따른 정본사업팀의 입장 논의</li> <li>기타(하반기 워크숍 평가 및 차년도 워크숍 계획)</li> </ul>
	3차년	1차	2011.0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년도 정본사업 연구결과 보고</li> <li>3차년도 정본사업 진행상황 보고</li> <li>표준범례안 확정</li> <li>『정본 여유당전서』 편집 체제 확정</li> <li>《보유》구성 확정</li> <li>『논어고금주』(가출판본)를 중심으로 출판 편집형식 확정</li> <li>기타</li> </ul>
		2차	2012.0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반기 편집운영회의를 2월말로 계획했으나 『경세유표』가 3월 중에 가출판되기로 하였으므로 편집운영회의를 3월 19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개최함</li> <li>표지 및 본문 디자인 논의</li> <li>與猶堂全書(제목) 서체 논의</li> <li>제작출판사 확정 등</li> </ul>

내부연구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실무회의는 매주 1회씩 진행하여 각 팀 별 연구 진행상황과 새로운 과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회의 결과 및 연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정보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은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매주 1회씩 전임연구원과 재단의 기획 간사가 참여하는 관리자회의를 진행하였다.

편집운영회의, 실무회의와 더불어 향후 정보의 출간 준비를 위해서 비정기적인 출판·전산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연구책임자와 출판·전산 관련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정본 및 감수본의 편집 체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1단계 사업 시 2차년도(2006년)에 두 차례, 5차년도(2009년)에 두 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2단계 사업으로 진입한 2009년 회의에서는 필사본 가운데 다산의 저작으로 판명된 시詩 및 잡문雜文 등을 전산 입력할 때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가정본의 출판 체제를 다시 점검하였다. 더불어 2012년에 연구가 완료되고 출간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출판편집, 인쇄제작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 2) 워크숍

전문연구부는 교감·표점 연구와 기초자료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며, 향후 연구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8개 년 동안 총 17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 워크숍 내용

연도	일시	발표 주제		
1 단계	1차년	2005.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집 부분 필사본 연구(장동우)</li> <li>• 일본의 간사이 지방 필사본 소장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박철상)</li> </ul>	
	2차년	전반기	2006.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유당전서보유』에 대한 管見(김언중)</li> <li>• 필사본 『尙書知遠錄』 원문 검토(김문식)</li> </ul>
		하반기	2006.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牧民心書』와 『經世遺表』 筆寫本 조사의 성과(박철상)</li> <li>• 『여유당전서보유』 제1·2권에 대한 진위 연구(김언중)</li> </ul>
	3차년	전반기	2007.0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소재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노경희)</li> <li>• 『여유당전서보유』 Ⅲ·Ⅳ권의 진위 연구(김언중)</li> <li>• 『雅言覺非』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박철상)</li> </ul>
		하반기	2007.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與猶堂全書補遺』에 대한 管見(下)(김언중)</li> <li>• 『我邦疆域考』와 『大東水經』의 文獻學的檢討(조성을)</li> </ul>
	4차년	전반기	200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我邦疆域考』 관련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조성을)</li> <li>• 『民堡議』 관련 필사본 연구(박중천)</li> </ul>
		하반기	20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周易四箋』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방인)</li> <li>• 『經世遺表』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김태영)</li> </ul>
	5차년	전반기	2008.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문집에 대한 필사본 및 해제 연구(심경호)</li> </ul>
		하반기	20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與猶堂全書』 ‘經集’의 筆寫底本에 관한 考察: 규장각본 『俟菴經集』과 아사미문고본 『俟菴經集』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동우)</li> <li>• 茶山 丁若鏞 著作의 鉛活字本 研究 試探: 구한말 刊本을 중심으로(박철상)</li> </ul>

2 단 계	1차년	전반기	2009.0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감범례 및 표점범례에 대하여(임흥태)</li> <li>• 고유명사 밑줄 부분에 대하여(김선주)</li> </ul>
		하반기	2009.1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與猶堂全書』 경집의 필사저본에 관한 고찰(박종천)</li> <li>• 續『與猶堂全書補遺』의 저작별 진위문제(김언중)</li> </ul>
	2차년	전반기	2010.05.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조본 체제의 특징</li> <li>• 「자찬묘지명」 체제의 특징</li> </ul>
		하반기	2010.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 정다산 재발견의 의미(최재목)</li> <li>• 1930년대 정인보의 '다산 조선학' 논리와 &lt;조선학&gt; (전성진)</li> <li>• 일제강점기 정인보, 안재홍, 최익한의 다산 연구(박홍식)</li> <li>• 다산 저술 수정고본의 성격과 자료 전송 현황 연구 (노경희)</li> <li>• 필사본 『경세유표』에 대한 書誌的 檢討(안병직)</li> <li>• 『정보 여유당전서』의 편찬을 위한 다산 저술의 필사본 전송 사 연구: 예집을 중심으로(박종천)</li> <li>• 필사본으로 본 與猶堂集(김보름)</li> <li>• 단국대본 『주역사전』 연구: 정고본 및 신조본의 저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시론(방인)</li> </ul>
	3차년	전반기	2011.06.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조본 대조 업무보고(박승원)</li> <li>• 필사본 소장처 표기 관련(조한륜)</li> <li>• 『정보 여유당전서』 교감주 검토 및 수정내용(박지운)</li> <li>• 『정보 여유당전서』 해제(서대원)</li> <li>• 정보출간에서 표, 그림 구현(김선주)</li> <li>• 출판 시 연구자와 편집자의 소통(유재현)</li> </ul>
		하반기	2012.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여유당전서』 범례 문제(임흥태)</li> <li>• 『정보 여유당전서』 해제 문제(박승원)</li> <li>• 『정보 여유당전서』 권차 문제(김선주)</li> <li>• 신조본 출간과정 보고(김보름)</li> <li>•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 관련(유재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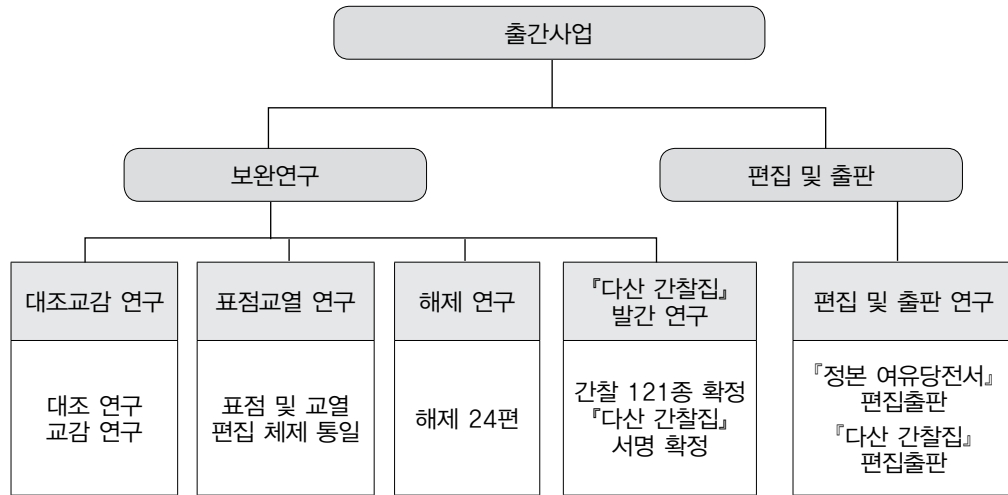
## 4장

# 출간 단계

## 1. 개괄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08년 말 다산 탄신 250주년(2012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정보 여유당전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준비에 착수하였다. SBS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출간사업은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재정 지원이 추가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해창 재단 이사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김태영(출간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보출간사업단을 구성하여 정보 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8개년에 걸친 정보 연구의 성과물인 감수본(37책)을 토대로 다시 11개월에 걸친 보완연구 및 편집출판 작업을 거쳐, 2012년 12월 학계와 일반에 보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총 37책의 『정보 여유당전서』를 출간하였으며, 12월 21일 정보출판기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간을 알렸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7책의 『정보 여유당전서』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초조사연구부에서 새로이 발굴해서 정리했던 다산의 간찰들을 탈초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서 현대적으로 편집한 『다산 간찰집』 1책을 별도로 출간하였다.

출간사업은 크게 감수본의 보완연구와 편집 및 출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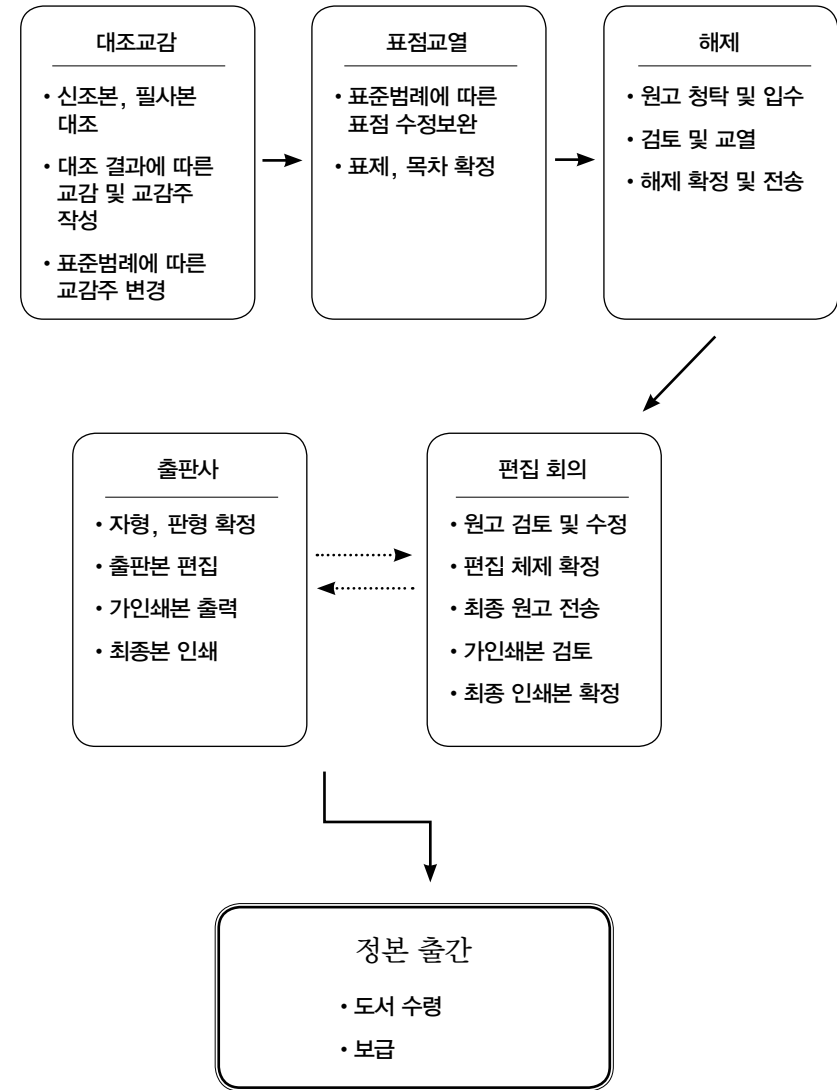


보완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신조본을 정밀히 재대조하고, 정본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발굴된 필사본을 대조하여 간결하면서도 통일된 형식의 교감주를 제시하였다. 둘째, 2011년 확정된 표준범례에 따라 표점을 통일하고 현대화된 본문 체제와 편집 체제를 갖도록 하였다. 셋째, 《여유당전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해제를 각 저작의 권두에 수록하였다.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먼저 통일되지 않은 신조본 목차 대신 현대적 목차를 구성하였고, 저본과 대교본, 교감 원칙, 교열 원칙, 참고 서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례를 수록하였다. 또한 연구팀과 출판팀의 협력 체제를 통해 편집·인쇄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수시로 출판편집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대처함

으로써 약 550만 자 총 37책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출간사업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었다.

연구·출판의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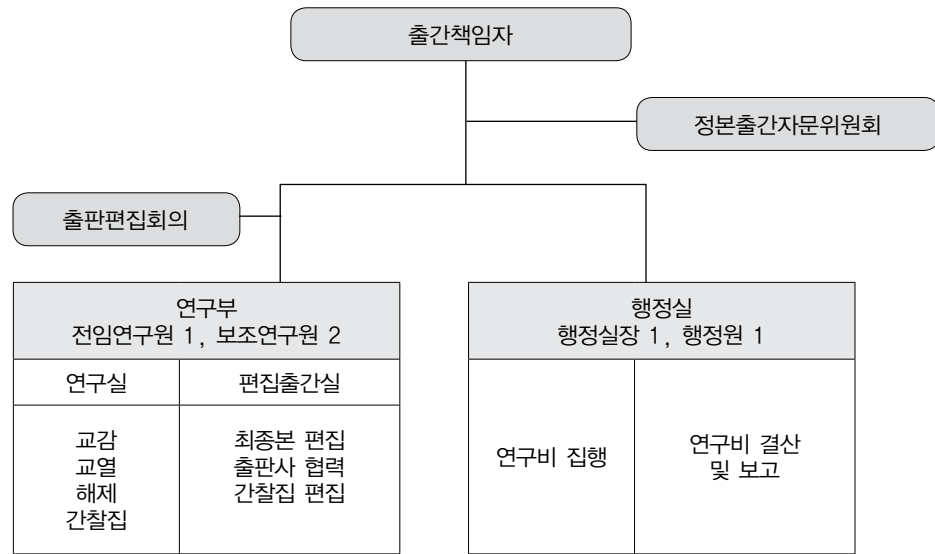
출간사업을 통해 완성된 『정보 여유당전서』의 편차를 신조본 편차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 편차

대분류	신조본		필사본	감수본		『정보 여유당전서』 편차	
	집수/권차	서명	권분량	책	쪽수		
시문집	1/1-7	詩集		15책	569	1	詩集
	1/8-22	文集		16책	378	2	文集 I
				17책	380	3	文集 II
				18책	400	4	文集 III
잡찬집	1/23	文獻備考刊誤	1권	19책	248	5	雜纂集
	1/24	雅言覺非	3권				
		耳談續纂	1권				
1/25	小學珠串	3권					
경집	2/1	大學公議	3권	3책 맹자요의 포함	165	6	大學公議 大學講義 小學枝言 心經密驗 中庸自箴 中庸講義補
	2/2	大學講義	1권				
		小學枝言	1권				
		心經密驗	1권				
	2/3	中庸自箴	3권	1책 춘추고징 포함	178	7	孟子要義
	2/4	中庸講義補	6권				
	2/5-6	孟子要義	9권	3책 편입	223	8	論語古今注 I
	2/7-16	論語古今注	40권	4책	467	9	論語古今注 II
				5책	454		
	2/17-19	詩經講義	12권	6책	423	10	詩經講義 詩經講義補遺
	2/20	詩經講義補遺	3권				
	2/21	尙書古訓序例	21권	20책	381	11	尙書古訓序例 尙書古訓 I
	2/22-28	尙書古訓		21책	366		
	2/29-32	梅氏書平	9권	2책	453	13	梅氏書平
2/33-36	春秋考徵	12권	1책 편입	324	14	春秋考徵	

	2/37-44	周易四箋	24권	9책 10책	404 372	15	周易四箋 I
	2/45-48	易學緒言	12권	24책	316	16	周易四箋 II
						17	易學緒言
예집	3/1-16	喪禮四箋	50권	27책 28책 29책	480 480 550	18	喪禮四箋 I
						19	喪禮四箋 II
						20	喪禮四箋 III
	3/17-20	喪禮外編	12권	22책	320	21	喪禮外編
	3/21-22	喪儀節要	6권	23책	355	22	喪儀節要
	3/22	祭禮考定	2권				祭禮考定
	3/23	嘉禮酌儀	1권				嘉禮酌儀
3/23	禮疑問答	3권	禮疑問答				
3/24	風水集議	3권	風水集議				
악집	4/1-4	樂書孤存	12권	7책	276	23	樂書孤存
정법집	5/1-15	經世遺表	44권	11책 12책 13책	343 359 327	24	經世遺表 I
						25	經世遺表 II
						26	經世遺表 III
	5/16-29	牧民心書	48권	30책 31책 32책	630 610 600	27	牧民心書 I
						28	牧民心書 II
						29	牧民心書 III
5/30-39	欽欽新書	30권	25책 26책	331 466	30	欽欽新書 I	
					31	欽欽新書 II	
지리지	6/1-4	疆域考	9권	14책	365	32	疆域考
	6/5-8	大東水經	15권	33책	350	33	大東水經
의학집	7/1-6	麻科會通	9권	8책	490	34	麻科會通 附醫零
	7/부	附醫零					
보유편				34책	500	35	《與猶堂全書補遺》 I
				35책	500	36	《與猶堂全書補遺》 II
				36책	500	37	《與猶堂全書補遺》 III
				37책	500		

출간사업단은 출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완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전문 연구진과 연구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 2. 출간사업 내용

총 37책의 『정보 여유당전서』와 별책의 『다산 간찰집』의 순조로운 출간을 위해 본 사업은 크게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의 정보사업의 결과물인 감수본 37책에 대해 신조본 및 주요 필사본 재대조 작업을 정밀하게 수행하여 본문 글자와 기본 구성의 오류를 최대한 줄였고, 이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통일된 형식의 교감주를 재구성하였다.

둘째, 정밀한 대조 및 교감 연구가 반영된 문서를 바탕으로 2011년 확정된 표준 범례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표점·교열 작업을 수행하여 현대적인 편집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셋째,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다산 저작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일된 형식의 해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정보 여유당전서』 37책에 편입되지 못했으나 정보사업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되어 정리된 다산의 간찰들을 탈초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 별책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연구가 완료된 『정보 여유당전서』와 『다산 간찰집』의 원고를 출판사에 전송하고 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를 협의를 통해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쇄 및 보급을 완료하였다.

## 1) 대조 · 교감 연구

### (1) 대조 연구

『정본 여유당전서』는 신조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기존의 정본사업에서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협력하여 신조본을 입력하고 전산화를 완수하였지만, 교열 및 감수 작업이 미비하여 그 입력의 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본 재단은 자체 예산으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감수본 20책에 대해 신조본 및 주요 필사본에 대한 재대조 작업을 정밀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전체 감수본에 대한 대조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조 연구에서는 감수본 37책 가운데 재단 예산으로 수행한 20책과 신조본에 편입되지 않았던 《보유》 3책을 제외한 총 14책에 대해 신조본 대조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감교열 과정에서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던 『춘추고징』 1종, 『악서고존』 1종, 『마과회통』 2종, 『대동수경』 1종, 『목민심서』 2종, 『아방강역고』 2종의 필사본 대조를 수행하여 교감교열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유》 3책의 필사 원문을 정밀하게 재대조하여 공란이나 잘못 입력된 글자, 단락, 문단 등을 바로잡았다.

대조 작업은 새롭게 발굴된 필사본을 반영하고 신조본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정본 여유당전서』의 출간 취지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며, 향후 교감 및 교열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밀하게 수행하였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인이 1조가 되어서 상호 교차 대조를 실시하였다. 대조 작업자는 감수본과 신조본 및 필사본을 철저히 축자 대조하면서 특이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수본 원고에 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다. 또한 작업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교감 연구자에게 전달하여 교감 연구자가 최종

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입력하였다.

대조 작업 과정에서의 주요 점검 사항은 글자 입력의 오류, 본문과 세주細注의 혼동, 대표자 · 이형자의 통일, 단락 분할의 오류, 교감주 내용의 오류, 소제목의 위치, 오식 및 인쇄불량 등이었다. 감수본도 상당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본 대조 작업을 통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수본의 오류를 바로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대조 작업시 주요 점검사항

항목	점검 내용
글자 입력	전혀 다른 글자를 입력한 경우
글자 추가 및 누락	교감주 없이 있는 글자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호 추가 및 누락	교감주 없이 있는 기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본문 세주 혼동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주로 입력하였거나 그 반대의 경우
대표자 · 이형자 혼동	대표자를 이체자, 이형자로 입력해 놓은 경우
단락 분할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붙여 놓거나 그 반대의 경우
교감주 오류	해당 글자 이외의 것을 교감주에 넣은 경우, 각주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표제 및 주기 통일	대표제, 소표제, 주기의 일관성 여부
기타	오식, 인쇄불량 등

더불어 대조 작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감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 (2) 교감 연구

교감 연구에서는 잘못된 글자와 문단 구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교감 연구자는 신조본과 필사본의 대조 작업을 거친 감수본 원고를 입수하여 최종적으로 오류 및 특이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로잡아 파일에 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조본과 기존 필사본만으로 오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사업 이후 새롭게 발굴된 필사본을 교감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감 작업자는 교감 작업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감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 연구를 통해 이미 교감주 작성을 위한 표준범례를 마련한 바 있지만, 출간 사업에 착수한 뒤 여러 차례의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감수본의 교감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수정하였다. 첫째, 교감주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저본인 신조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필사본은 범례에서 밝혀두고 교감주 내에서는 되도록 생략하였다. 둘째, 의도적인 축약이나 삽입을 제외하고 원전에서 인용한 내용은 최대한 원전을 따르고 교감주에서는 신조본의 내용을 밝혀두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대조 필사본이 없이 문맥이나 문장 형식에 따라 임의로 수정한 글자는 신조본 내용대로 환원하고 교감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총 37책의 감수본의 교감주 통일이 이루어졌고, 1만 290개의 교감주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교감이 완료된 문서는 교열 작업자에게 전송되어 교열작업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교열작업을 완료하였다.

## 2) 표점·교열 연구

정보사업의 성과물인 감수본 37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크게 4차례에 걸쳐 표준범례안이 수정되었다. 표준범례안이 여러 차례 수정됨에 따라 연도별로 진행된 감수본의 표점 및 교열 작업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10년 8월에 표점지침을 제시하였고, 정보사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그간의 여러 문제점들을 반영한 최종 표준범례안을 확정하였다.(2011.03.05) 표점·교열 연구자는 최종 확정된 표준범례에 따라 감수본 37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표점·교열, 기본적인 편집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점·교열 연구자는 먼저 부호의 통일, 인용문의 처리, 원전에 대한 명확한 범위, 다산이 논한 범위와 축약 및 재구성의 정도를 확정하였다. 이어 대조 및 교감이 완료된 원고를 입수하여 교감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면 입력자가 정리하여 확인 후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차와 편제, 대표제와 소표제의 일관성 여부 및 도표와 파일의 구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변수와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출판편집회의와 출판사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원고를 완료하였다. 최종 원고 전송 이후에도 교열 연구자는 출판사의 지적 사항을 전달 받고 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출판편집회의에 상정하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문서의 난이도와 변수에 따라 수차례 진행되었다.

최종 표점범례에 따른 표점·교열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점·교열 수정 사항

표준범례에 따른 표점·교열 수정 사항	
부호	1. 온점(·) → 고리점(。) 2. 모점(,) 과 가운뎃점(· 357D)의 구분 3. 서명과 편명이 연이어 나올 때에는 《》〈〉 → 《·〉서명과는 별도로 편명만이 나올 때에는 〈〉으로 표기. 4. 쌍반점은 사용하지 않음. 5. 쌍점(:)은 1차 인용문을 제기할 경우와 각주 처리할 때만 사용. 6. 인용문에 사용하는 따옴표(“ ” ‘ ’)는 1차에는 “ ”를, 2차에는 ‘ ’를, 3차에는 「 」를, 4차에는 『 』를 쓴다. 3, 4차 인용에 쓰고 있는 전각기호(「 」 『 』)는 반각기호(『 』)로 써야 부호와 글자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
인용문 처리	1. 1차인용문의 경우 ‘曰’, ‘云’ 등의 뒤에 쌍점(:)을 붙이고 “ ”처리. 2. “ ” 안에 2차인용문이 올 때는 ‘曰’, ‘云’ 등의 뒤에 반점(,)을 붙이고, ‘ ’ 처리. 3. 강조 어구에 ‘ ’를 써서 표시.
다산이 인용한 원전 오류 처리	본문에 그대로 두고, 각주에서 원전의 출전과 내용을 정확히 기술.
다산의 논의 오류 처리	1. 바로잡을 필사본이 있을 경우: 본문 수정, 각주 처리 2. 바로잡을 필사본이 없을 경우: 각주에 의견 제시

3) 해제 연구

『정보 여유당전서』는 방대한 양과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면모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길잡이로서의 해제가 필요하였다. 감수본에서도 상당수의 해제를 작성하여 수록하였으나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 보완연구에서는 감수본에 이미 수록된

해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 및 형식을 통일하였고, 미수록 해제는 통일된 형식에 맞게 새로이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정본사업 말미에 해제 형식과 수록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었다. 해제는 전서해제와 각서해제의 순서로 수록하되, 전서해제의 경우 총 37책 중 제 1책에만 수록하고, 각서해제는 분책된 경우 1책에만 수록하기로 하였다. 전서해제는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다면 굳이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각서해제는 가능하면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기로 하였다. 각서해제의 분량은 원고지 35매 내외(최소 30매, 최대 40매)로 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된 해제 형식을 바탕으로 『춘추고징』 해제와 『경세유표』 해제를 샘플로 작업하였다.

○ 각서 해제 형식

1. 개설[4~6매]: 서명 고찰, 서명 풀이, 해당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편찬 및 간행[4~6매]: 작자 및 참여자, 편찬 시기·배경·동기, 간행 경위
3. 판본 및 서지사항[5~6매]: 판본 소개, 판본의 서지사항·특징
4. 구성과 내용[12~16매]: 구성(체제, 목차), 내용
5. (특징과) 의의[5~6매]: (특징·특기사항), 의의·가치

해제를 의뢰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기존 감수본의 해제자를 변경하지 않았다. 전서해제 등 20편은 2011년 12월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4편은 2012년 2월 정본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의뢰하였다. 해제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수하였고, 출판편집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해제는 바로 교열 및 윤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심의 결과 미비한 해제는 재의뢰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다시 심의를 거친 후 교열 및 윤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교열 및 운문 작업이 끝난 해제는 다시 출판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교열 완료된 본문과 합본하여 출판사로 전송하였다.

#### 4) 『다산 간찰집』 연구 및 발간

정보사업 기간 동안 기초조사연구부는 신조본과 《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간찰들을 발굴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다산 간찰은 비록 정보에는 수록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출간사업에서는 이러한 간찰들을 묶어서 완벽하게 탈초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현대적인 편집 체제를 갖춘 『다산 간찰집』 1책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초조사연구부는 8개년에 걸친 조사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103종의 간찰과 간찰첩을 포함한 유목 33종을 조사·정리하였고, 출간사업 기간에도 조사·정리를 계속하여 다산 친필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112점으로 정리하였다. 책임연구자가 중심이 된 연구팀은 출간사업 과정을 통해 이미 다산의 친필로 확정된 자료에, 일부 연구자가 다산 간찰로 확인하여 수록을 요청한 자료와 추후 발굴된 자료들을 추가하여 총 121점을 수록하고 『다산 간찰집』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수록 자료는 이미 정보사업 과정에서 대부분 탈초가 잘 수행되었지만, 일부는 탈초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탈초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서지 전문가에 의한 감수 과정을 수차례 거쳐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탈초 및 감수가 완료된 간찰들에 대해 고유 명사와 작품의 배경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보 여유당전서』 표준범례에 따라서 표점 작업을 하였다. 표점 작업이 완료된 간찰들은 교열 및 운문 작업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연구가 완료되었다. 편집 과정에서 완료된 간찰들 가운데 먼저 주요 서첩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간찰들은 유배이전, 유배기, 해배 이후의 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향후 추가로 발굴되는 간찰들이 출간될 때 참고할 전범을 만들었다.

가편집이 끝난 원고는 출판사로 전송되어 최종적인 디자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원고 전송 이후에도 출판사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수시로 전달 받아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최종 출판 단계에서 일부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하였으며, 책임연구자와 논의하여 연구도록의 수록 방식과 일련 번호 부여 방식, 탈초와 본문의 배치 방법 등과 같은 편집 양식을 수정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출간을 완료하였다.

#### 5) 편집 및 출판 연구

편집 및 출판 작업은 앞서 기술한 연구의 진행을 관리하고 연구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하여 순조로운 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임연구원과 재단의 출간간사를 중심으로 30여 회의 정기적인 출판편집회의를 가졌고, 연구 완료된 문서들에 대한 검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들을 조율하고 연구 성과물의 현황을 체크하였다.

출판편집회의는 첫째, 대조 및 교감 작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 가운데 이견을 조정하고 확정하여 이를 교열 작업자에게 전달하였다. 둘째, 교열 작업이 완료된 문서들 가운데 확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 및 논의하여 출판사와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하였다. 셋째, 출간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범례, 참고서목, 현대적 목차, 연구 참여자 명단 등을 교열 연구가 완료된 문서와 합본하여 출판사에 전송하였다.

또한 출판편집회의는 출판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 정보사업 2단계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출간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출판 시 필요한 제반 여건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또한 국내외 정보 출판물을 조사 참고하여 표지, 편집 형식, 폰트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2012년 정식 출간에 이르기까지 가정본 및 감수본의 발간, 가편집본 제작을 시도하였다.

○ 편집출간 경과 도표

일시	내용	세부 사항
2009.05 ~2010.12	기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출판 작업에 필요한 기초준비(출판기획준비팀 구성, 명륜동에 사무실 마련)</li> <li>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출판물 조사 및 수집, 국내 정분류 조사</li> <li>정보 폰트조사 및 의견수렴</li> <li>출판위원회의</li> <li>가출판본 제작처 내정</li> </ul>
2011.02~	1차 시안『논어고금주』 가출판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간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가출판본을 제작하여 편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li> <li>의견서 양식을 만들어 편집운영위원 및 연구자의 의견수렴</li> </ul>
2012.03.19	2차 시안『경세유표』 가출판본 평가회의 (서울 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지 및 본문 디자인 제시</li> <li>與猶堂全書(제목) 서체는 오세창의 전서를 사용</li> <li>표지는 다산의 열정을 상징하는 진홍천으로</li> <li>본문: 교감주 형식통일 필요</li> <li>본문의 글자수를 조정하여 여백을 둠</li> <li>제작처(도서출판 소나무) 및 보급처(도서출판 사암) 확정·계약</li> </ul>

2012.06 ~08	정보 출간 원칙 및 제작 사양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산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 작품이므로 간결한 편집, 튼실한 책이 되도록 편집제작 원칙을 결정함</li> <li>종이는 무게와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재활용지를 사용</li> <li>전 37책, 신국판(152*225) 양장 및 반양장 2종으로 제작</li> <li>본문은 단도, 용지는 이라이트 제통(80g), 각권 평균 450쪽</li> <li>양장은 진자호 크로스, 은박·먹박·형압, 라운드 제본, 실 제본, 합지는 두꺼운 것</li> <li>반양장 표지는 아트 250g, 날개 있음. 4도 인쇄, 무광 코팅, 무선 제본</li> <li>전 37책을 4박스에 나누어 담음.</li> </ul>
2012.10.	정보 양장 및 반양장 가편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장 및 반양장 견본제작 및 검토</li> </ul>
12.12.15	정보 인쇄제작 출간	총 1,100질(양장 550, 반양장 550)

정보사업단은 2011년 2월에 처음으로 『논어고금주』 가출판본을 제작하여 편집운영위원 및 학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출판 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논의를 구체화하여 『경세유표』 가출판본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편집 형식, 표지, 표지 제목, 판형, 종이, 인쇄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였으며, 준비 작업에 참여해 오던 출판사를 선정하고 5월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8월까지 출판사와 논의를 거쳐 출판 원칙, 기본적인 출판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1차로 확정하였다. 또한 3월에 있었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출판사와 현실에 맞게 조율하여 확정지었고, 이 외에도 제자製字, 발간사, 인쇄확정일,

범례, 목차, 해제의 수록 위치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등 출판 과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8월부터는 이러한 결정 사항을 적용한 1차 디자인 편집본이 출판사로부터 전송되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머리말, 표지 측면 글씨와 디자인, 목차의 페이지 일치 여부, 본문의 자형과 행수의 통일성 등의 변수와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내부 인력만으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긴급히 추가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출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보 여유당전서』 37책과 『다산 간찰집』 1책을 출간을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었다.

총 37책의 정보를 계획에 따라 출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출판편집회의와 출판사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출판편집회의와 출판사간의 최종 출간까지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판 프로세스

작업 주체 및 내용	세부 사항
1. 편집회의: 최종본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집회의를 통과한 99.9% 이상의 원고 파일 출판사에 전송</li> <li>• 파일 상태와 문제점 첨부</li> </ul>
2. 출판사: 1차 교정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착수 여부 판단</li> <li>• 적합 판단 시 디자인 착수</li> <li>• 부적합 판단 시 사유 명기하여 편집회의 반송(재검토)</li> </ul>
3. 출판사: 디자인 후 정밀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지 교정 후 편집회의에 책임 교정 요청</li> <li>• 문제점 발견 시 사유 명기하여 편집회의 반송(재검토)</li> </ul>
4. 편집회의: 교정지 검토 후 최종 수정 사항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간 가능 시 최종 인쇄 승인</li> <li>• 출간 부적합 시 재작업 또는 보충 작업 요청</li> </ul>
5. 출판사: 책임 교정 후 필름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 및 포장</li> </ul>
6. 편집회의: 인쇄물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발견 시 보충 제작 요청</li> <li>• 제작물 검토 후 정오표 작성</li> <li>• 문제 없을 시 수령 및 보급</li> </ul>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출판사로부터 제작 완료된 정보를 수령한 이후, 정보의 편집 및 인쇄 상태를 점검하여 '정오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2013년 1월부터 보급을 시작하였다. 『정보 여유당전서』 37책은 당초 계획대로 총 1,100질(양장 550질, 반양장 550질)을 제작하여 그 가운데 양장본 250질과 반양장용 100질을 국내외에 무료 배포하였다.(2014.07 현재) 해외 배포의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 및 연구단체에 100질을 기증하였다. 『다산 간찰집』은 총 1,000부를 제작하여 국내 학계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

# 제3부

## 정본화 토대 연구

1장 | 표준범례안 연구

2장 | 기초자료 조사연구



## 1. 개괄

정본 연구에 있어서 입력된 원문 자료에 대해 표점 작업과 교감주를 작성하며 37책 전체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범례’의 확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정본사업을 기획 중이던 2001년 당시, 국내에는 공식적인 표준범례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본사업단(편집운영위원회)은 먼저 중국의 범례를 참고하고 학계의 의견을 모아 《여유당전서》 표준범례 1차 시안을 마련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식 한문의 맥락이나 《여유당전서》의 저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이 진행되었고, 이는 연구 결과물의 일관성 및 진행의 효율성을 잃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09년에 이르러 다산학술문화재단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연구기관들로부터 ‘범례 표준범례’의 마련과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2010년 8월에 한국고전번역원은 정본화를 위한 ‘표점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편집운영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표준범례의 바탕 위에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침을 수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11.03) 2012년 최종 출간본에 이를 반영하였다.

## 2. 표준범례안 제정 경과

『정본 여유당전서』의 교감·표점 및 교열을 위한 표준범례안標準凡例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1) 표준범례안 1차 시안 마련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면서 먼저 《여유당전서》의 교감·표점 연구의 기초가 되는 범례 시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2003. 02. 07, 참석자: 김문식, 심경호, 이광호, 이주행)를 가졌다. 여기서 『한학 연구입문』(심경호, 이화문화사, 2002)을 토대로 1차 시안을 마련하였고, 2003년 4월 28일 정보사업 편집운영위원회에서 ‘표점 및 교감에 관한 범례’ 시안試案을 확정하였다.

### 2) 2차 표준범례안

‘표점 및 교감에 관한 범례’ 1차 시안을 마련한 이후, 고전古典 원문의 체계적 정리와 현대화를 위한 표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계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퇴계집』 및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위한 워크숍(2003.10.04~05, 발표자: 김윤구, 조성을, 정석태, 김문식, 이상하)을 개최하였고 위 범례를 주요 주제로 토의하였다.

이어 공동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여유당전서》 및 『퇴계집』 정보화를 위한 표점 범례 2차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2004.01.07, 참가자: 김

문식, 이상하, 이봉규, 정석태),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이를 《여유당전서》 표점 및 교감 범례로 확정하였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서는 이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교감·표점 및 교열연구를 진행하였다. 표점 사용의 범례는 가로쓰기 체제에 맞도록 하고, 한글맞춤법에 사용되는 표점부호를 기준으로 하여 총 12개 표점부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3) 3차 표준범례안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2차년도(2005년 9월)부터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경집經集에 대한 교감·표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롭게 보충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모아 편집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여유당전서》 표점 및 교감 범례 3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요 용례를 《여유당전서》의 원문으로 바꾸어 교감과 교열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유당전서》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적 표준범례안과 함께 각 저서별 특성에 맞는 범례안이 요청되었다. 분야가 다양하고 체제가 다른 저작들이 모인 《여유당전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편집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부분별로 문제를 정리하여 별도의 범례안이 필요한 경우 저서별 특성에 맞는 범례안을 따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4) 4차 표준범례안

2006년 8월에 시작된 3차년도 정보사업에서 3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경집·악집·지리집 등에 대해 교감과 교열을 진행한 결과, 한자의 글자체에 대한 규정, 신



조본과 이본異本 대조의 교감결과에 대한 규정, 서명·편명의 표시,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표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편집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토론했으며 4차 표준범례안을 만들었고, 이를 『정보 여유당전서』 표준범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저서별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저서별 범례로 분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표준범례안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다산학』 11호에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표준범례안’을 게재하였다.

### 5) 5차 표준범례안과 수정안

2008년 7월의 표준범례안 심의회의에서 『정보 여유당전서』 교감주의 형식을 통일하였고, 교감주 작성례를 마련하여 4차 범례안에 첨부하였다. 2009년 2월에 그동안 정보사업을 진행해 온 기관(퇴계학연구원, 우암연구소, 한국고전번역원)의 실무자를 초청하여 표준범례안 토론회를 가졌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5차 표준범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충북대 우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4개 단체(2009.04, 한국고전번역원, 퇴계학연구원, 우암연구소, 다산학술문화재단)가 표준범례안을 잠정적으로 통일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2009년 4월 25일 정보사업 편집운영 회의에서는 네 기관이 모여 합의한 11항의 내용(『서명』 「편명」 → 《서명》 〈편명〉, 콜론(:) 사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준범례안을 확정하였고, 이 범례안을 2009년 5월 1일부터 6차년도 정보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한 다산학술문화재단은 1단계(5개년) 연구 성과물인 감수본 19권에 대해서도 5차 표준범례를 적용하여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여유당전서」 표준범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숍(2009.05.29일, 서

울 세종원)을 개최하였다. 표점교열팀 임흥태 연구원이 ‘교감범례 및 표점범례에 대하여’를, 김선주 연구원이 ‘고유명사 밑줄부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기초발표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동철(용인대), 이봉규(인하대), 최병준(한국고전번역원 연구위원), 서대원(충북대 우암연구소) 등 정보사업 관계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정보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향후 정보사업의 표점범례를 표준화 하자는 데로 의견을 모았다.

### 6) 최종본 『정보 여유당전서』 표준범례

2010년 8월에 ‘한국고전번역원 표점지침’이 제시되었고(한국고전번역원 회지 『민족문화』 제35집(2010.08.05) 부록), 이에 2011년 3월 5일 편집운영회의에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공포한 지침을 비교·검토하여 최종본 표준범례를 확정하였으며, 2012년 37책의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사업에 이를 반영하였다.

## 3. 『정보 여유당전서』 교감 규정 및 표점 범례(출간본)

### 〈교감 규정〉

- 저본의 오류가 명백하고 대교본이 옳다고 판단되면 범례에서 제시한 대교본에 따라 바로잡거나 보충·생략하였다. 교감주에서는 저본의 내용만 밝혀 주고 각각의 대교본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의 정오(正誤)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대교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모두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옳게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에서 인용한 원전의 내용이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잡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 다산이 원전을 부연하거나 축약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출전과 본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서명, 편명,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가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잡았다.
- 이체자(異體字)나 이형자(異形字)는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검색시스템을 준거로 대표자로 통일하였다. 단, 의도적으로 쓴 고자(古字)나 피휘자(避諱字)는 그대로 두었다.
- 필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자나 유사한 부수를 통용하는 관행에서 기인하는 오자는 문맥에 맞는 자로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감주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거나 누락되어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글자 수가 확실하면 글자 수만큼 □로 표시하였고, 글자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 〈표점 범례〉

『정본 여유당전서』에서는 13개의 표점 부호를 사용하였다. 표점 부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리점(。): 서술문 및 어조가 약한 명령문이 완료되는 곳에 썼다.
2. 반점(，): 문장 안에서 구나 절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 썼다.
3. 인용 부호(“ ”, ‘ ’, 「 」): 대화, 인용, 강조 등을 나타내는 데 썼다.
4. 서명·편명 부호(《 》〈 〉): 서명·편명을 나타내는 데 썼다.
5. 고유명사 부호( ): 인명, 지명, 왕조명, 건물명 등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데 썼다.
6. 감탄 부호(!): 감탄문, 강한 어조의 명령문의 끝에 썼다.
7. 의문 부호(?): 의문문의 끝에 썼다.
8. 가운데점(·): 동등한 지위를 가진 명사의 병렬, 구의 병렬에 썼다. 서명 부호 안에서 서명과 편명을 구분하는 데 썼다.
9. 원주 부호(【 】): 원주를 나타내는 데 썼다.
10. 쌍점(:): 1차 인용문을 표시할 때 썼다. 뒤에 나올 내용을 제시하는 말의 뒤에 썼다.

##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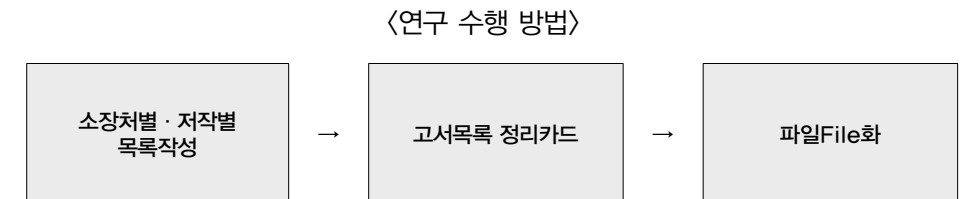
### 1. 국내외 필사본 조사 정리

신조본에 대한 교감 연구를 진행하여 정본화 하기 위해서는 다산 저작의 정고본 定稿本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국내외 필사본의 조사·수집 및 연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표점연구와 동시에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하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및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자료들을 조사·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 등지의 해외 소장 필사본 및 국내 필사본 314종을 발굴하여 정본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일본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던 50여종의 필사본, 미국 버클리 대학 소장 필사본 20여 종을 조사·수집하여 목록화하고 서지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기초자료 조사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료 조사연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필사본 조사·정리 및 연구”이다. 필사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 대량으로 산재한 다산 저작 관련 필사본, 연화자본까지도 총망라하여 그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신조본의 저본을 확인하는 동시에, 연구를 통해 선본을 확정하여 연구자들에게 표점과 교감 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기초조사부는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에 산재한 필사본의 소장처와 소장 자료를 확

인한 뒤 소장처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공문을 송부하고, 둘째,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자료의 선본여부에 대해 서지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교감 자료로 활용할 필사본을 선정하였고, 연구자들에게 복사본을 제공하는 실무를 수행하였다.

기초조사연구부는 조사된 필사본들에 대해 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가운데 교감에 꼭 필요한 선본을 찾아내기 위해, 먼저 소장처별·저작별 목록작성 → 고서목록 정리카드 → 파일File화라는 세 단계의 연구 수행방법을 세웠다.



즉,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망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장처별·저작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저작별 목록에 의거해서 서지학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각 필사본의 중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서목록 정리카드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필사본들의 계열과 선본을 판별하고 필사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파일로 만들었다.

#### 1) 소장처별, 저작별 목록 작성

기초조사연구부는 정본사업 1단계(2004.08~2008.12) 2년차까지 그동안 발굴·조사된 국내외 필사본 ‘소장처별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작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3차년도부터는 국내외 필사본 발굴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된 자료들을 소재확인 및 서지 연구에 편리하도록 정리하기 위해 고서카드목록을 작성하고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3차년에 걸쳐 조사된 필사본 목록은 총 331종으로 국내 기관 및 대학에는 40곳 258종, 국외로는 러시아 1곳 1종, 미국 4곳 25종, 일본 12곳 47종을 파악하였다.

소장처별 목록은 필사본들의 소장처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 기본적으로면서도 유용한 자료조사표이다. 이를 토대로 소장처에 대한 방문조사와 필요한 자료 확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장된 자료의 성격과 특징 및 정보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층 더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필사본의 자료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장처별 목록을 토대로 저작별 목록을 작성하였다.

기초조사연구부는 저작별 목록을 통하여 필사본에 대한 저서별 대조·분석 연구 및 파일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사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선본善本인지, 필사본 간의 선후관계나 계열은 어떠한지, 어느 것이 다산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인 것인지, 필사 경위 등을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저작별 목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필사본들을 저작별로 모아, 형태 및 서지상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였다. 기본적인 권·책 수 및 결질 여부를 밝혀 교감에 필요한 필사본 자료를 제공하기 쉽도록 하였고, 소장처 및 청구기호를 함께 수록하여 추후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출장조사 및 파일제작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란을 만들었다. 출장조사 및 복사 신청을 통한 자료 확보 현황을 알기 쉽게 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자료이용 및 자료제공에 편의성을 더하였으며, 매 사업 연도에 입수한 자료들을 구분함으로써 이후 정보사업의 진행 경과 역시 분명히 밝혀두었다.

셋째, 실제 출장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장처 서지정보의 오류들을 수정하

였다.

넷째,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필사본 조사의 성과를 반영하여 해외 선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의 통합목록을 만들었다.

1단계 3차년까지 조사출장을 통해 확인된 331종의 자료를 근거로 1차 저작별 목록을 제작하였고, 그 후에는 이전 조사된 목록에서 연활자본을 분리하고 계속된 출장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결과 306종의 필사본 저작별 목록을 완성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필사본 출장조사를 진행하여 9종의 필사본을 새로 발굴하였는데, 특히 단국대학교 2종, 영남대학교 2종이 새로 발견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필사본 목록 306종에서 1종을 삭제하고 9종을 추가하여, 필사본 목록에는 총 314종의 필사본 정보가 담겨있다.

1차 저작별 목록을 바탕으로 목록 세부화, 분류기준 통일, 오류 수정 등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저작별 목록은 필사본에서 ‘사암경집’, ‘사암별집’, ‘사암속집’, ‘여유당집’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문집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306종 각 필사본의 저작형태, 집명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조사 출장의 결과 중 신조본 및 《보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산의 저작으로 보이는 것들을 모아 ‘기타’로 분류하였고, 다산의 가계 및 교유인물의 저작이 파악되는 경우 ‘관련저작’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나 관련저작에 속한 저작들은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과 함께 첩으로 묶인 것들도 있고, 저작이 완성되기 전에 수정 단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조사·정리 중이던 ‘다산 및 교유인물의 친필유묵 자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2008년(1단계 5차년)에는 그동안 노력의 결실로 버클리대 아사미문고의 사암경집

필사본 18종의 PPT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들은 고서목록과 서지화일로 정리하고 복사본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1단계의 기초자료 조사연구의 성과인 필사본 자료들을 전산화 하였다. 장차 이와 같은 전산자료를 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필사본 목록에 의거하여 고서목록 카드 기록사항을 엑셀에 입력 통합 관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목록에 맞게 종합정리하고 파일명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집별분류, 관리번호, 서명, 판사항, 형태, 책 크기, 소장처 등 기본적인 서지내용에 권수제, 표제, 저자표기사항, 반곽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전산 대조가 어렵던 필사본의 서지적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필사본 자료들의 전산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류	관리번호	서명	판사항	형태	책크기(세×가로)	권면	행거수	소장처
2	경집	(興) 經集-梅氏-02-비결리	梅氏幽香平	필사본	3권 9행	24.1×15.2	책등본	10행 22주	비결리대 아시아문고
3	경집	(興) 經集-梅氏-02-비결리	梅氏幽香	필사본	11권	24.2×15.3	책등본	10행 22주	비결리대 아시아문고
4	경집	(興) 經集-梅氏-02-비결리	梅氏幽香	필사본	4권 13행	24.2×15.5	책등본	10행 22주	비결리대 아시아문고
5	경집	(興) 經集-梅氏-04-비결리	梅氏幽香	필사본	12권 24행	24.2×15.1	책등본	10행 22주	비결리대 아시아문고
6	경집	(興) 經集-梅氏-02-비결리	梅氏幽香	필사본	4권 12행	24.2×15.0	책등본	10행 22주	비결리대 아시아문고
7	경집	(興) 經集-梅氏-02-오사카	梅氏幽香	필사본(복)	3권 40행	31.3×21.0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
8	경집	(興) 經集-梅氏-02-소쿠마	梅氏幽香	필사본	2권 6행	33.5×21.1		10행 22주	소쿠마대학(筑波)부속도서관
9	경집	(興) 經集-梅氏-03-소쿠마	梅氏幽香	필사본	4권 13행	33.0×20.7		10행 22주	소쿠마대학(筑波)부속도서관
10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13권 40행				
11	경집	(興) 經集-大學-01-규장	大學講義	필사본	1권 1행				
12	경집	(興) 經集-大學-01-규장	大學公論	필사본	1권 3행				
13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平	필사본	3권 9행				
14	경집	(興) 經集-孟子-01-규장	孟子聖賢	필사본	3권 9행				
15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2권 6행				
16	경집	(興) 經集-小學-01-규장	小學精義	필사본	1권 1행				
17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5권 15행				
18	경집	(興) 經集-心經-01-규장	心經聖賢	필사본	1권 1행				
19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4권 12행				
20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古文聖賢	필사본	1권 3행				
21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12권 24행				
22	경집	(興) 經集-梅氏-02-전남	梅氏幽香	복사본	4권 24행				
23	경집	(興) 經集-梅氏-03-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12권 24행				
24	경집	(興) 經集-中書-01-규장	中書自註	필사본	1권 3행				
25	경집	(興) 經集-梅氏-01-규장	梅氏幽香	필사본	4권 12행				

## 2) 고서목록 정리카드의 작성

국내외에서 조사·수집된 다산 저작 관련 필사본들을 정보 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서에 관한 서지학적 분류방식을 활용하여 고서목록 정리카드를 만들었다. 먼저 기존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서 정리카드의 양식을 참고하여,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 맞게 다산 관련 필사본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을 만들었다.(190쪽 부록 참조)

기존의 <고서-서지정보>를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명書名, 저자著者, 간사연도(刊寫年度: 발행사항), 조판사항(組版事項: 版心題), 형태사항 등은 서로 공통적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활자본의 고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서지사항인데, 필사본 자료에서 발견되는 서지정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 이에 기존의 서지정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필사본 자료에 대한 보다 많은 서지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소장되어 있는 소장지의 파악 및 자료 입수의 경로에 대한 <소장사항>
- ② 서체의 특징(예서, 행서)을 통해서 다산의 친필여부, 필사자, 필사인원, 원본 필사인지, 재전사再傳寫인지에 대한 <필사사항>
- ③ 소장자의 인장을 통해 자료연대를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서인의 형태와 인문에 대한 <인장사항>
- ④ 본문에 사용된 기호의 형태와 종류를 서술하는 <표기사항>
- ⑤ 표지의 특징(형태, 색상)과 사용된 종이의 재질에 관한 <책지사항>

⑥ 현재의 자료 상태에 대한 <보관사항>

⑦ 기타 <특이사항>

고서 정리카드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서지정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필사형태와 작성 시기, 그리고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소장인과 장서인을 통해서도 필사본 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대고증이 가능하여 필사본들 간의 시대적 변천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고서목록 정리카드의 양식과 그에 따른 고서의 서지학적 연구는 다른 고전자료 연구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표본자료가 될 것이다.

### 3) 필사본 서지書誌 파일 제작

기초조사연구부는 먼저 다산 저작의 필사본들에 대한 소장처별·저작별 목록조사, 고서목록 정리카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국내 필사본을 비롯하여 해외 소장본들이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므로 재정비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자료를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부 국내 및 해외의 소장자와 소장처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복사 수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접근 가능한 자료 가운데 서지학적으로 가치를 지닌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필사본 연구팀은 실제로 조사출장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필사본의 특징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국내외 필사본들에 대해 서지학적 종합정보를 파악하고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먼저 저작별로 각 필사본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다.

서지 파일은 필사본의 특징들을 간략한 도표로 정리한 고서목록 정리카드, 앞 뒤 표지 및 내지 각 2장, 목차, 인장印章·서근書根·서배書背·필사기筆寫記 등 특기사항에 대한 사진 혹은 복사물로 구성하였다. 이는 첫째, 필사본들의 특징(저작형태, 장정형태, 필사시기, 필사상태, 필체, 필사기, 인장, 원소장자 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선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둘째, 서지 파일을 저작별로 모아 보관함으로써 이들 각 필사본들의 대조를 통해 필사시기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필사본의 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본을 확정하여 교감·표점의 자료로 제공하였고, 필사본의 계통을 밝힘으로써 다산 저작의 전승관계 및 정본의 체계 문제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4) 출장조사 및 자료수집(복사)의 성과

기초조사연구부는 먼저 전산망이나 기타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에 산재한 다산 저작 관련 필사본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현재 전산망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경우도 있으며, 아직 전산화 되지 않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각 소장처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였다. 먼저 국내 필사본 연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다산 필사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규장각·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 3대 소장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차적으로 대학 도서관을 방문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소장처별 목록에 소개된 것과는 다른 청구번호나 필사본의 내용도 많이 확인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소장된 자료의 서지학적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중요한 선본은 복사를 요청하였다.

2차년도에 이미 국내의 장서각·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등 3대 소장처의 중요 선본을 확보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일본 소재 필사본 자료의 확보에 주력하여 총 49종(국내 4종, 일본 45종)에 대한 복사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일본 소장 필사본의 자료 확보는 국고연구비로는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본 재단의 지원으로 많은 시간 및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일본 소장 필사본 확보 경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외 필사본 발굴조사” 사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기초조사연구부는 1단계 사업기간 동안 국내외 필사본 306종, 친필서간 40종, 유묵 30종을 조사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가능한 입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조본의 저본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단계의 필사본은 입수하지 못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다산 저작과 관련된 필사본 자료는 중요 3대 소장처가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민간연구기관의 연구결과로서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필사본 자료는 정보사업의 교감교열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서지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2. 필사본 및 정보 체제 연구

### 1) 국내외 필사본 연구

기초조사연구부는 필사본 조사를 통해 정리된 결과물을 토대로 필사본들의 필사 시기와 필사자, 필사본 계열을 확인하는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필

사 선본을 가려내어 교감·교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나아가 신조본의 저본을 추정하였다.

연구팀은 필사본 자료들을 정보화 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지학적 연구, 필사본들 사이의 내용 비교분석 연구 등을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필사본 연구를 통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의 논문이 워크숍과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되었고 『다산학』 및 기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앞으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필사본 관련 중요 논문들을 모아 2015년 『필사본 연구』를 출간할 계획에 있다.

#### ○ 필사본 연구 성과

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자
1차년도	간사이 지방의 필사본 “자료조사기”	박철상
	국내외 경집 부분 필사본 연구(1)	장동우
2차년도	일본 필사본 자료조사기	손흥철
	필사본 『尙書知遠錄』 원문검토	김문식
	1차 정법집 연구 『牧民心書』·『經世遺表』	박철상
3차년도	『雅言覺非』 해제 및 연구	박철상
	일본 소재 필사본 연구	노경희
	『我邦疆域考』·『大東水經』 해제 및 연구	조성을
	『俟菴經集』 서지자료 정리	기초조사연구부
	『樂書孤存』 해제 및 연구	권태욱
4차년도	地理集 관련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	조성을
	民堡議 관련 필사본 연구	박종천
	『周易四箋』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	방인
	『經世遺表』 해제 및 관련 필사본 연구	김태영

5차년도	詩集·文集·雜纂集 관련 필사본 연구 및 해제	심경호
	『俟菴經集』 관련 필사본연구 1	장동우
	鉛活字本研究	박철상
6차년도	『與猶堂全書』 경집의 필사 저본에 관한 고찰	박종천
7차년도	필사본 『경세유표』에 대한 書誌的 檢討	안병직
	정본 『與猶堂全書』의 편찬을 위한 다산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예집을 중심으로	박종천
	필사본으로 본 여유당집	김보름
	단국대본 『주역사전』 연구: 정고본 및 신조본의 저본을 찾기 위한 두번째 시론	방인
8차년도	필사본 소장처 표기 관련	조한륜

필사본 연구는 먼저 ‘경집’ 관련 필사본을 중심으로 착수하였다. 경집의 경우 대상 필사본이 규장각에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 『중용자잠』은 규장각에도 없다. 장동우(공동연구원)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을 중심으로 경집에 대한 필사본 대조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1차 워크숍에서 발표되었고, 경집의 종류와 계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필사본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미국 버클리 대학의 아사미문고 “사암경집”의 필사본과 대조·분석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집에 대한 2차 연구는 2009년 아사미문고의 ‘사암경집’ 필사본을 확보한 이후에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집 필사본 연구를 수행한 장동우는 첫째, 최익한이 직접 본 『열수전서』는 다산의 최후의 수정본이며, 다산의 현손 정규영(丁奎英)의 필적인 『열수전서총목록』과 함께 새롭게 구성하게 될 정본의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자료라는 점, 둘째, 신조본 경집의 저본 및 정고본을 찾는 데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경집의 사서四書 관련 필사본은 『여유당집』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

를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발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점, 특히 아사미문고 다산 필사본의 조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필사본 연구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경집 연구에 이어서, 가장 분량이 많은 정법집과 관련된 필사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경우, 다산의 생시나 사후에 관료나 지식인들이 국가나 관청의 경영에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필사되었다. 현재 파악된 종류만 120종 가까이 된다.(『경세유표』 17종, 『목민심서』 46종, 『흠흠신서』 56종) 박철상의 주도하에 연구팀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대하여 총 5차례의 필사본 연구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회의를 통하여 정법집 관련 중요 선본의 선별, 해제작업을 위한 서지 내용분석, 분석방법, 자료 확보의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 ○ 필사본연구회의

연구회의	일시	연구회의 주제
1차	2006.01.12	『경세유표』·『목민심서』 관련 필사본 선본 선택
2차	2006.02.04	『경세유표』 해제 및 서지연구
3차	2006.03.04	『흠흠신서』 연구를 위한 필사본 자료 선정
전반기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사본들 가운데 선본善本을 선별할 수 있었음.</li> <li>다산 저작의 저술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음. 다산의 경우 자신의 저작에 대해 저著·찬撰·집集·편編 등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함에 계열 분류의 실마리를 찾았음.</li> <li>파일로 정리된 필사본의 표기 방식을 통해 고본稿本에 근접한 저작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음.</li> </ul>
4차	2006.04.07	정법집 관련 선본 확인을 위한 기준 연구
5차	2006.06.10	정법집 관련 선본에 대한 서지정보 정리
후반기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본善本의 기준을 확정하고, 필사본들의 종류와 편집 등 분류 항목을 확인하였음.</li> <li>특히 다산의 정법집 관련 필사본에서 선본을 가려낼 수 있는 서지학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음.</li> </ul>



정법집 연구에 이어, 2007년(3차년도) 부터는 『아언각비』 『아방강역고』 『대동수경』 『악서고존』을, 4차년도에는 『주역사전』 『경세유표』 『민보의』 지리집을, 5차년도에는 시문집, 사암경집 관련 필사본 연구를 연차별로 수행하였고, 그간의 연활자본에 대한 조사·정리를 총괄하는 연활자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필사본 연구들이 진전되면서 다산 저술의 고본稿本이 지닌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산 저술의 필사본 중 내용이나 형태상 선본으로 판별되는 필사본들은 조선시대의 일반적 필사본들과 구분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학자에 따라 ‘가장본(家藏本)’ ‘수고본(手稿本)’ 등으로 불리는 이들 필사본이 다산가茶山家 혹은 다산학단茶山學團에서 필사·장책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는 실학박물관에서 열린 ‘다산과 가장본 여유당집’ 전시에 반영되었고, 본 사업단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 5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정보의 교감 자료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자료들도 발견되었다. 그 중에 2009년에 조사된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필사본 4종, 영남대 동빈문고 소장 필사본 1종과 활자본 1종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연민문고의 『주역사전』은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다산의 정고본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동빈문고의 『민보의』가 바로 《보유》에 영인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유당집』의 전승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채화정집采花亭集” 계열을 발견하였다. 《보유》의 편집자인 김영호가 다산의 문집의 계열 가운데 ‘채화정집’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실물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단국대 연민문고 『매씨상서평』(1책 3권) 표지에 ‘채화정집’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다산이 『매씨상서평』 1~4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던 1827년 이전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필사본 조사연구가 정보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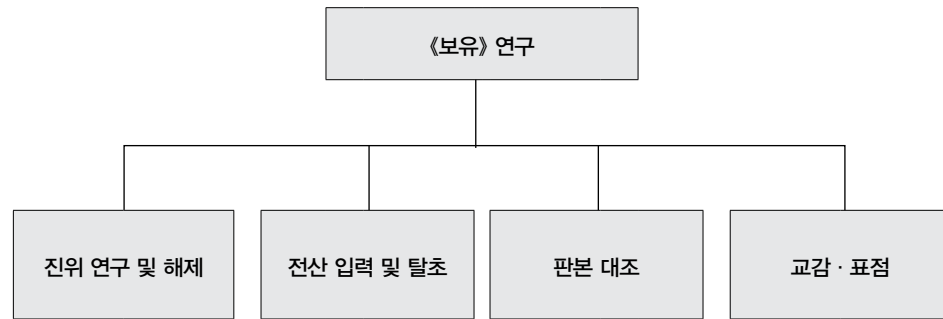
막바지에 이르러 이런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장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정보 여유당전서』 체제 연구

『정보 여유당전서』의 편집 체제는 신조본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필사본 조사연구 과정에서 다산의 「자찬묘지명」 체제에 따라 다산 저작을 편집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총 5차례의 워크숍과 1차례의 학술회의가 열리고 관련 논문 11편이 『다산학』을 통해 발표되는 등 필사본 연구가 심화되면서 『정보 여유당전서』의 체제는 신조본을 따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조본은 「자찬묘지명」 체제나 「열수전서총목록」의 체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다산 만년에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선인들의 작업 성과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 역시 집별로 분할하여 정보에 편입시키기 보다는 《보유》를 따로 두고, 다산의 저작으로 확인된 것만 수록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발굴자료 역시 정보에 직접 편입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다산 저작의 간행 시기에 따른 각각의 정리형태도 나름대로 하나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 3. 《여유당전서보유》 연구

『정본 여유당전서』가 다산 저작을 망라하기 위해서는 신조본에 빠져 있는 저작들을 찾아내고 편입시켜야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보유》를 연구하는 한편, 박물관, 미술관, 개인 등에 흩어져 있는 다산의 친필유묵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보유》의 연구는 첫째, 이 자료에 대한 진위 연구와 해제, 둘째, 다산의 저작으로 판명된 자료의 전산 입력, 셋째, 다른 필사본 및 신조본과의 대조 연구, 넷째, 교감·표점 연구를 통한 정보로의 편입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보유》 연구는 진위 연구 및 해제, 전산 입력 및 탈초 위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착수하면서 먼저 다산 저작 진위 여부를 판별하였고, 필사본 조사, 전산 입력 및 1차 교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편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정보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단계부터는 입력 자료에 대한 2차 교정을 하면서 교감·표점을 수행할 책임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편집운영위원회에서 교감·표점 연구를 거친 《보유》 자료들은 『정본 여유당전서』 체제 속에 『보유』

로 편집하기로 하였다. 『보유』(35~37책) 원문 글자 수는 약 48만 자(35책 약 11만 자, 36책 약 12만 자, 37책 25만 자)에 이른다.

#### 1) 진위 연구 및 해제

《보유》의 자료들을 정보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진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언중(책임연구자)이 《보유》의 저작별 진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유》 I~V에 실린 총 49편 자료 중 17종이 다산 저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해제를 『다산학』(9호~11호)에 발표하였다. 진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보유》(I~V) 다산 저술 진위 여부 및 정보 수록 여부

번호	제목	『정본 여유당전서』 수록 여부	진위 여부
1	茶盒詩帖	정보 35 (보유 I)	다산의 저술
2	竹欄遺蛻集	정보 35 (보유 I)	다산의 저술
3	眞珠船	정보 35 (보유 I)	다산의 저술
4	桐園手鈔	정보 35 (보유 I)	다산의 저술
5	洌水文簞	정보 35·36 (보유 I·II)	다산의 저술
6	金井日錄	정보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7	竹欄日記	정보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8	奎瀛日記	정보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9	含珠日錄	정보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10	茶山漫筆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11	雅言指瑕	정본 37 (보유 III)	雅言覺非 참고용
12	餽鈍錄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13	雅言覺非補遺	-	雅言覺非에 이미 수록됨
14	題雅言覺非後	정본 37 (보유 III)	雅言覺非 참고용
15	與猶堂雜考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洪判書書籤梅氏書評」·「答金德叟」·「與海居」·「書一粟瑣言後」·「答洪聲伯籤示」·「讀尙書補傳」·「方橋記聞」·「永祐錄」·「四庫易議」·「引清亭上樑文」 등 포함되어 있음.
16	靑館物名考	-	아들 丁學淵의 저술
17	教釋說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18	不可讀說	-	기수록 자료 교열용
19	兒學編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20	弟經	-	아들 丁學淵 丁學游 편
21	大東禪教考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22	題挽日庵志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23	挽日菴題名	-	승려 斗云의 글
24	挽日菴實蹟	-	승려 斗云의 글
25	東言雜識	-	자료집일 뿐임.
26	押海丁氏家乘	-	아버지 丁載遠의 저술
27	家乘外篇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28	東園記聞	-	7대조 丁好善의 글
29	東南小史	-	李斗望 等 編
30	明清錄	-	欽欽新書 교감용
31	論山山祭錄 外	-	尹象鎭의 글

32	欽典	-	殘稿일 뿐임
33	山齋冷話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34	民堡議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35	桑土誌	-	李德履의 저술
36	備禦考	-	鄭周應의 편저
37	備禦撮要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38	日本考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39	漢兵外夷土賊考	-	없음
40	勾股源流	-	저자 미상
41	儷範指南	-	저자 미상
42	書義	-	저자 미상
43	易義	-	저자 미상
44	壬子歲諸道太陽出入時刻	-	저자 미상
45	尙書知遠錄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46	編註廣孝論	-	관찬서
47	讀禮通考箋註	정본 37 (보유 III)	다산의 저술
48	周易臆言	-	다산의 저술이나 기수록
49	詩經講義續集	-	외손자 윤정기의 저술

다산의 저술 중 이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일부 자료이거나 수록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인 ‘아언각비보유雅言覺非補遺’, ‘제아언각비후題雅言覺非後’, ‘주역승언周易臆言’ 등의 자료는 『보유』 35~37책에 신지 않았다. 이외 《보유》 ‘여유당잡고與猶堂雜考’에 포함되어 있던 ‘독상서보전讀尙書補傳’, ‘방교기문方橋記聞’, ‘영우록永祐錄’, ‘사고역의四庫易議’ 등은 다산의 생평과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

하므로 따로 빼내어 『보유』 37책에 실었다. 『보유』 35~37책에 실린 저작은 총 29편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유》 수록 저작

권 번호	저작명
37(보유 I)	茶盒詩帖, 竹欄遺蛻集, 眞珠船, 桐園手鈔, 洌水文簧(I)
38(보유 II)	洌水文簧(II)
39(보유 III)	金井日錄, 竹欄日記, 奎瀛日記, 含珠日錄, 茶山漫筆, 雅言指瑕, 餛飩錄, 題雅言覺非後, 與猶堂雜考, 讀尙書補傳, 方橋記聞, 永祐錄, 四庫易議, 教釋說, 兒學編, 大東禪教考, 題挽日菴志, 家乘外編, 山齋冷話, 民堡議, 備禦撮要, 日本考, 尙書知遠錄, 讀禮通考箋註

2) 원문 입력, 수정 및 탈초

《보유》에 대한 진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산의 저작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 1단계 5차년까지 입력 대상 약 48만 자의 입력을 완료하였다. 《보유》에는 많은 시詩가 기록되어 있고 저작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읽기 난해한 초서草書로 되어 있는데, 시와 초서에 능한 전문 연구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초빙하여 다산 본인의 시인가에 대한 진위를 밝혀내고, 시의 형식에 따라 시구詩句를 맞추었다.

3) 《보유》 관련 필사본 연구

《보유》와 관련된 저작별 필사본은 총 43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민보의』와 관련된 16종의 필사본에 대한 연구를 4차년도에 진행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동

남소사東南小史 4종/ 명청록明清錄 3종/ 구고원류勾股源流 1종/ 물명고物名考 1종/ 혼돈록餛飩錄 1종/ 아학편兒學編 10종/ 두아신방痘兒神方 1종/ 만덕사지萬德寺志 1종/ 대동선교고大東禪教考 1종/ 편주광효론編註廣孝論 1종/ 흠전欽典 1종/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2종 등 총 27종의 필사본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친필유묵의 조사·정리 및 연구

기초자료 조사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필사본의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필사본 조사·정리와 서지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선본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산의 친필유묵 자료들도 조사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산의 친필 저작에 가까운 자료를 찾아내고, 필사자나 필사본의 계열을 추적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산의 형제·제자·자제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필적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3차년도)부터 다산의 친필 유묵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착수하여, 이런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공기관 등을 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뒤, 공문을 발송하고 소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문중이나 개인 소장처 등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중에는 출장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외에 학계에 보고된 자료를 비롯하여 박물관과 옥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들을 탐색·수합하였다.

다산 친필유묵 연구는 목록작성, 출장조사, 정리카드제작, 탈초, 신조본 대조, 교감·표점의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입수된 자료의 진위를 판별하고, 진본의 경우 탈초하며 신조본과 보유편과의 대조를 통해 수록 여부를 확인한 뒤, 미수록 자

료는 상세한 정보를 입력한 정리카드로 만들었다.(친필유묵 정리카드(샘플) 203쪽 참조) 이를 통해 2단계 정보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103종의 간찰과 간찰첩을 포함한 33종의 유묵에 대한 정리카드가 완성되었다.

정보사업 막바지에 이르러 정민과 박철상의 업적으로 새로운 자료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특히 천주교 관련기관 자료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매옥서궤』를 수집한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이다. 1단계 사업 동안 소재를 확인하고 심경호의 주선으로 출장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표지를 촬영하고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전체 내용을 입수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료입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내용확인을 못하다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외부의 연구자에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간찰 15종(정약용 13종, 정학연 2종)의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불교 승려들에게 보낸 간찰 15종을 장첩한 것인데, 그 중 13종은 다산이 보낸 것이고, 2종은 정학연의 것이다.

기초조사연구부는 정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03종의 간찰을 조사·정리하였고, 출간사업 기간에도 조사·정리를 계속하여 이렇게 모은 간찰이 121점에 이른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산 간찰집』을 『정보 여유당전서』와 함께 출간하였다. 문집에 실린 다산의 간찰이 220통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량이다.

친필유묵 자료의 조사 과정에서 대학박물관 등 대규모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전산화 되지 않아서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고, 일부 소장처는 원칙상 자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문중門中 혹은 개인소장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장유무의 파악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다산의 친필유묵 조사는 정보 출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산 뿐 만이 아니라 형제·제자·자제들의 유묵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5. 연활자본鉛活字本 자료조사

국내외에 산재한 필사본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자본들도 함께 발굴되면서 이 활자본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신조본이 나오기 이전의 활자본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조본보다 이른 시기에 있었던 선본을 대본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선본 필사본을 대본으로 삼아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의 교정을 거쳐서 출간되었기 때문에, 신조본을 교감하는 데 이들 활자본은 중요한 교감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활자본과 신조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신조본 편집자들의 의도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활자본의 조사연구는 직접적으로 정보사업의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산 저작 관련 활자본 출판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 서적 출판의 한 경향을 알 수 있다.

기초조사연구부는 조사된 연활자본에 대해 필사본과 같은 방식으로 ①소장처별·저서별로 조사 및 정리하고, ②관련 필사본들과 비교하고, ③연활자본들의 서지적 특징을 정리하고, ④신조본과의 관련성을 밝혀서, 후속 연구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연구부는 필사본 저작 목록을 보완해 가면서, 4차년도부터 전국 각 대학 및 기관 소장 연활자본·인쇄본을 조사하여 총 144종의 소장현황 목록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57종의 자료를 직접 출장 조사하였으며, 29종의 고서카드 및 서지파일을 작성하고 1,332컷의 사진과, 11종에 대한 복사 입수를 완료하였다.

연활자본 목록을 바탕으로 연활자의 계년과 출판사의 차이를 따져 각 판본당 1종씩 정리하여 다산 관련 저작의 출판현황을 파악하였다. 1901년에서 1945년 사이에 다산 관련 출판물은 15종이고, 이를 출판사에 따라 분류하면 총 37종이 된다. 자세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할자본 출판 현황

번호	종류	출판사	서명	출판년도	
				초판	재판
1	雅言覺非 (3종)	朝鮮古書刊行會	雅言覺非	1911	
		朝鮮廣文會	雅言覺非	1912	
		新文館	雅言覺非	1912	
		自由討究社	雅言覺非	1926	
2	耳談續纂 (2종)	廣文社	耳談續纂	불명	
		廣學書鋪	耳談續纂	1908	
3	經世遺表 (2종)	朝鮮研究會	經世遺表	1911	
		朝鮮光文會	經世遺表	1914	1915
4	牧民心書(5종)	廣文社	牧民心書	1901	1902
		博文社	牧民心書	1901	1902; 1904
		光文社	牧民心書	1901	
		自由討究社	牧民心書	1921	
		一信書續	牧民心書	불명	
5	牧民心書正文(1종)	博文社	牧民心書正文	1904	
6	欽欽新書 (3종)	廣文社	欽欽新書	1901	
		搭印社	欽欽新書	1907	
		玄公廉	欽欽新書	1907	1917
7	大韓疆域考 (3종)	皇城新聞社	大韓疆域考	1903	
		朝鮮研究會	大韓疆域考	1903	1915
		博文社	大韓疆域考	1905	

8	朝鮮疆域考	文友社	朝鮮疆域考	1903	
9	朝鮮疆域誌	文友社	朝鮮疆域誌	1903	1928
10	朝鮮博物誌	朝鮮研究會	朝鮮博物誌	1914	1915; 1916
11	兒學編(4종)	廣學書鋪	兒學編	1908	
		허성사	兒學編	1909	
		自由討究社	兒學編	불명	
		龍峴精舍	兒學編	1908	
12	單方新編 (7종)	校洞友文館	單方新編	1909	
		古文館	單方新編	1909	
		博文書館	單方新編	1911	
		불명(한양대)	單方新編	1912	
		東洋書院	單方新編	1918	
		불명(경상대)	單方新編	1920	
		新舊書林	單方新編	1922	
13	增補單方新編	新舊書林	增補單方新編	1913	1916; 1919 1920; 1922
14	嶠南書社新編妙方	嶠南書社	嶠南書社新編妙方		1937; 1939
15	麻方大要	杏林書院	麻方大要		1943

위의 목록에 의하면 다산의 저작은 정법, 지리(『강역고』류), 국어(『이담속찬』, 『아언각비』), 의학(『단방신편』 등), 아동교육(『아학편』) 분야를 중심으로 발간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실용적인 활용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목민심서』와 『흙흙심서』는 1901년에서 1907년까지 각각 3곳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

版되었다. 『경세유표』의 경우 조금 늦은 1911년부터 출간되어 한일합방 이후인 1915년까지도 출간되었다.

또한 1908년부터 1909년까지 4곳의 출판사에서 아동교육서인 『아학편』을 출간하였는데, 1908년 지식영이 편집하여 발간한 『아학편』에는 한자에 한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표기 및 그 발음이 기록되어 있다. 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아언각비』와 『이담속찬』 같은 국어류도 간헐적으로 출간되었다. 조선의 강역과 역사지리를 담은 지리류의 출간은 1903년에 3곳의 출판사에서 일제히 출간했다가 1905년 이후 출간되지 않았다. 다산의 저작은 아니지만 당시 가장 많은 출판사에서 펴낸 것은 1908년 이의경李義綱이 다산과 신만申曼의 경험 약방문을 수집, 편찬한 의서醫書인 『단방신편』이다. 『단방신편』은 7곳의 출판사에서 1909년부터 1922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간행되었다. 1934년부터 여유당전서가 출판되면서 다산 저작에 대한 개별 연활자본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다.

## 6. 해외 필사본 발굴조사 및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다산 저작의 정보화사업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내에 소장된 자료는 물론이요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저작들까지 총망라하는 필사본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경집 관련 필사본 연구결과를 통해 해외 소장 필사본 수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에 소장된 자료들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주요한 선본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어 일본과 미국 등의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주요 선본의 소장처가 주로 일본과 미국임을 확인하고 이 자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먼저 박철상(고문헌연구가)의 자문을 받아 당시 동

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노경희에게 의뢰하여 2004년부터 일본 및 미국 소재 필사본에 대한 조사·수집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노경희는 일본에 소장된 정약용의 편저서編著書를 조사하여 정약용의 저작 48종과 정약용 주변 인물의 저작 6종, 총 54종에 이르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서지 사항을 정리하였다.(2004.9~2006.12) 그 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던 새로운 자료를 찾아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 정약용의 장남 정학연丁學淵의 시집인 『삼창관집三倉館集』을 발굴·영인한 것이 그것이다. 노경희의 조사와 박철상의 서지적 평가를 근거로, 필사본 조사팀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2차례에 걸친 일본 조사출장, 1차례의 미국 조사출장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 1) 일본 소재 필사본 목록 확인 및 출장조사

일본에는 국내에 없는 자료나 자료적 가치가 높은 선본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 소재 필사본은 모두 10곳(關西지방 4곳, 東京지방 5곳, 기타 1곳)에 소장된 것으로, 다산의 편·저서 48종을 비롯하여, 다산의 자제와 후학 등 다산 관련인물의 편저서 6종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그동안 일본에 소장된 한국 고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 국내의 서지학회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연구기관에서 만든 목록을 통해 상당한 분량이 정리되었고, 그중 귀중 자료의 복사물과 마이크로필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와 열람이 가능하기도 하다. 노경희는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먼저 일본에 소장된 정약용 저작의 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년 여에 걸쳐 두 차례 목록 자료들에 대한 실제 조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물 자료를 확인하여 기존 목록에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서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 작업을 통해 기존 목록의 잘못을 교정

하고, 기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덴리대[天理大]의 『牧民心書』(329.21-71), 『欽欽新書』(329.21-73), 『雅言覺非』(829.1-507), 『茲山魚譜』(488.723) 4종과, 츠쿠바대[筑波大]의 『아인각비』(460-11), 교토대[京都大] <富士川文庫> 소장본인 『麻科會通』(7/1 186946) 등은 기존의 목록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들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도서관의 카드 검색과 사서의 도움으로 발견 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다. 이상의 조사 작업을 바탕으로 보다 완성된 2차 목록이 작성되었다.

### (1) 현지조사

두 차례에 걸친 출장조사는 도쿄[東京] 지방과 간사이[關西] 지방의 주요 도서관을 돌면서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1차 현지조사는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덴리[天理] 등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2005.3.31~4.5) 그 결과 덴리대의 경우 16종, 오사카 부립府立 도서관에서 3종,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5종 등 총 24종을 확인 조사하였으며,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도 발굴하였다. 희소성과 보존상태, 각 연구팀의 요구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 복사와 촬영을 요청하였다.

박철상은 일본 지역의 필사본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수집 대상이었던 만큼 상당수가 선본으로 분류된다고 평가하였다.('日本 간사이 지방 필사본 조사기-《여유당전서》정본화사업과 필사본의 정리': 부록 참조) 간사이 지방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 중에서도 오사카 부립도서관에 소장된 『論語古今註』 1질을 직접 열람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책은 다산초당 시절 다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윤동尹棟과 다산으로 하여금 논어를 다시 보도록 한 뛰어난 제자 이강희李剛晷의 교정을 거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유학총서 편찬이라는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기획 아래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 원고용지에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역

사적·서지학적 의의가 큰 자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현지조사는 2006년 봄에 도쿄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쿄 지방의 가장 중요한 소장처인 도요문고[東洋文庫],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 도쿄대아가와문고[東京大阿川文庫], 도쿄게이아이대학도서관[東京經濟大學圖書館]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복사하였다.

2차례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된 필사본은 총 54종이며 소장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일본 소재 필사본 현황(소장처별)

지역분류	소장처	종수			
		1차년도	2차년도	총계	
東京지역	東洋文庫	9종		9종	
	國立國會圖書館		2종	2종	
	東京大	阿川文庫		6종	6종
		小倉文庫	3종		3종
	筑波 大學校		3종	3종	
	靜嘉堂文庫		2종	2종	
	宮内廳書陵部		1종	1종	
소계				26종	
關西지역	大阪府立圖書館	3종		3종	
	關西大(内藤文庫)		1종	1종	
	京都大	河合文庫		4종	4종
		富士川文庫		1종	1종
	天理大	今書文庫	14종		14종
그 외		4종		4종	
소계				27종	
기타지역	西尾市立圖書館(岩瀬文庫)		1종	1종	
소계				1종	
총계				54종	



## (2) 복사 수집

이상의 현지조사를 거쳐 드디어 최종 목록이 작성되었고, 이어 이 자료들에 대한 복사 신청이 진행되었다. 일본에 소장된 자료에는 국내에 전하지 않는 유일본이나 국내 자료보다 선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본 도서관의 경우 복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권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으며, 무엇보다 그 비용이 매우 고가(1매당 흑백: 130엔(약 1,100원), 칼라: 1300엔(11,000원): 2005~6년 당시 금액)여서 복사 신청 작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권 복사 계획을 접고, 우선적으로 전체 자료의 표지와 목차, 서문, 본문 일부(1~5매까지)를 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표지와 본문 첫 장은 '칼라복사'를 신청하여 가능한 원본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각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내에서도 다산학술문화재단에 들어와 있는 복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현재 다산학술문화재단 자료실에 파일로 정리되어 있으며,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113쪽 복사 자료 목록 참조)

유일본이나 선본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정하여 '전권복사'를 신청하였는데, 일부 자료의 경우 도서관의 전권복사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 예로, <도요문고[東洋文庫]> 소장 자료 중에는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것들이 많았음에도, 당시 도서관의 '전권복사 금지조항'으로 인해 복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해외소장 한국 전적의 해제 및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도요문고 자료들 중 국내에 전하지 않는 자료들의 촬영과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 해외(일본) 필사본 복사자료 목록

• 총 45종: 전체복사 8종, 부분복사 36종, 부분촬영 1종

### - 전체복사

관리번호	서명	형태	소장처	자료확보
(日) 補遺-民堡-08-경도	民堡議	1冊 3卷	경도대 하합문고	전체복사
(日) 詩文-耳談-07-소창	耳談續纂	3冊	동경대 소창문고	전체복사
(日) 詩文-雅言-19-경도	正言覺非	1冊 3卷	경도대 하합문고	전체복사
(日) 醫學-麻科-10-경도	麻科會通	11冊(완질)	경도대 富士川文庫	전체복사
(日) 政法-牧民-44-아천	牧民心書	16冊 48卷	동경대 아천문고	전체복사
(日) 詩文-雅言-21-소창	雅言覺非	2冊 3卷	동경대 소창문고	전체복사
(日) 經集-尙書-02-츠클바	尙書古訓	2冊 6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	전체복사
(日) 詩文-雅言-26-츠클바	雅言覺非	1冊 3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	전체복사
전체복사 계				8종

### - 부분복사

관리번호	서명	형태	소장처	자료확보
(日) 政法-牧民-40-오사카	牧民心書	8冊 24卷	오사카부립도서관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51-오사카	欽欽新書	10冊 30卷	오사카부립도서관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2-경도	經世遺表	1冊24卷(零本)	경도대 하합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5-국회	經世遺表	11冊 33卷	일본국회도서관	부분복사
(日) 補遺-民堡-09-동양	民堡議	1冊 3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經集-易學-03-츠클바	易學緒言	4冊 13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3-아천	牧民心書	16冊 48卷	동경대 아천문고	부분복사

(日) 詩文-雅言-22-아천	雅言覺非	1册(40張)	동경대 아천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54-아천	欽欽新書	10册 30卷	동경대 아천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53-아천	欽欽新書	10册 30卷	동경대 아천문고	부분복사
(日) 補遺-大東禪-01-천리	大東禪教考	1册(單)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9-아천	經世遺表	15册	동경대 아천문고	부분복사
(日) 詩文-雜文-03-동양	與猶堂集/策文	1册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詩文-雅言-20-동양	雅言覺非	1册 3卷(82張)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4-동양	經世遺表	15册 44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1-동양	牧民心書	16册 48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52-동양	欽欽新書	10册 30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3-동양	經世遺表	15册 44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2-동양	牧民心書	13册 38卷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詩文-耳談-06-동양	耳談續纂	1册 1卷(18장)	동양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39-천리	牧民心書	16册 48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9-니시오	牧民心書	5册 48卷	西尾市立圖書館 岩瀨文庫	부분복사
(日) 補遺-兒學-08-천리	兒學編	1册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醫學-麻科-09-천리	丁氏麻科會通	1册(不分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地理-我邦-09-천리	我邦疆域考	1册 3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8-정가당	牧民心書	5册 14卷	정가당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47-정가당	牧民心書	16册 48卷	정가당문고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49-천리	欽欽新書	10册 30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詩文-小學珠-03-천리	小學珠串	1册 3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1-천리	經世遺表	3册9卷(零本)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詩文-雅言-17-천리	雅言覺非	1册 3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地理-我邦-08-천리	我邦疆域考	1册 3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欽書-50-천리	欽欽新書	6册(零本)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牧民-38-천리	牧民心書	16册 48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政法-經世-10-천리	經世遺表	15册 44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日) 詩文-雅言-16-천리	雅言覺非	1册 3卷	천리대학교	부분복사
<b>부분복사 계</b>				<b>36종</b>

- 부분촬영

관리번호	서명	형태	소장처	자료확보
(日) 政法-牧民-50-나이트	牧民心書	6册(零本)	關西대학교 內藤文庫	부분촬영
<b>부분촬영 계</b>				<b>1종</b>

현재까지 조사된 일본 소재 필사본 총 54종을 저작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47종은 다산의 저작이고 7종은 다산과 관련된 저작이다.

○ 일본 소재 저작별 필사본

관리번호	서명	형태	소장처(청구기호)	파일
(日) 詩文-小學珠-03-천리	小學珠串	1冊 3卷	천리대학교(124.7-타 47)	1
(日) 詩文-雅言-16-천리	雅言覺非	1冊 3卷	천리대학교(829.1-타39)	1
(日) 詩文-雅言-17-천리	雅言覺非	1冊 3卷	천리대학교(829.1-523)	1
(日) 詩文-雅言-18-천리	雅言覺非	1冊(零本)	천리대학교(829.1-507)	0
(日) 詩文-雅言-19-경도	正言覺非	1冊 3卷	경도대 하합문고(ヒ-3 199651)	1
(日) 詩文-雅言-20-동양	雅言覺非	1冊 3卷(82張)	동양문고(VII-3-77)	1
(日) 詩文-雅言-21-소창	雅言覺非	2冊 3卷	소창문고(4491)	1
(日) 詩文-雅言-22-아천	雅言覺非	1冊(40張)	동경대 아천문고(A90-160)	0
(日) 詩文-雅言-26-츠클바	雅言覺非	1冊 3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チ460-11)	0
(日) 詩文-耳談-06-동양	耳談續纂	1冊 1卷(18張)	동양문고(VII-3-78)	1
(日) 詩文-耳談-07-소창	耳談續纂	3冊	소창문고(5201~3)	1
(日) 詩文-雜文-03-동양	與猶堂集/策文	1冊	동양문고(VII-3-163)	0
(日) 經集-論語古-02-오사카	論語古今註	13冊 40卷	오사카부립도서관(甲和 444)	0
(日) 經集-尙書-02-츠클바	尙書古訓	2冊 6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口815-26)	0
(日) 經集-易學-03-츠클바	易學緒言	4冊 13卷	츠클바대학 부속도서관(口810-101)	0
(日) 政法-經世-10-천리	經世遺表	15冊 44卷	천리대학교(329.21-13 ⑤)	1

(日) 政法-經世-11-천리	經世遺表	3冊 9卷(零本)	천리대학교(329.21-3)	1
(日) 政法-經世-12-경도	經世遺表	1冊 24卷(零本)	경도대 하합문고(ケ-15 193668)	1
(日) 政法-經世-13-동양	經世遺表	15冊 44卷	동양문고(VII-2-120)	1
(日) 政法-經世-14-동양	經世遺表	15冊 44卷	동양문고(VII-2-119)	1
(日) 政法-經世-15-국회	經世遺表	11冊 33卷	일본국회도서관(219-74)	0
(日) 政法-經世-19-아천	經世遺表	15冊	동경대 아천문고(L11-345)	1
(日) 政法-牧民-38-천리	牧民心書	16冊 48卷	천리대학교(318-타1)	1
(日) 政法-牧民-39-천리	牧民心書	16冊 48卷	천리대학교(329.21-71)	1
(日) 政法-牧民-40-오사카	牧民心書	8冊 24卷	오사카부립도서관(韓 10-45)	1
(日) 政法-牧民-41-동양	牧民心書	16冊 48卷	동양문고(VII-2-122)	1
(日) 政法-牧民-42-동양	牧民心書	13冊 38卷	동양문고(VII-2-121)	1
(日) 政法-牧民-43-아천	牧民心書	16冊 48卷	동경대 아천문고(M90-257)	1
(日) 政法-牧民-44-아천	牧民心書	16冊 48卷	동경대 아천문고(M90-319)	0
(日) 政法-牧民-47-정가당	牧民心書	16冊 48卷	정가당문고(92函37架)	0
(日) 政法-牧民-48-정가당	牧民心書	5冊 14卷	정가당문고(92函5架)	0
(日) 政法-牧民-49-니시오	牧民心書	5冊 48卷	西尾市立圖書館 岩瀨文庫	0
(日) 政法-牧民-50-나이토	牧民心書	6冊(零本)	關西 대학교 内藤文庫	0
(日) 政法-欽書-49-천리	欽欽新書	10冊 30卷	천리대학교(329.21-29)	1
(日) 政法-欽書-50-천리	欽欽新書	6冊(零本)	천리대학교(329.21-타3)	1
(日) 政法-欽書-51-오사카	欽欽新書	10冊 30卷	오사카부립도서관(韓 14-16)	1
(日) 政法-欽書-52-동양	欽欽新書	10冊 30卷	동양문고(VII-2-110)	1
(日) 政法-欽書-53-아천	欽欽新書	10冊 30卷	동경대 아천문고(L11-328)	1
(日) 政法-欽書-54-아천	欽欽新書	10冊 30卷	동경대 아천문고(L11-841)	1

(日) 地理-我邦-08-천리	我邦疆域考	1册 3卷	천리대학교(292.1-479)	1
(日) 地理-我邦-09-천리	我邦疆域考	1册 3卷;	천리대학교(292.1-タ313)	1
(日) 醫學-麻科-09-천리	丁氏麻科會通	1册(不分卷)	천리대학교(490-557)	1
(日) 醫學-麻科-10-경도	麻科會通	11册(완질)	경도대 富士川文庫(マ/1 186946)	0
(日) 補遺-大東禪-01-천리	大東禪教考	1册(單)	천리대학교(180.21-85)	1
(日) 補遺-民堡-08-경도	民堡議	1册 3卷	경도대 하합문고(ミ-7 199822)	0
(日) 補遺-民堡-09-동양	民堡議	1册 3卷	동양문고(VII-2-279)	1
(日) 補遺-兒學-08-천리	兒學編	1册	천리대학교(821-タ 185)	1
현재까지 조사된 다산 저작 필사본 47종 중 제작된 필사본 서지파일				32
* 기타 및 관련저작				
저자	서명	형태	소장처	파일
	丁氏醫書	4册	천리대학교(490-767)	1
丁學淵	三倉館集	1册	日本 宮内廳 書陵部(302-140)	0
丁若銓	茲山魚譜	1册3卷	일본국회도서관(特 1-554)	0
丁若銓	茲山魚譜	1册3卷	天理大(488-タ23)	1
丁若銓	茲山魚譜	1册2卷(零本)	天理大(460-209)	1
丁學遊 緝	詩名多識	3册3卷	동경대 小倉文庫(175069)	1
	從政要覽	不分卷 1册	경도대 하합문고(シ-21 199816)	0
현재까지 조사된 관련저작 7종 중 제작된 필사본 서지파일				4

## 2)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출장조사

미국의 한국 고서 수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법제관과 경성의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던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郎, 1869~1943]의 장서를 재구매한 버클리 대학의 '아사미[淺見]문고(장서규모: 839종 4,013권, 탁본 155종)'를 들 수 있다. 아사미문고에는 18종에 이르는 다산 저작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필사본들 중 경집 자료들 대부분이 정약용 또는 그의 제자들이 필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고본稿本' 자료들이라 그 가치를 더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집 자료들의 고본 자료는 아사미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필사본 연구팀은 또한 미국 버클리대 도서관 아사미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다산 저작 필사본 조사를 수행하였다.(2006.5.22~26) 이미 2004년에 필사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이래 선본이자 희귀본으로 보이는 이 필사본들에 대한 입수요구가 갈수록 강해져서 재단에서는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조사출장을 통해 버클리대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18종의 필사본들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필사본

관리번호	서명	형태	체크기 (세로×가로)	소장처(청구기호)
(美) 詩文-論語手-02-버클리	論語手筭	1册 3卷	24.2×14.3	버클리대 아사미문고(8.1)
(美) 詩文-小學珠-04-버클리	小學珠串	1册 3卷	25.0×18.7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2.6)
(美) 詩文-雅言-23-버클리	雅言覺非	1册 3卷	25.0×16.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36.3)
(美) 詩文-耳談-08-버클리	耳談續纂	1册	23.1×15.2	버클리대 아사미문고(25.6)
(美) 經集-梅氏-02-버클리	梅氏尙書平	3册 9卷	24.1×15.2	버클리대 아사미문고(2.2)
(美) 經集-詩經-02-버클리	詩經講義	5册 15卷	24.2×15.3	버클리대 아사미문고(3.1)

(美) 經集-易學-02-버클리	易學緒言	4冊 13卷	24.2×15.5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4)
(美) 經集-周易-04-버클리	周易四箋	4冊 13卷	24.2×15.1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5)
(美) 經集-春秋-02-버클리	春秋考徵	5冊 12卷	24.2×15.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5.3)
(美) 禮集-喪禮外-03-버클리	喪禮外編	1冊 6卷	24.2×15.4	버클리대 아사미문고(4.16a)
(美) 禮集-喪儀-02-버클리	喪儀節要	2冊 6卷	24.0×15.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4.16)
(美) 樂集-樂書-03-버클리	樂書孤存	4冊 12卷	24.0×15.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0.5)
(美) 政法-經世-16-버클리	經世遺表	16冊 46卷	24.6×16.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8.7)
(美) 政法-牧民-45-버클리	牧民心書	16冊 48卷	35.2×21.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8.8)
(美) 政法-欽書-55-버클리	欽欽新書	10冊 27卷 +부록 2冊		버클리대 아사미문고(18.23)
(美) 地理-我邦-10-버클리	疆域考	3冊 9卷	29.0×16.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20.3)
(美) 補遺-民堡-10-버클리	民堡議	1冊 3卷	23.1×15.2	버클리대 아사미문고(29.5)
(美) 補遺-尙書知-02-버클리	尙書知遠錄	3冊 7卷	24.0×15.0	버클리대 아사미문고(2.1)

아사미문고 필사본 조사를 통해 얻게 된 성과는 다산 저작의 고본으로 추정되는 필사본들을 발견한 것이며, 다산의 친필로 보이는 표제 글씨를 찾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시 아사미문고본과 규장각본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필사본 중 다산 저작의 고본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은 『매씨상서평』, 『춘추고징』, 『상서지원록』, 『단국잠오檀弓箴諫』, 『주역사전周易四箋』, 『시경강의詩經講義』이다. 이 중 『매씨상서평』, 『춘추고징』, 『상서지원록』, 『단국잠오』는 『사암경집侯菴經集』으로 묶여 있으며, 규장각에서도 일부 발견되는 『사암경집』과 비교할 수 있다. 아사미문고 본에는 다산의 친필로 보이는 표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사미문고 본에서 수정 가필, 산삭한 부분이 규장각 본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팀은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다산 필사본들이 규장각본의

저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필사본 연구팀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과 하버드 대학 엔칭연구소에 체류·연구(2007.02~2009.01)하였던 노경희 연구원과 연계하여 미국에 소장된 정약용과 그 주변 인물들의 저·편서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미국에 소장된 정약용 저술 20종과 다산 주변 인물의 저술 3종, 총 23종에 이르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였다. 아사미문고 외에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에도 다산의 활자본 저·편서가 약간 소장되어 있다.

## 7. 기초자료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필사본 조사연구는 늦은 출발, 부족한 인력 및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낸 성과가 적지 않다. 정본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소장된 다산 저술의 필사본 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각 자료의 이본(異本) 관련 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다. 지난 8년간 수행된 다산 저술 관련 필사본·연활자본·친필유묵 등의 조사연구 활동은 다산학 연구가 서지학적 연구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학술지 『다산학』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어 다산학에 고문헌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그 연구 성과가 축적됨으로써 다산학 연구를 위한 서지학적 기반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수집된 필사본 자료들에 대한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산 탄신 250주년

(2012)을 기념하여 김영호 소장의 필사본들이 전시회(예술의전당)를 통해 공개되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보사업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들 자료를 필사본 조사 및 연구에 포섭하지 못한 점은 큰 유감으로 남아 있다. 향후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앞으로 그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과 성과들을 『다산 필사본연구』로 집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필사본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조사연구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둘째, 20세기 이후 간행된 신식활자본(연활자본)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다산 저술의 신식활자본은 간행주체에 따라 조선인 간행본과 일본인 간행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간행본은 각각의 주체 간에 저본이 공유되어 별도의 계열을 형성하였다. 이들 간행주체에 따른 출판 과정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은 다산 저술의 근대 이후 전승 양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기 조선 고전의 근대적 출판 작업의 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다산을 넘어서 다산의 형제·제자·자제 등의 저술을 수집하여 이들 저술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저술 수집을 넘어서 자료가 제공하는 다산과 주변 인물들의 학문, 교유, 사상의 추이를 살피는 것도 요청된다.

넷째, 그동안 축적된 필사본 영상자료나 서지정보는 전산화로 정리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된 필사본 자료들의 전산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조사된 314종의 필사본 자료들은 국고지원과 다산학술문화재단의 학술지원비로 발굴조사된 것들이다.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후속연구자가 편리하게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전산화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국내외 다양한 필

사본 자료의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조사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북한에서는 『대동수경』의 번역본이 출판된 적이 있다. 그 해제를 보면 ‘가장본家藏本’으로 있던 「열수전서총목」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도 다산 저작의 가장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에 있는 다산의 저작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차 여건이 마련되면 북한에 있는 자료도 찾아 정리·분석·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정본사업의 성과와 과제



## 정본사업의 성과와 과제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은 500만 자 이상이 되는 다산 저술의 방대한 양으로 볼 때 연구 인력 규모나 연구기간 면에서 유례가 없는 학술계의 토대 연구 프로젝트였다. 기획 당시 학계에는 원문 자료에 대한 ‘정본화’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었고, 고전 원문을 현대화 하는 ‘표점’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민간 연구지원기관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사업의 시의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과 다방면의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정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입력자료 지원, 8개년에 걸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국학연구진흥사업단,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꾸준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SBS문화재단 등 민간의 후원에 힘입어 학계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11년에 걸친 연구를 완료하였고, 『정본 여유당전서』 37책의 출간을 완수하였다.

사업의 착수부터 출간사업의 완료까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정본사업은 고전원문 자료를 현대화 하는 중요한 학술 과제로 부상하였고, 『퇴계집』, 『우암집』, 『성호전서』 등 중요 고전에 대한 정본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통해 정본 연구의 핵심인 교감 및 표점 범례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고, 학계의 의견을 모아 한국고전번역원의 ‘표점지침’의 발표를 촉진하였다. 또한 80여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면서 표점 작업과



서지 전문연구자를 배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국내외 필사본 조사연구를 통해 314종에 이르는 필사본을 조사하여 서지학적인 정리체계를 세우고 정고본定稿本, 가장본家藏本 등의 선본들을 발굴해내었으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서지학적 연구라는 다산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다산 저작 원문 자료를 정보화 함으로써 정본을 토대로 한 번역연구와 『정본 여유당전서』 완역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까지 그에 못지 않게 난관도 많았다.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은 당초 민간 연구지원기관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학술사업이었다. 정본 연구나 사업 수행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여러 난제들이 연속되었다. 당시 표점연구에 대한 적절한 연구비 산정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기획하기 어려웠고, 연구량 대비 인건비의 책정도 문제였다. 또한 표점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연구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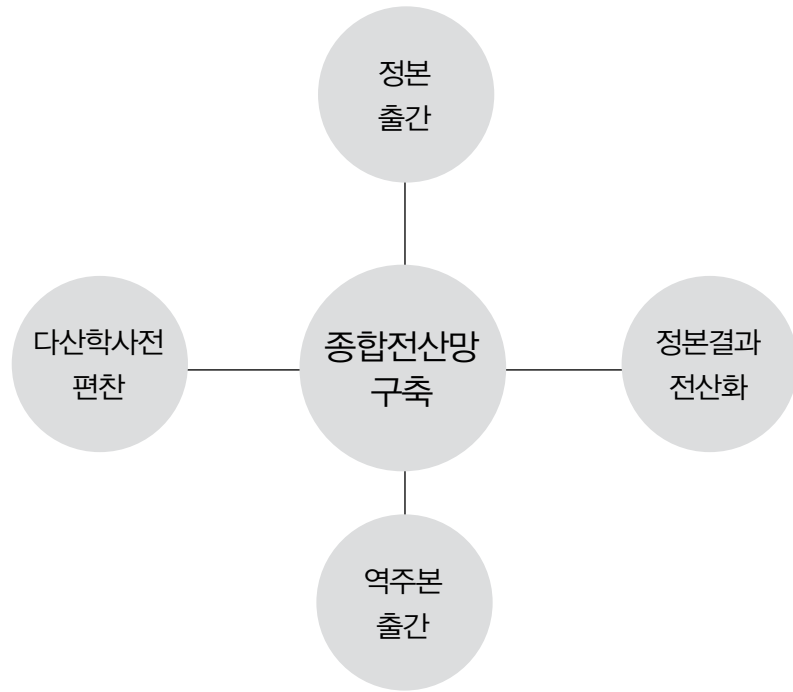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교감·표점 작업에 필요한 표준화 된 범례의 부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로 인해 표준범례안이 4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최종 표준범례의 확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들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고 출간 과정에서는 최종 범례에 따라 통일성을 갖추도록 보완연구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보사업단은 적은 인건비로 인한 연구자의 잦은 교체, 연구비 대비 과도한 연구량 등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관리와 추진과정에서 뼈아픈 실수와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이 어려운 여건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정본의 출간을 완수한 데는 참여 학자와 연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정본 여유당전서』의 출간은 또 다른 시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독자들과의 참여와 질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보사업단은 정본 연구와 출간편집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지 않은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연구 역량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도 있을 것이고 편집 과정상의 실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독자들의 귀한 의견을 겸손히 청취할 것이며 오류를 수정하고 정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 여유당전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DB화 및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에 공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과 협력하여 DB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정본 자료뿐만 아니라 『다산학사전』이나 번역서, 연구논문들을 통합한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산학 아카이브’의 구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점·교감 연구, 현대적 편집 체제, 웹서비스를 통합하는 고전 텍스트의 현대화사업은 학제學際간의 소통과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산 사후 200년이 지난 지금 《여유당전서》는 아직 완역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경학 관련 저술이나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대표적인 저술들은 번역되었지만, 『춘추고정』, 『상서고훈』, 『악서고존』, 『역학서언』, 예집류 등 많은 저술들이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정본 여유당전서』를 토대로 하여 기존의 번역들은 보완 연구와 현대적인 편집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며, 시작조차 못한 번역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그야말로 『정본 여유당전서』의 완역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다.



# 부록

- 1장 | 『정보 여유당전서』 표준범례
- 2장 | 『목민심서』 범례
- 3장 | 『마과회통』 범례
- 4장 | 『여유당전서』 定本化 작업과 필사본의 정리
- 5장 | 교감기校勘記
- 6장 | 관련 양식
- 7장 | 정보사업 참여자
- 8장 | 연구논문 목록
- 9장 |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사
- 10장 | 『정보 여유당전서』 해제
- 11장 | 언론보도

## 『정본 여유당전서』 표준범례



## I. 교감범례(校勘凡例)

## 1. 저본(底本)과 표기

정본 『여유당전서』의 표점과 교감은 1936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한 활자본 《여유당전서》를 저본으로 하고 기타 필사본들을 참고한다. 교감주(校勘注)에서는 신조본은 ‘新朝本’, 3대 필사본 소장처인 규장각본은 ‘奎章本’, 장서각본은 ‘藏書本’, 국립중앙도서관본은 ‘國中本’등으로 표시한다.

## 2. 교감의 범위

## 1) 대표자(代表字)—이체자(異體字) 규정

- (1) 정본(定本) 『여유당전서』에서는 약자(略字)·속자(俗字)를 포함한 이체자(異體字)는 대표자로, 이형자는 특히 고체자인 경우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신조본 및 교감자료로 인용된 이본에 사용된 이체자는 모두 대표자로 바뀌  
되, 교감주를 달지 않는다. 다만 판본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감 주를 붙이고 근거를 밝힌다.
- (3) 피휘한 글자는 대표자로 고친다.
- (4) 본래 서로 다른 글자이나 그 형태가 비슷함으로 인해 古書에서 흔히 통용되  
었던 글자는 문맥에 맞는 字로 고치되, 교감 주는 붙이지 않는다. 예) 斂/  
斂, 祗/祗, 祗/祗
- (5) 대표자는 《康熙字典》에 준거한다.

## 2) 신조본-기타 이본 규정

- (1) 저본(底本)인 신조본(新朝鮮社本, 이하 新朝本)의 원문을 최대한 존중하되 신  
조본의 글자가 명백한 오자(誤字)나 탈자(脫字)일 경우에 교감 주(注)에서 정  
확한 근거와 함께 아래의 예문과 같은 형식으로 바로잡거나 보충한다. 단,  
신조본의 자구(字句)가 옳고 기타 이본들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신조본  
대로 두고 이본의 자구는 교감하지 않으며 교감주도 붙이지 않는다.

예) 故<春官>篇<sup>1)</sup>末, 明以二至奏樂, 爲禳除之禮。(《春秋考徵》)

1) 篇: 新朝本에는 '篤'으로 되어 있으나 奎章本에 따라 바로잡는다.

예) '敬止'之解, 明<sup>1)</sup>在<緇衣>。

1) 明: 新朝本에는 빠져 있으나 奎章本에 따라 보충한다.

- (2) 신조본과 기타 이본 중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옳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신조본대로 두고 기타 이본의 글자는 교감 주로 제시한다.

예) 鄭於星辰, 遂無指<sup>1)</sup>處, 其窘塞可知。(《春秋考徵》)

1) 指: 奎章本에는 '措'로 되어 있다.

## 3) 인용문의 교감

- (1) 다산이 인용한 원전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본문에 그대로 두고, 주에서  
원전의 출전과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한다. 변형 혹은 축약된 인용  
문이 원문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교감 주에서는 원전의 책명과 편명까지 밝혀 주되, 편년 역사서의 경우는  
王曆과 年代를 밝혀준다. 예를 들어, 《春秋》三傳의 경우는 王曆과 年代까지 밝  
히고,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경우는 王曆 및 年, 月, 日(干支로 쓴 것은 구체  
적인 날짜로 표시)까지 밝혀준다.

예1) 左氏曰: “非禮也. 禮不卜常事<sup>1)</sup>, 而卜其牲日。”(《春秋考徵》)

1) 事: 《春秋左氏傳》僖公31년에는 '祀'로 되어 있다.

- (3) 원전과 같은 의미 맥락 안에서 변형되었거나 축약된 인용문은 함께 인용부  
호를 붙이고 교감주는 붙이지 않는다.

### 3. 교감 주(注) 표기의 통일

교감의 결과는 예시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A본에는 ‘~’로 되어 있다.

☆ A본에는 ‘~’로 되어 있으나 B본에 따라 바로잡는다.

☆ A본에는 빠져 있으나 B본에 따라 보충한다.

## Ⅱ. 표점범례(標點凡例)

『定本 與猶堂全書』의 표점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는 기본적으로 고리점(。), 반점(，), 가운데점(·),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낫표(「 」) 겹낫표(『 』), 뽀족괄호(< >), 겹뽀족괄호(《 》), 원주표시(【 】), 쌍점(:), 밑줄(예) 등의 부호를 사용한다.

### 1. 총론(總論)

원문에 대한 구두 및 표점은 어절과 어절의 사이에는 반점(，)으로,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등으로, 몇 개의 병렬어가 계속될 때에는 가운데점(·)으로, 인용문의 경우 1차에는 큰따옴표(“ ”), 2차에는 작은따옴표(‘ ’), 3차에는 「 」, 4차에는 『 』를 쓴다.

### 2. 주요 문장 부호의 사용 방법

구두(句讀)는 시(詩)·병려체(駢儷體) 등 특수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문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문장의 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한다.

## 1) 고리점(。)

평서문에서는 긍정적인 사실이거나 부정적인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문장의 의미가 완료되었으면 고리점(。)을 사용한다.

### (1) 단구(單句)나 복구(複句)의 끝에 쓴다.

예) 必以義發者也。(《大學公議》) / 예) 又《毛傳》所繫，只有興也，而不見賦比。(《詩經講義》)

### (2) 韻文(詩, 詞, 賦, 駢文 등)의 경우, 文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押韻處에 사용한다.

### (3) 문자의 누락으로 인해 語義가 이어지지 않을 때, 중간에 고리점을 써서 문장을 분리한다. 주어나 서술어 등이 생략된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4) 뜻을 강조하려고 쓰인 2음절의 구절이 반복될 때는 끝에만 구두를 한다.

예) 幸甚幸甚。

### (5)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서 뒤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앞 문장의 뒤에 고리점(。)을 써서 주어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예) 嘗以此理問李先生曰：“此處不須理會。”先生因曰：“蜥蜴爲蠹，亦有如此者，非是蠹必此物爲之。”(《朱子語類》)

## 2) 반점(,)

### (1) 주어가 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거나 주어 다음에 주어를 정의하는 말이 올 때(예1)는 반점을 쓸 수 있다. ‘A는 B이다’라는 명제성 또는 판단문 문장

은 아무리 짧아도 ‘A, B(也).’의 형식을 갖춘다. 단, 이러한 형식의 문장이라도 주어와 술어가 ‘是’, ‘不是’, ‘卽’으로 연결되어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예2)

예1) 夫正者，邪之反。(《大學講義》)

如云‘江·漢，水也’，水則非江·漢，‘恒·岱，山也’，山則非恒·岱，‘忿·懣，怒也’，怒則非忿·懣。(《大學講義》)

然臣按，綏與毳通。毳，狐貌，毳毳，毛長貌。(《詩經講義》)

예2) 或曰：“中爻卽兩互作卦之謂。”(《周易四箋》)

又云：“上篇是盤庚爲臣時事。”

### (2) 같은 형식으로 배열된 대구(對句)나 병렬문에는 각 구 다음에 원칙적으로 반점을 쓴다.(예1)

예1) 挑而忍，動而毅，蕩而恬，撓而和，是在我者。(《大學講義》)

教三行，一曰孝行，二曰友行，三曰順行。(《大學公議》)

### (3) 주어와 술어가 도치된 문장에서는 반점을 써서 분리시킨다.

예) 伯魚之母死，期而猶哭。夫子聞之曰：“誰歟，哭者？”

### (4) 부사구 다음에 반점을 쓴다.(예1) 단,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경우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한 반점을 쓰지 않는다.(예2) 그러나 《春秋》와 같이 각 부사구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반점을 쓴다.(예3)

예1) 生解巾而就枕，昏然忽忽，髣髴若夢。(《南柯太守傳》)

예2) 乾隆辛亥之秋九月，試射內苑。(《詩經講義》)

예3) 三年，春，王二月，己巳，日有食之。

(5) 순서(차례)를 나타내는 말(예, 第一, 第二; 其一, 其二; 首先, 其次, 最後 등) 뒤에 반점을 사용한다.

其一, 朝貴買邸吏也。其二, 守令受賂物也。其三, 監司多僭法也。其四, 守令畏廉問也。

(6) 공식적인 문건에서 상대에게 공경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竊念', '伏惟', '恭惟', '竊意', '伏以', '伏審' 등의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

### 3) 인용부호

(1) 큰따옴표(“ ”): 1차 인용에 사용한다. 1차인용문의 경우 '曰', '云' 등의 뒤에 쌍점(:)을 붙이고 “ ” 처리한다.(예1) '曰', '云' 등 대화 및 인용을 표시하는 글자가 생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예2)

예1) 《易》曰: “大人者, 與天地合其德。” 《易》曰: “大人虎變。” 孟子曰: “養其大體者爲大人。” 孟子曰: “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 孟子曰: “惟大人能格君心之非。” 若是者, 德大者也。《大學公議》

예2) 又云: “楊終《戒馬廖不訓子書》……人君之子之事也。” 又: “《漢書》《律歷志》……故兼舉言之。……”

(2) 작은따옴표(‘ ’): 인용문 속에 다시 대화나 인용이 있는 2차 인용문에 표시한다.

예) 《左傳》: “曰季見冀缺, 歸而薦之於文公。公曰, ‘其父有罪, 可乎?’ 對曰,

‘舜極絲而舉禹。詩曰, 「采葑采菲, 無以下體。」” 《詩經講義》

(3) 3, 4차 인용에는 각각 낫표(「」), 겹낫표(『』)를 써서 표시한다.

2차, 3차, 4차 인용문의 경우, '曰', '云' 등의 뒤에 반점(.)을 붙이고, ‘’, 「」, 『』 처리하여 구별한다.

(4)

① 말·글이 인용 제시되었으나 짝막한 자구로 함축되었거나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사용되는 인용문에서는 '曰', '云'의 뒤에 쌍점을 쓰지 않고 인용부호를 바로 연이어 사용한다.

예) 若云‘于歸之女, 能和順其室家·家人’, 則宜字終不妄帖也。

《詩經講義》

夏羊者, 《爾雅》所稱‘牡曰羴, 牝曰羶’者, 是也。《詩經講義》

② 인용문 말미에 (인용)원문에 속하지 않는 어조사가 붙어있는 경우, 뒤 인용부호(’)는 어조사 앞에 놓여야 하고, 앞 인용부호(‘)의 앞에도 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陸氏《釋文》云: “馬·鄭之徒, 百篇之〈序〉, 摠爲一卷, 孔以各冠其篇首, 而亡篇之〈序〉, 即隨其次第, 居見存者之間。”【〈汨作〉等十一篇, 其文皆亡, 而〈序〉, 與百篇之〈序〉同編, 故存見〈汨作序〉下】原陸氏筆意, 亦謂僞者, 就馬·鄭百篇之〈序〉而取之, 分冠于各篇也。由是觀之, 孔作《正義》, 陸作《釋文》, 非不知其僞而一心尊信者也。【陸氏蓋率口而發】《梅氏書平》



③ 인용부호만 사용하고 쌍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미의 표점은 반드시 인용부호 다음에 표시한다.

예) 黃氏曰：“疹子之發，與傷寒相似，必先明其歲氣。如時令溫暖，以辛涼之藥發之，防風解毒湯【丙三】是也。……經云‘必先歲氣，毋伐天和’，此之謂也。……經云‘毋實實，毋虛虛，損不足，補有餘，天人性命也。能知此者，謂之良工’。”

④ 해석(解釋)·훈독(訓讀)·정오(正誤)를 나타내거나, 강조를 표시하는 따옴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따옴표가 없으면 인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문장 내의 약칭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 4) 서명(書名)과 편명(篇名), 장(章)과 절(節)의 표시

##### (1) 서명과 편명

서명과 편명이 같이 연이어 나올 때에는 《》〈〉→《·》형식으로 통일한다. 다만 서명과는 별도로 편명만이 나올 때에는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동일한 책의 편명을 2개 이상 이어 쓸 경우, 뒤의 편명은 독립적으로 쓰며 그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찍지 않는다.

예) 《三國遺事·紀異·古朝鮮》〈衛滿朝鮮〉〈馬韓〉

작자와 서명을 連用할 때의 약칭(예:班固의 《漢書》를 의미하는 “班書”등)은 班《書》로 처리한다.

(2) 장(章)과 절(節), 조(條) 등은 ‘ ’로 표기한다.

#### 5) 밑줄의 표시

(1) 人名, 地名, 國名, 王朝名, 民族名, 建物名, 教育機關名, 年號 등 고유명사에는 각각 밑줄을 친다.

① 人名類: 姓名, 字, 號, 諡號, 封號, 王·王妃의 廟號, 陵號, 年號 등

② 地名類: 地名(江·山·河·海·島 등 자연지형물의 명칭 포함), 國名, 王朝名, 民族名, 行政區域名

예) 《後漢書》〈杜林傳〉云: “杜林【字伯山】扶風茂陵人。光武徵拜侍御史。林前于西州, 得《漆書古文尚書》一卷, 常寶愛之, 雖遭艱困, 握持不離身, 出以示東海衛宏, 濟南徐巡曰, ‘林流離兵亂……’。”(《梅氏書平》)

③ 건물명: 宮室, 樓臺, 殿閣, 池塘, 門闕 등

(2) 서로 다른 성격의 고유명사, 예를 들어 시호(諡號)와 이름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 밑줄을 친 후 고정폭 빈칸(alt+space)을 써서 구분한다.

예) 韓忠成公明澮之子也.

(3) 별칭이나 범칭 등 관념적 고유명사: 실제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더라도 일정 지역이나, 종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밑줄을 친다.(예1) 지칭 대상이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 大小나 先後 부분에 밑줄을 친다.(예2) 또한 범칭의 경우도 고유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밑줄을 친다.(예3)

예1) 鄭司農(《經世遺表》)

北海, 湖南, 三南, 海西, 關東, 湖西, 京城(《經世遺表》)

三韓, 四郡, 六鎮, 廢四郡(《經世遺表》)

예2) 大桀, 小桀, 大貂, 小貂(《經世遺表》)

先鄭, 後鄭(《經世遺表》)

예3) “李唐”과 같은 국명의 별칭, 漢魯國, 趙國과 같은 郡國名(《詩經講義》)

〈별첨자료〉

① 人名類: 姓名, 字, 號, 諡號, 封號, 王·王妃의 廟號, 陵號, 年號 등

- 封爵名은 그것이 地名을 사용했거나 美稱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밑줄 친다.(예: 淮陰侯, 齊王, 衛國公, 安樂公主 등)
- 관습상 관작명 등 접두·접미어와 함께 쓰이는 인명은 하나의 명사로 보아 모두 밑줄 친다.(예: 周公旦, 太子丹, 大夫種, 秦始皇, 楚霸王, 釋有一 등)
- 성명과 관명, 직함, 호칭이 함께 쓰일 때에는 밑줄 친다.(예: 王丞相, 李將軍, 洪判書, 曹司馬, 李校理 등) 그러나 성씨 없이 관명만 쓰일 때는 밑줄 치지 않는다.(예: 丞相, 將軍, 判書 등) 또한 관명과 인명 순으로 쓰일 때는 인명에만 밑줄 친다.(예: 鎮議政黃喜, 副承旨丁若鏞 등)
- 성씨에 밑줄 친다.(예: 王氏, 林氏 등)
- 성명이나 字號에 존칭·미칭(公, 兄, 先生, 大士)등이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포함해서 밑줄 친다.(예: 蔡公, 李兄, 金生, 李醫, 李丈, 李夫人, 星湖先生, 雪坡大士, 有一上人 등)
- 실제 성명이 아니지만, 일정한 인물을 專稱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밑줄 친다.(예: 太史公, 鄭司農, 孔夫子 등)

- 구체적인 인물을 지칭하지만, 고유명사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 職名에 존칭, 미칭(兄, 公)을 붙인 경우도 밑줄 치지 않는다.(예: 夫子, 承旨公, 注簿公 등)
- 여러 사람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예: 三王, 三家, 六家, 竹林七賢, 死六臣, 唐·宋八家, 三學士 등)
-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만 고유명사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밑줄 치지 않는다.(예: 麗祖(고려태조), 漢帝(한무제) 등)
- 年號가 인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모두 밑줄 친다.(예: 永樂帝, 擁正帝, 乾隆帝 등)

② 地名類: 山·河流·海·島 등 자연지형물, 行政區域名에 밑줄 친다.

- 행정구역은 구역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鄉·里·坊·巷을 나타내는 지명(~小京, ~州, ~郡, ~縣, ~市, ~府, ~都護府, ~衛 등)에 밑줄 치며, 행정 구역 단위까지 밑줄 친다.(예: 南原小京, 忠州, 廣州郡, 安東都護府, 馬韓都督府, 潘州定理府 등)
- 軍·鎮·營에도 밑줄 친다.(예: 全羅左水營, 羅州鎮, 月串堡, 草芝堡, 荊州軍, 瀋陽衛 등)
- 관습적으로 쓰이는 지명에는 밑줄 친다.(예: 嶺南, 關東, 湖南, 畿內 등)
- 집합체를 이루는 지명일 경우에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밑줄 친다.(예: 兩浙, 三南, 兩西, 兩南, 兩界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 부분에만 밑줄 친다.(예: 黃河九曲, 武夷九曲, 關東八景)
- 약칭·축약된 지명에도 밑줄 친다.(예: 鴨江(鴨綠江), 莒(莒川))

- 실제 지명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밑줄 친다.(예 : 漢四郡, 四郡, 廢四郡, 六鎮 등)
- 행정구역명이 직관과 함께 사용된 경우 행정구역명에만 밑줄 친다.(예: 羅州牧使, 延豐縣監, 金井察訪 등)
- 고유명사가 아닌 막연하게 쓰인 지명, 즉 수도, 지방, 변경 등의 의미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예: 關外, 關內, 京, 京司, 京師 등)
- ‘江’ ‘河’만 나올 경우 長江과 黃河를 가리키는 것은 밑줄 치나, 일반적인 의미의 ‘江’ 과 ‘河’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 ‘長成’만 나올 경우에도 萬里長城을 가리키는 것은 밑줄 치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
- 개념화된 가상공간에는 밑줄 친다.(方丈山, 瀛州山, 蠻觸 등)

### ③ 國名·王朝名

- 별칭이나 이칭의 경우에도 고유국명을 의미하는 경우 밑줄 친다.(예: 李唐, 漢魯國, 趙國, 鷄林, 任那, 大夏國 등)
- 접두어나 접미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이어서 밑줄 친다.  
(예 : 漢家, 唐室, 大明, 太清, 有宋, 隋朝, 李朝 등)
- 국명은 약칭도 포괄하여 밑줄 친다.(예: 鮮(朝鮮), 麗·濟(高句麗, 百濟) 등)
- 국가나 왕조를 구분하여 사용한 명칭에도 밑줄 친다.(예 : 東周, 西周, 先秦, 前漢, 後漢, 北魏, 南魏, 北宋, 南宋, 後梁 등)
- 집합체를 이루는 국명이나 왕조명에도 밑줄 친다.(예 : 唐堯, 兩漢, 兩晉, 三國 등)
- 국명과 결합된 명사에서 국명이 의미를 가질 경우 국명부분에 밑줄 친다. 그

리나 국명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국명의 의미가 약화되고 전체가 한 단어로 고유명사화된 경우 국명에 별도로 밑줄을 치지 않는다.(예 : 周尺, 高麗尺, 伽椰琴 등)

- ‘中國’은 中土, 中原의 의미로 쓰일 경우 밑줄 치지 않지만, 다른 국가와 대비되는 뚜렷한 국명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밑줄 친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밑줄 치지 않는다.(예: 中華, 華, 東國 등)
- 시대명에 밑줄 친다.(예: 三代, 春秋, 戰國, 南北朝 등)

### ④ 民族名·種族名

- 특정한 민족이나 종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 친다.(예 : 匈奴, 鮮卑 등)
- 총괄적인 의미의 보통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예: 胡, 蕃, 蠻, 夷 등)
- 大·小나 방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우, 종족상 구분되어 다른 종족을 가리킬 때에는 大·小, 방위, 지역부분 등 접두나 접미까지 함께 포괄하여 밑줄 친다.(예 : 大桀, 小桀, 大貊, 小貊, 北匈奴, 北玄菟, 嶺東濊, 丕耐濊 등)
- 통합적인 의미의 종족, 민족명에도 밑줄 친다.(예 : 三韓, 六伽椰 등)

### ⑤ 建物名 : 宮室, 樓臺, 殿閣, 池塘, 門闕 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에 밑줄 친다.

- 직관명에는 밑줄을 치지 않지만, 건물명이나 지명이 들어가 있는 직관명일 경우에는 건물명이나 지명 부분에 밑줄 친다.(예: 永禧殿, 其承護官二人 職

銜日宣務郎·典廟司員外郎·分差永禧殿承護官 등)

- 건물명이지만 건물이 아닌 관부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밑줄 치지 않는다.(예: 奎章閣, 弘文館 등)

⑥ 기타

- 교육기관명에는 밑줄 친다.(예: 辟雍, 太學, 國子監, 成均館, ~書院, ~學校, ~書堂 등)
- 倉名에는 밑줄 친다.(예: 興元倉, 倉嘉倉, 武牢倉, 昭陽倉, 宣惠倉, 東冰庫, 西冰庫 등)
- 그 외 개별적인 저서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고유 명사는 예외로 둘 수 있다.

《麻科會通》: 藥草名, 病名

《春秋考徵》: 神名(예: 西王母, 玉皇上帝 등)

6) 감탄부호 :

감탄부호는 강렬한 감정을 나타낼 때 쓰이고, 강한 어조의 명령문 말미에나 反問 문장에 쓰일 때도 있다. 도치된 문장에서의 감탄부호는 문장 끝에 둔다. 古籍 표점 시 감탄부호는 가급적 남용하지 않는다.

예) 嗚呼! / 大哉, 言乎! / 朱子亦何嘗偏主之哉! (《詩經講義》)

親九族, 尙當別言, 況孝於父悌於兄者! (《大學公議》)

7) 의문부호

- 1) 문장 중에 의문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문문이 아닐 경우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지 않는다.
- 2) 문장(구절) 마지막 부분에 의문조사가 있으나 回答을 구하지 않는 語句일 경우 물음표를 붙이지 않는다.
- 3) 도치된 문장에서의 의문부호는 문장 끝에 둔다.
- 4) 자문자답과 반어의문문일 경우에도 의문부호를 쓴다.  
예) 如之何, 其可也? (《大學講義》)
- 5) 의문문이 병렬되어 나올 경우는 각각의 문장에 모두 물음표를 사용한다.  
예) 小學謂何? 大學謂何? (《大學講義》)
- 6) 선택의문문에 쓰인다. 선택의문문은 앞의 절에는 반점을 사용하고 마지막 절에만 물음표를 쓴다.  
예) 小學·大學, 是學宮之名耶, 抑學問之名耶? (《大學講義》)

(5) 의문부호와 감탄부호는 전체구절에 속하는지 아니면 인용문에만 속하는 것인지를 유의하여 사용한다. 인용하는 말이 문장 끝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물음표와 감탄부호는 인용문 내에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용문 밖에 둔다.

8) 가운뎃점[間點] :

일본어 반각(半角) 가운뎃점(HNC코드:32A5)을 쓴다. 고전번역원안 모점(.)의 역할을 대신한다.

- (1) 문장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명사가 병렬되어 오해를 일으키기 쉬울 때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예1) 그러나 명사병렬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분명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생략한다.(예2)

예1) 孔壁真古文《書》不傳，則班·馬·荀·范之史，都尉·膠東·劉歆·杜林，以至賈·馬·鄭三家之事，似乎考閱未周也。(《梅氏書平》)

예2) 日月星辰，父子兄弟

### 9) 원주를 표시하는 기호의 사용

- (1) 《여유당전서》 등 다산 저작의 원주는 ‘【】’(문자표 ‘341C’와 ‘341D’)를 써서 표기한다.

- (2) ‘【】’는 본문의 문장부호 뒤에 쓰며 문장부호와 간격을 두지 않는다.

예) 罰直于北營【在曜金門外】(《詩經講義》)

然《左傳》竟非誤字，不惟叔孫豹之所賦爲四章【襄十九】又鄭伯與魯文公宴于斐，子家賦載馳之四章【子家即公子歸生】亦取‘控于大邦，誰因誰極’之義也【文十三】(《詩經講義》)

- (3) ‘【】’ 안의 문장은 쉼표나 가운뎃점 등 문장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문장 끝의 부호(예: ., !, ? 등)는 생략한다.

예) ○自艮至震，不過二年【據文王卦位】而坤陰在中【間於震】地數十也【坤爲旬】既過二年【坤間之】必至十年【自震而數，又歷八年，始可以至震】‘十年勿用’也。

### 10) 쌍점(:)

1차 인용문을 표시할 때와 각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절 뒤에 표시한다.

예1) 《雜卦傳》曰：“夬，決也，剛決柔也。君子道長，小人道憂也。”

예2) 篇：新朝本에는 ‘篤’으로 되어 있으나 奎章本에 따라 바로잡는다.

### Ⅲ. 편집 관련 사항

1. 교감 및 편집에 사용되는 부호 : 문장전환부호(○), 빠짐표(□, ▮)
  - 1) ○ : 문단전환의 표시로 신조본에 사용된 자리에 똑같이 사용한다. 교감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꼭 들어가야 할 자리나, 신조본에 빠진 경우는 이본 또는 文理에 따라 보충해 넣고 교감주를 붙인다.
  - 2) □ : 신조본에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거나 누락되어 빈칸으로 남겨져 있거나 □으로 표시된 경우에 사용한다. 글자 수가 확실하면 글자 수만큼 □을 사용하고, 글자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로 표시한다.
2. 글자의 크기 : 본문은 11point로 하고, 원주(原注) 표시(【 】)안의 글자는 9point로 한다.
3. 책의 전체 구성이 문답형으로 구성된 경우:

《詩經講義》·《大學講義》등과 같이 책의 체제가 문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편집을 고려해서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즉 《詩經講義》는 “御問曰”과 “臣對曰”의 문답체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시편 안에서 두 번째 이하의 “御問曰”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감본의 편집 체계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御問曰”과 “臣對曰”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큰따옴표를 생략한다.
4. ‘鏞案’, ‘按’, ‘答難’, ‘引證’, ‘考訂’ 등 책의 전체 구성과 관련되어 반복됨으로써 소제목으로 인정되는 단어는 굵게 표시하고 반점을 쓰지 않는다.

## 2장

### 〈저서별 출간 범례, 예시 1〉 『목민심서』 범례

#### I. 교감 범례

##### 1. 저본(底本)과 대교본(對校本)

###### 1) 저본

《牧民心書》: 『與猶堂全書』政法集, 1934~1938, 新朝鮮社(약칭 新朝本)

###### 2) 대교본

《牧民心書》: 필사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창문고, 남창 350.1 J466mpv.1(약칭 서울대본)

《牧民心書》: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31-405(약칭 國中本)

《牧民心書》: 필사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2B-0001a(약칭 尊經閣本)

《牧民心書》: 필사본, 일본 텐리대학부속텐리도서관(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329.21-71(약칭 天理大本)

《譯註 牧民心書》: 다산연구회, 창작과 비평사, 1981(약칭 다산연구회본)

## 2. 교감 참고 서목

### 1) 주요 서목

- 《牧民心書》(연활자본, 광문사, 1902, 약칭 廣文社本)  
《文獻通考》(馬端臨 撰, 《文淵閣四庫全書》第610~616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經國大典》(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續大典》(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大典通編》(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增補文獻備考》(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1996)  
《臨官政要》(安鼎福 著, 김동주 역, 을유문화사, 1974)  
《松窩雜僞說》(李堦撰, 《(國譯)大東野乘》 제14책, 민족문화추진회, 1971 ~1979)  
《牧民心書》(연활자본, 광문사, 1902, 약칭 廣文社本)

### 2) 경전

《論語》·《孟子》·《周易》·《儀禮》·《周禮》·《禮記》·《詩經》·《尚書》·《春秋左氏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孝經》 등 十三經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文淵閣四庫全書》(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와 《十三經注疏整理本》(李學勤 主編, 北京: 北京大學, 2000.)을 함께 사용하였다.

《小學》·《管子》 등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文淵閣四庫全書》(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를 사용하였다.

### 3) 사서

《史記》·《漢書》·《後漢書》·《唐書》·《南史》·《北史》·《宋史》 등 二十四史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二十四史縮印本》(北京: 中華書局, 1997.)을 사용하였다.

《高麗史》(동아대 고전연구실 편역, 동아대출판부, 1965)

《高麗史節要》(민족문화추진회 고전번역총서, 1968)

### 4) 국외 기타

《說苑》·《山海經》·《近思錄》·《童蒙訓》·《通典》·《學林》 등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文淵閣四庫全書》(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를 사용하였다.

《大明律》·《皇明通紀》 등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續修四庫全書》(顧廷龍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를 사용하였다.

### 5) 국내 기타

《大山集》·《靑莊館全書》 등 출전의 인용문 교감에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본을 사용하였다.

《國朝寶鑑》(영인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國朝五禮儀》(영인본, 민창문화사, 1994)

《華城城役儀軌》(경기문화재단, 2005)

《思齋燕言》(金正國 撰, 《韓國詩話叢編》 제1책, 東西文化院, 1989)

《眉巖日記》(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荷潭破寂錄》(민족문화추진회 고전번역총서, 1971)

### 3. 교감 규정

- 저본의 오류가 명백하고 대교본이 옳다고 판단되면 범례에서 제시한 대교본에 따라 바로잡거나 보충·생략하였다. 교감주에서는 저본의 내용만 밝혀 주고 각각의 대교본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의 정오(正誤)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대교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모두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옳게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에서 인용한 원전의 내용이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잡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 다산이 원전을 부연하거나 축약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출전과 본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서명, 편명,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가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잡았다.
- 이체자(異體字)나 이형자(異形字)는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검색시스템을 준거로 대표자로 통일하였다. 단, 의도적으로 쓴 고자(古字)나 피휘자(避諱字)는 그대로 두었다.
- 필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자나 유사한 부수를 통용하는 관행에서 기인하는 오자는 문맥에 맞는 자로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감주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거나 누락되어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글자 수가 확실하면 글자 수만큼 □로 표시하였고, 글자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 Ⅱ. 표점 범례

본서에서는 13개의 표점 부호를 사용하였다. 표점 부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리점(。): 서술문 및 어조가 약한 명령문이 완료되는 곳에 썼다.
2. 반점(，): 문장 안에서 구나 절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 썼다.
3. 인용 부호(“ ”, ‘ ’, 「 」): 대화, 인용, 강조 등을 나타내는 데 썼다.
4. 서명·편명 부호(《 》〈 〉): 서명·편명을 나타내는 데 썼다.
5. 고유명사 부호( ): 인명, 지명, 왕조명, 건물명 등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데 썼다.
6. 감탄 부호(!): 감탄문, 강한 어조의 명령문의 끝에 썼다.
7. 의문 부호(?): 의문문의 끝에 썼다.
8. 가운데점(·): 동등한 지위를 가진 명사의 병렬, 구의 병렬에 썼다. 서명 부호 안에서 서명과 편명을 구분하는 데 썼다.
9. 원주 부호(【 】): 원주를 나타내는 데 썼다.
10. 쌍점(:): 1차 인용문을 표시할 때 썼다. 뒤에 나올 내용을 제시하는 말의 뒤에 썼다.



### Ⅲ. 기타

본서는 저본인 신조본의 편집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1. 저본과 대교본에 일관된 목차가 없기 때문에 전체 목차를 새로 구성하였다.
2. 목차의 일관성과 내용 구분을 위해 본문의 일부 소제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별주로 처리하였다.
3. 저본의 매 권에 있는 ‘泔水丁若鏞美鏞 著’와 ‘外玄孫 金誠鎭 編 後學 鄭寅普 安在鴻 同校’의 기록은 생략하였다.
4. 다산의 주요 의견을 나타내거나 편집 체제상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補曰’, ‘案’, ‘質疑’, ‘引證’, ‘考訂’, ‘御問’, ‘答曰’ 등의 용어는 진하게 표시하였다.
5. 격자(隔字), 이행(移行), 대두(擡頭)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 3장

〈저서별 출간 범례, 예시 2〉

## 『마과회통』 범례

### I. 교감범례

#### 1. 저본(底本)과 대교본(對校本)

##### 1)저본

《麻科會通·醫零》:《與猶堂全書》醫學集, 1934~1938, 新朝鮮社(약칭 新朝本)

##### 2)대교본

《麻科會通》: 필사본, 10卷 10冊, 국립중앙도서관, 古7671-28(약칭 國中本A)

《麻科會通》: 필사본, 9卷 9冊(結本),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8-73(약칭 國中本B)

《麻科會通》: 필사본, 10卷 11冊, 한국은행, 00008664~00008674290자 47 포갑 (약칭 韓銀本)

《麻科會通》: 필사본, 11冊, 京都 富士川文庫, マ/1 186946(약칭 富士本)

《與猶堂集 雜文(醫零)》: 필사본, 2卷 2冊, 장서각, 貴200-5(약칭 藏書本)

## 2. 교감 규정

- 저본의 오류가 명백하고 대교본이 옳다고 판단되면 범례에서 제시한 대교본에 따라 바로잡거나 보충·생략하였다. 교감주에서는 저본의 내용만 밝혀 주고 각각의 대교본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의 정오(正誤)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대교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모두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옳게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에서 인용한 원전의 내용이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 잡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 다산이 원전을 부연하거나 축약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본을 따르고 교감주에서 출전과 본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서명, 편명,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가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면 바로 잡았다.
- 이체자(異體字)나 이형자(異形字)는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검색시스템을 준거로 대표자로 통일하였다. 단, 의도적으로 쓴 고자(古字)나 피휘자(避諱字)는 그대로 두었다.
- 필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자나 유사한 부수를 통용하는 관행에서 기인하는 오자는 문맥에 맞는 자로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감주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저본과 대교본이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거나 누락되어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글자 수가 확실하면 글자 수만큼 □로 표시하였고, 글자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 II. 표점범례

본서에서는 14개의 표점 부호를 사용하였다. 표점 부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리점(。): 서술문 및 어조가 약한 명령문이 완료되는 곳에 썼다.
2. 반점(，): 문장 안에서 구나 절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 썼다.
3. 인용 부호(“ ”, ‘ ’, 「 」, 『 』): 대화, 인용, 강조 등을 나타내는 데 썼다.
4. 서명·편명 부호(《 》〈 〉): 서명·편명을 나타내는 데 썼다.
5. 고유명사 부호( ) : 인명, 지명, 왕조명, 건물명 등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데 썼다. 마과회통에서는 약초명, 처방명에도 썼다.
6. 감탄 부호(!): 감탄문, 강한 어조의 명령문의 끝에 썼다.
7. 의문 부호(?): 의문문의 끝에 썼다.
8. 가운뎃점(·): 동등한 지위를 가진 명사의 병렬, 구의 병렬에서 썼다. 서명 부호 안에서 서명과 편명을 구분하는 데 썼다.
9. 원주 부호(【 】): 원주를 나타내는 데 썼다.
10. 쌍점(:): 1차 인용문을 표시할 때 쓴다. 뒤에 나올 내용을 제시하는 말의 뒤에 썼다.
11. 꺾쇠괄호([ ]): 저본과 대교본이 결락된 부분에 썼다.

### Ⅲ. 기타

본서는 저본인 신조본의 편집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1. 저본과 대교본에 일관된 목차가 없기 때문에 전체 목차를 새로 구성하였다.
2. 목차의 일관성과 내용 구분을 위해 본문의 일부 소제목은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별주로 처리하였다.
3. 도와 표의 목차는 별도로 구성하였다. 표 내부에 위치한 제목은 표 상단에 별기하였고, 제목이 없는 경우 내용을 참조하여 제목을 부여하였다.
4. 저본의 매 권에 있는 '冽水丁若鏞美鏞 著'와 '外玄孫 金誠鎮 編 後學 鄭寅普 安在鴻 同校'의 기록은 생략하였다.
5. 다산의 주요 의견을 나타내거나 편집 체제 상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補曰', '案', '質疑', '引證', '考訂', '御問', '答曰' 등의 용어는 진하게 표시하였다.
6. 격자(隔字), 이행(移行), 대두(擡頭)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7. 《의령》은 신조본(新朝本)의 누락된 내용을 장서본(藏書本)에 따라 보충하였다.

## 4장

# 〈일본 간사이 지방 필사본 조사기〉 『여유당전서』 定本化 작업과 필사본의 정리<sup>1)</sup>

## 1. 머리말

茶山 丁若鏞(1762~1836)은 평생 500권이 넘는 저작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저작의 방대함은 물론, 주제의 다양성이나 저작의 수준에 있어서도 조선 역사에서는 그 짝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그의 학문 세계를 '實學'이라는 테두리 속에 넣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용어 속에 담으려 해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면에서 다산의 학문 세계는 '다산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산의 저서는 그의 생전에는 한 권도 출판되지 못했다. 19세기 말에서야 『이담속찬』이 겨우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아방강역고』 등 일부 저작들만이 연활자로 출판되었을 뿐이다. 당연히 일찍부터 필사본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산 저작의 고본이 존재하지 않는 한 傳寫 과정에서 수많은 誤寫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약 5년 동안 新朝鮮

1) 필사본 연구팀 박철상 연구원 정리.

社에서는 다산의 저작을 모아 154권 76책의 『여유당전서』를 발간함으로써 다산학 연구의 출발점이라는 큰 이정표를 세웠지만,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학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이는 『여유당전서』의 간행 시점이 다산 사후 100년이 흐른 뒤였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다산 저작의 稿本이 현전하지 않는다면<sup>2)</sup> 당연히 필사본의 수집 교감을 통해 다산 저작의 정본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의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소장된 서적은 물론이고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다산의 저작들이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특히 일본의 여러 도서관에 소장된 다산의 저작들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산의 저작은 그의 학문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日人들의 수집의 대상이 되었고, 현재 그 서적들은 일본과 미국의公私書庫에 묻혀있는데, 상당수가 善本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저작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5년 4월 2일~5일까지 일본 오사카 府立 도서관과 天理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산의 저작들을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조사는 필자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만큼 선본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다산이 구축했던 학문 체계

2) 서지학자인 안춘근은 다산의 친필 고본을 구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양여했다고 했으나, 현재 장서각에 소장중인 안춘근의 구장본은 친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러 필사본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춘근은 『장서원론』(1972년 성진문화사)에서 당시 자신이 구했던 『정다산전서』는 속집 9책과 『아연각비』를 합한 12책, 그리고 잡저 15권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모두 27권을 구입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춘근은 처음에 잡저 15권은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필사 상태가 다른 책하고는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명세를 보면 『아연각비』와 속집 9책, (사암속집), 『여유당집』, 『잡문』12권, 『약서』3책, 『시집』, 『문헌비고간오』 등이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친필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집』과 『문헌비고간오』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확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찍이 북한에서는 『대동수경』의 번역본이 출판된 적이 있었다. 그 해제를 보면 家藏本으로 있던 『열수전서총목』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도 다산 저작의 가장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에 있는 다산의 저작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 근접하는 다산 저작의 복원은 다산학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의 고본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 다산의 저작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2. 다산 시대의 출판과 장서문화

다산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의 출판과 藏書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명대풍의 조선 문화가 청대풍의 중국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필사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正祖의 등장은 조선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淸朝 문물의 제한적 수용이라는 정조의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정책은 연행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학술 문화적 측면의 변화로 나타났다. 당연히 출판상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整理字처럼 康熙字典의 字体를 자본으로 한 새로운 활자가 만들어졌고, 중국 종이에 인쇄한 서적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책의 형태도 바뀌었다. 封面紙를 사용하는 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소형의 서적들도 만들어졌다. 寫本에서도 그런 변화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 종이에 烏糸欄이 있는 원고용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판심에 자신들의 書齋名을 인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조 사후에도 청조문화의 유입은 가속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왕이 아닌 서울에 거주하는 京華世族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은 권력과 文翰을 겸한데다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서 대부분 연행사절을 다녀온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했음

은 물론 수많은 서적을 수입할 수 있었다. 서적이야말로 정보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조가 그랬듯이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金陵聚珍字와 奎史字의 출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임란 이전의 장서가들이 각 지방의 世家들이었다는 점과도 대비되는 현상이다. 임란 이전만 해도 각 지방관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방 관관의 출판이 임란을 거치면서 질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물론 임란 이후에도 지방 관관의 출간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출간되는 서적의 수준은 이미 현실적 욕구를 따라가지 못했다. 명나라에서 출간된 서적을 즉시 수입하여 복각하거나 활자로 인쇄하는 일이 잦았던 임란 이전의 상황에 비해 청조에서 수입한 서적을 출간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청나라에 수입된 서적들은 필사본의 형태로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문집 출판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우리 선인들의 문집 출판은 사후에 이루어졌다. 사후에 자손들과 문인들에 의해 문집이 정리되고 출판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집의 출판 역시 문이나 자손 중에 지방의 수령으로 출사하는 이가 있으면 그곳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설령 중앙 관서에서 활자로 간행했다 할 지라도 후대까지 오래 전할 수 있도록 다시 목판에 새겼다. 즉, 地方-木板이라는 틀 속에서 문집이 편찬되고 출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모든 문화 현상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자신들의 문집을 생전에 발간하는 경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출판의 중심도 지방에서 서울로 바뀌었고, 목판본에서 활자본으로 바뀌어갔다. 즉, 서울-活字의 틀로 바뀐 것이다.<sup>5)</sup> 이 역시 청조 문사들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4) 줄고, 「정조와 경화세족의 장서인」, 『문헌과해석』23호(2003년 여름호, 문헌과해석사)

5) 줄고, 「조수삼의 신자료 연상소해(聯床小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38집(2004년 10월, 한양대학교 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였다. 다산의 저작은 처음부터 출판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문집을 출판해줄 힘 있는 제자도 없었고, 그의 집안이 경화세족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 3. 다산 저작에 있어서 필사본의 의미

필사본은 일반적으로 붓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서 만든 책을 가리킨다. 즉, 활자나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하지 않은 상태의 서적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이를 좀더 세분하면 稿本과 傳寫本으로 대별할 수 있다. 稿本은 저자가 처음으로 쓴 책을 말하는데, 저자나 편자가 스스로 쓴 책을 手稿本이라 하고, 저자나 편자가 스스로 교정하고 수정한 고본을 手定稿本이라 한다. 稿本의 발굴은 定本의 확정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현전하는 다산 저작의 고본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다만 다산의 저작 중에는 상당수가 다산의 제자들이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다산 제자들의 필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산 저작이 제자의 필적으로 확인만 된다면 다산의 수고본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傳寫本에 유의해야 한다. 전사본은 抄本, 轉寫本, 傳抄本 등으로 불리는 데 어떤 용어든지 底本을 베낀 2차 사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본에 비해 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다. 전사본의 경우에는 먼저 그 가치를 확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

국학연구소), p.36~37

사본이 중요시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 (1) 판본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현전하지 않아 필사본이 유일본인 경우
- (2) 필사 연대가 판본보다 빠른 경우
- (3) 단락이나 자구에 차이가 있어 판본의 오류나 누락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
- (4) 학자나 名家의 교감본인 경우
- (5) 필사 연대가 아주 오래된 경우
- (6) 필사본이 명가의 수택본인 경우
- (7) 유통되는 판본의 계열과 다른 계열의 필사본인 경우
- (8) 명가의 題跋文이나 藏書印이 있는 경우
- (9) 紙墨이 뛰어나고 필사 상태가 훌륭하며 장정이 古雅하여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sup>6)</sup>

다산 저작의 경우 대부분 傳寫本에 해당하므로 전사본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본의 연대를 추정하고 소장자를 파악해야 한다. 필사 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필사기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사의 형태, 제본의 형태, 장서인의 확인, 서법의 형태 등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문서가 표지 배접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필사본의 경우에는 배접지에서 연대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들이 발굴된다. 특히 1表 2書의 경우에는 관아에서 소장했던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배접지의 남아 있는 관문서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장자를 추정하기

6) 李清志, 『古書版本鑑定研究』(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p259.

위해서는 장서인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확인 가능한 인물의 장서인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필사 연도의 하한선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판심 하단에 있는 書齋名도 확인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경화세족들 중에는 자신의 원고지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재명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해진다.

#### 4. 다산 저작 필사본의 실례

일본 관서지방의 오사카 부립도서관과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산 저작 중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작들이 담겨 있다. 이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sup>7)</sup>

먼저 오사카부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논어고금주』, 『흠흠신서』, 『목민심서』 등 3종의 다산 저작이 수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論語古今註』에 대해 살펴보자. 40권 13책의 筆寫本으로 自然經室藏 원고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 제목의 아래쪽에는 “泃水 丁鏞輯, 漢山 李綱會 塞琴<sup>8)</sup> 尹峒 共校”라 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이 ‘자연경실장’ 원고용지에 필사되었다는 점이다. 자연경실장 원고용지는 徐有榘(1764~1845) 집안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던 원고용지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서유구 집안의 구장본이었다는 말이 된

7) 필자는 각 서적의 특징들만 몇가지 제시할 것이다. 일본에 소재한 다산 저작의 서지적 조사 작업은 교토 대학교에 유학중인 노경희씨가 별도의 글을 준비하고 있다.

8) 塞琴은 海南의 古號이다.

다. 그런데 서유구 집안에서는 왜 이 책을 필사하여 가지고 있었을까? 서유구는 일찍이 후대에 전할만한 조선인의 저술들을 叢書의 형태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일의 시작은 李德懋가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서유구가 그 일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이를 『小華叢書』라는 이름으로 편찬하려 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叢書에 편입시키려 계획했던 『소화총서목록』이 발굴됨으로써 그 전모가 드러났다.<sup>9)</sup> 여기에는 모두 124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易四箋』, 『東國水經注』(정약용·李晴, 2책), 『我邦疆域考』(3책) 등 다산의 저작도 3종이 편입되어 있다. 이 중에서 『我邦疆域考』가 버클리대 아사미문고에 현존하고 있고, 규장각에도 1책이 零本(권4-권6)으로 남아 있다. 또 『소화총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자연경실장 원고용지에 필사된 『여유당집』의 일부가 일사문고에 전하고 있다.

이 책의 교정자인 이강희와 윤동은 모두 다산초당 시절의 제자들이다.<sup>10)</sup> 특히 이강희(1789~?)<sup>11)</sup>는 자가 紘甫(또는 紘父)로 다산이 『논어』 연구를 다시 시작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다산은 흑산도에 있던 형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sup>12)</sup>

9) 김영진, 「조선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지평』, 이혜순 외 편(2005년 4월 간행 예정, 소명출판사) 소화총서에 관한 기록은 본 논문에 힘입었다.

10)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권(한국한문학회, 1998) 다산 유배시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 자세하다.

11) 안대회, 「이강희의 ‘유암총서’·‘운곡잡저’ 해제」 『운곡잡저』(신안향토사료지, 신안문화원, 2004.12.30), p.13~30. 이강희에 대해서는 이 글에 자세하다.

12) 『答仲氏』 『여유당전서』(제1집 제20권 장29)

지금 논어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四書라는 발에는 이삭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紘父(이강희의 자)가 과거 공부에서 방향을 바꾸어 發憤하더니 經學과 禮學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엔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이삭이 있고, 저기에도 이삭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거두지 않은 벼단이 있고, 저기에도 거두지 않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뒤죽박죽 낱자하여 이루 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아이 때 새벽에 밤을 주우러 가면 붉은 열매가 여기저기 온통 흩어져 이루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합니까? 평생 『논어』에 관한 여러 논설들을 수집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매번 한 장을 보면 고금의 여러 설들을 모두 상고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것은 節錄하고 논쟁이 되는 것은 논단했더니, 이제는 이밖에 새롭게 보충할 만한 게 없다고 할만합니다.(중략) 하늘이 만약 내게 시간을 더 주어 이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책은 참 불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脫草할 방도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강희는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다산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저술을 도와주었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과 함께 다산의 『논어고금주』를 교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동의 본명은 尹鍾心(1793~1853)이다. 자는 公牧 호는 紺泉이다. 다산 저작의 대부분이 그의 글씨라는 기록으로 보아 다산을 가장 가깝게 종유했던 인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언의 필요가 없다.

天理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모두 15종의 다산 저작을 열람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 하겠다.

(1) 『欽欽新書』는 30권 10책의 필사본이다. 본문 앞뒤로 겉표지 배접에 사용했던 고문서들을 따로 모아 첨부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光緒九年正月二十五日 行郡守 李’ 및 ‘可興面’, ‘榮川’ 등의 문구가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필사연도는 광서 9년(1883) 이후임을 알 수 있고, 영천군 관아에 있었던 책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雅言覺非』는 3권 1책으로 중국 종이에 필사하였다. ‘志齋’, ‘徐承輔印’, ‘圭庭’ 등의 인장이 있다. 따라서 서승보(철종 연간 문신)의 구장본이었음이 확인된다. 판심하단에는 ‘日彊齋藏’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앞의 ‘자연경실장’의 경우처럼 어느 집안의 원고용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惕齋 李書九(1754~1825)의 문집 중에도 ‘日彊齋藏’이라는 원고용지를 사용한 경우가 남아 있다.<sup>13)</sup> 현재로서는 이 원고지가 어느 집안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3) 『兒學編』은 不分卷의 필사본으로 洪岐周(1829~?)의 장서인 ‘洪岐周印’이 있다. 제일 첫장 ‘兒學編上 有形千字茶山丁鏞著’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에는 ‘丁酉春六十九歲老祖書’라 적혀 있다. 장서인은 필사본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4) 『大東禪教考』는 서문 발문도 없는 1책의 필사본으로 尹承烈<sup>14)</sup>의 장서인이 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다산의 저작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 이 책 끝에는 다산의 제자인 尹峒의 발문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운동은 이 책의 저자를 분명하

13) 修綆室 소장본이다.

14) 미국 버클리대학의 아사미문고에도 윤승렬의 장서인이 있는 책이 있다. 본래 같은 집안에 수장되어 있던 책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흩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게 기록하지도 않고 단지 紫霞山房에서 編摩한 것이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둔사지』에는 제4권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草衣선사의 편집으로 되어 있다. 또 1927년에 『불교』37호에 실린 『대동선교고』에는 “玩虎尹佑 鑑定, 兒庵惠藏 留授, 袖龍曠性 草衣意洵 編輯, 騎魚慈弘 縞衣始悟 校正”으로 표기되어 있다.<sup>15)</sup> 그런가 하면 『海東佛報』1권<sup>16)</sup>에서는 紫霞山房이 누구의 별호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후 『海東佛報』8권에서는 「大東禪教考紫霞山房辨」을 실어 자하산방을 다산의 별호로 인정하고 있다.<sup>17)</sup> 그 근거로 『廣史』<sup>18)</sup>에 수록된 『대동선교고』를 들고 있으며, 紺泉 운동의 발문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운동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紺泉은 康津 橋亭 尹鍾洙氏의 별호이다. 이름을 峒이라고 한 것은 佛家 문자에 발문을 썼기 때문에 그 본명을 숨겨 당시 유림들의 譏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이 강진에 거처할 때 主人이었으며 또한 그의 제자였다. 그 때 다산이 集成한 글이 모두 300여권이었는데 2/3는 모두 紺泉 의 글씨였다. 대개 紫霞라는 호가 申緯의 별호이기도 했기 때문에 丁若鏞公에게는 별호 중의 별호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는 사람이 적다.<sup>19)</sup>

이후 다산이 紫霞山人이라는 호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산의 저작으

15) 『불교』37권(불교사, 1927)

16) 『해동불보』1권(해동불보사, 1940.01)

17) 『해동불보』8권(해동불보사, 1941.01)

18) 편자 미상의 野史집으로 10집 200책에 달하는 거질이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만 전하고 있다.

19) 국한문 혼용이므로 필자 임의로 표현을 고쳤다.



로 인정되어 『보유』<sup>20)</sup>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저자가 불분명한 저작의 경우 새로운 이본의 발굴은 저자를 확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5. 맺는말

지금까지 『여유당전서』 정보화 작업에 필요한 필사본 정리의 필요성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본 오사카(大阪) 府立도서관과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산 저작 몇 종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현재 다산의 저작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다. 모든 저작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시간과 금전의 낭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각 필사본들을 조사하여 교감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저작들을 선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각 저작의 표지 및 앞뒤쪽 몇 장씩을 사진 혹은 칼라복사를 통해 저작별로 정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국내외 주요 필사본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교감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저작들의 복사본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가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저작의 경우에도 완질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자들의 필적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듯이 다산 저작의 2/3가 운동의 글씨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운동의 글씨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다산 저작의 저술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산의 경우 자신의 저작에 대해 著 撰 輯 編 등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20) 다산학회 편, 『여유당전서보유』(1974, 경인문화사)

각각의 사본에 나타나는 표기 방식을 통해서도 고본의 근접한 저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감기校勘記\*

《여유당전서》에 대한 정보 연구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신조본의 오자나 탈자 등에 대한 교감이다. 정보 연구팀은 2012년 정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교감 작업의 일환으로써 교감 성과에 대한 교감기를 작성하여 고적의 교감정리에 대한 후속연구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감기는 교감 성과를 글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학술적 의미와 가치가 상당히 높다. 적절하고 간단명료한 교감기를 작성하면, 교정자가 이를 근거로 작업할 수 있고, 잘못 교정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 지를 알 수 있다. 교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 장단점을 조목별로 나누어 열거하는 작업을 통해 고적 교감정리에 대한 연구 성과 및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감기 작성은 교감 작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하나의 과정이라 하겠다.

\* 정보사업 연구팀 임흥태 연구원 정리

## ◎ 교감기 작성의 목적

교감기는 교감내용과 성과를 기록한 글로서 과거에는 이문(異文), 고이(考異), 변증(辨證) 또는 변오(辨誤)라고도 하였다.

교감·표점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①작자의 일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 ②저작 연대, 전파상황, 학술사상 및 후세에 대한 영향 ③판본원류체계 ④저본과 교정본의 선택 및 각 본이 가지고 있는 주요문제 ⑤교감본에서 인용한 자료 및 이전의 교감 성과에 대한 언급 ⑥교감의 체제와 원칙(오류가 있는 이문, 오류가 없는 이문, 시비를 판정하기 어려운 이문 등에 대한 처리방식 등을 포함하여) ⑦기타사항, 예를 들어 판본에 대한 간칭(簡稱) 또는 인용서의 간칭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교감후기에도 작자의 일생, 책이 쓰여진 연대, 전파상황, 판본원류, 학술적 평가, 사회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감기를 작성하는 목적으로는 첫째, 교정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여 교정본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으며, 둘째, 각 판본의 같고 다름을 명확하게 밝혀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분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 교감 방식과 교감기의 분야

### 1. 교감 방식

고적에 대한 교감을 끝마치면 일반적으로 교감·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독자들에게 본서의 대략적인 상황, 교감 근거와 출판 원칙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읽고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교감·표점의 위치는 책의 앞에 둘 수도 있고 뒤에 둘 수도 있다. 책의 앞부분에 두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감·표점 설명’ 혹은 ‘범례(凡例)’, ‘서언(敍言)’, ‘전언(前言)’ 등으로 명명하고, 책의 뒷 부분에 두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감후기’ 혹은 ‘발(跋)’이라 이른다.

교감방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교감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진선본의 원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감기를 작성하는 방법[留眞式]  
진귀한 고본이나 유일본을 교감할 때, 교감 대상이 문물 또는 문헌학적 가치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 원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행해지는 방법이다. 교감기의 처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별책으로 교감기를 작성한다.

#### 2) 이문(異文)을 비교하는 방식[校異式]

원문을 고치지 않고 그 정오(正誤)를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판본 및 다른 교정본의 이문(異文)을 교감기 가운데 상세하게 열거하는 교감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만 이문을 비교할 뿐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므로 제멋대로 고치는 폐단을 면할 수는 있어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교감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또한 일반 독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편함을 더할 뿐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 3) 저본의 원문을 고치지 않고 교감기에서 설명하는 방식[底本式]

원문을 고치지는 않으나 저본에서 발견되는 연문이나 탈문, 틀린 곳, 도치된 곳에 대해 교감기에서 설명하는 교감방식의 일종이다. 이러한 방식은 저본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멋대로 원문을 고치는 오류는 면할 수 있으나 독자들에게 가본(佳本)을 제공할 수는 없다.

#### 4) 저본의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설명하는 방식[定本式]

교감의 결과에 의하여 저본 가운데의 연문이나 탈문, 틀린 곳, 도치된 곳을 모두 고치고 여기에 교감기를 달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금의 교감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저본의 원상태를 보존할 수는 없지만 독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감기를 통해 고치는 이유를 밝히고, 또한 저본의 원래 글자를 보존하여 만일 교정이 틀렸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고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교감방식은 목적은 다르지만 각각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은 고본의 원래 모습을 상술하는 것으로 수집가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2)는 같은 책의 다른 저본에 있는 이문을 자세히 나열하여 이 부분의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3)은 저본을 고치지 않고 다만 잘못되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함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4)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교감을 통해 설명해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 2. 교감기의 분야

### 1) 본문에 따라 교감기를 붙이는 방법

이 방법은 다른 이본에 보이는 다른 문자와 어구를 본문의 뒤에 적어붙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본문과 교정한 문장이 혼동되기 쉬우므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 2)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

무릇 덧붙이거나 교정한 글자는 모두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원문과 뒤섞이지 않고 구분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여러 사람을 거쳐 베껴 쓰거나 조판 인쇄할 때 매우 불편하므로 뒷사람이 책을 교감할 때에는 이 방법을 거의 쓰지 않는다.

### 3) 본문의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교정한 글자를 덧붙이는 방법

이 방법은 원문을 직접 수정하고 교감기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뒷사람이 직접 수정한 곳에 원래 어떠한 글자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글자나 문구가 확실히 틀린 것이었는지 검토하여 대조할 수도 없으며, 복원시킬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책을 교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책 속에 교감기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본문 이외의 위치에 교감기를 써서 교정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방법은 저본의 원문과 교정한 문구나 어구

의 본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어 분석하고 판단하기에 편리하고, 또한 잘못 고친 부분이 발견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책 속에서의 교감기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책 말미에 두는 교감기: 이는 일반적으로 원서의 내용이 비교적 적거나 교감기가 많지 않은 고적에 적합하다. 이 방법을 쓸 때는 검색하기 편리하게 교정하는 글자(몇 쪽 몇 줄의 무슨 자)에 대해 상세히 주를 달고 그 위치를 표시한다.

(2) 매권의 끝에 두는 교감기: 교정하는 글자의 일련번호를 본문의 교정대상 일련번호와 같게 하여 찾기 편리하게 한다.

(3) 매 편의 끝에 두는 교감기

(4) 단락의 뒤에 두는 교감기: 근대의 교주(校注) 또는 주석(注釋) 등의 체제로 이루어진 책은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것은 교감과 주석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으니, 단락 뒤에 '교감(校勘)'과 '주석(注釋)'의 쪽수를 따로 두고 있다. 어떤 것은 교감과 주석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교감한 후에 주석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교감과 주석이 서로 섞여 있어 설명하기에 편리하다.

(5) 구절 뒤에 두는 교감기: 대부분 두 줄 또는 한 줄로 작은 글자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원서에 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감기는 원주의 뒤에 놓이며, 이때 교감기 앞에 '안(按)'이나 '안(案)' 등으로 표시한다.

(6) 단어 뒤에 두는 교감기: 잘못된 단어 뒤에 직접 교감기를 쓴다.

(7) 쪽수 말미에 두는 교감기: 이는 교감기를 해당 쪽수의 말미에 모아놓은 것으로, 현재 고적을 교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본문의 교감

할 해당 단어와 교감기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 (8) 책 쪽수의 위쪽 여백에 두는 교감기: 본문의 해당 줄 위쪽 여백에 교감기를 적는다.

이외에 단편으로 된 별도의 교감기는 교감기를 단독의 편으로 하여 원서와 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감기는 다만 교감기만 기록하고 원문은 기록하지 않는다.

## ☉ 교감기 작성 형식

1. 교감기를 작성함에 있어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저본(《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서는 신조본을 저본으로 삼는다)을 교정의 기본 근거로 삼는 것이다. 교정하고 주석하는 자[주석자]는 각종 저본과 교정본의 같고 다른 점을 참고하여 본문의 정오(正誤)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신조본의 내용과 다른 저본의 내용을 비교하여 신조본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에는 다른 선본의 내용에 따라 바로잡거나 첨삭한다. 또한 바로잡은 내용이나 첨삭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즉 “▲▲: 신조본에는 ‘--’로 되어 있으나 00본에 따라 바로잡는다.” 또는 “신조본에는 빠져 있으나 00본에 따라 보충한다”는 식으로 교정한 내용에 대해 주석한다.

2. 교감의 내용은 오자(誤字), 탈문(脫文), 자구가 서로 다른 경우, 문장이 도치된 경우 등 여러 방면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교감기 작성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

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1) 문자가 다를 때: 某: 一本에 ‘0’라고 되어 있다.(일반적으로 판본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 2) 문자가 빠져 있을 때: “0: 某本에는 0 밑에 △字가 있다.”
- 3) 衍文일 경우: 필사, 판각, 조판이 잘못되어 문장의 중간에 더 많이 들어간 글자나 글귀가 있을 때에는 “某本에는 某字가 없다” 혹은 “某字는 연문이므로 --본에 따라 생략한다.”
- 4) 문자의 순서가 바뀌었으나 의미가 통하는 경우에는 “某本の ‘△▽’두 글자는 서로 통한다.” 또는 “某本에는 --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문자의 순서가 바뀌어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 某本에는 ●●로 되어 있으나 某本에 따라 바로잡는다.”라고 처리한다.
- 5) 문자가 명백히 틀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某本에는 ●●로 되어 있으나 某本에 따라 바로잡는다”로 처리하고, 오류를 단정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某本에는 --로 되어 있다”로 처리한다.
- 6) 문구의 전후가 도치되었을 경우: “某本の 某句는 某句 밑에 있어야 한다”로 처리한다.

## ☉ 교감기 작성의 원칙과 방법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서는 다산 저작의 이본 명칭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조본은 ‘新朝本’, 3대 필사본 소장처인 규장각본은 ‘奎章本’, 장서각본은 ‘藏書

本', 국립중앙도서관본은 '國中本'으로 표시하며, 기타 국내외 소장본은 첨부된 약칭 일람표를 참고한다.

1. 교감의 목적과 분야의 차이로 인해 교감의 분량과 교감기 작성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작성한다.

- 1) 무릇 저본상의 글자가 오자, 탈자, 연문, 도치문 등의 경우에 속하여 그것을 수정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교감기를 작성한다.
- 2) 각 판본에 있는 이체자(異體字) 통가자(通假字) 고금자(古今字) 등에 대해서는 교감하지 않는다.
- 3) 비록 원문을 고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가차자나 이체자가 참고할 가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그 의미가 서로 통하거나 혹은 의미가 많이 달라서 다른 점을 밝혀야 하는 것에도 교감기를 작성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 4) 수정해야 할 문장이 너무 길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교감해야 할 글자나 문구를 적는다. 교감이나 훈고할 때 제시하는 자구에는 인용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교감기는 다만 교감과 관련된 글자 수만 제시하지 문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자구를 제시하고 뒤에 : 표시한 다음 한 칸 띄고 주석이나 교감기를 적는다. 제시하는 어구가 너무 길 때는 중간에 생략부호를 써서 처리한다.
- 5) 무릇 작자[정약용]가 원문에서 인용한 글이나 사실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작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문을 고치지 않는 대신 교감기를 작성하여 그 오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여유당전서》에서 경전(經傳) 및 고전적(古典籍)의 글을 인용하였거나 원전에 없는 자구를 덧붙인 경우, 저자인

다산(茶山)의 저술 의도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여유당전서》 원문대로 입력한다. 그러나 인용문의 자구가 문리(文理)와 문맥(文脈)에 비추어 오류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원전의 해당 문구를 찾아 대조 교감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교감주를 붙여 그 근거를 제시한다.

- 6) 무릇 작자가 본조(本朝)의 (옛날, 웃어른과 존경하는 사람의) 함자(銜字)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글자를 피한 것은 일률적으로 고치지 않고, 다만 교감기를 써서 설명한다.
- 7) 책을 교감하는 목적과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급용 저작의 교감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고, 연구용 저작의 교감은 자세하고 철저해야 한다.

## 2. 교감주의 형식

교감주의 형식은 신조본과 기타 이본의 정오(正誤)를 분명히 밝히고, 인용문의 경우 교감에 사용한 경전 및 고전적 원전의 이름을 자세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新朝本과 기타 이본 중 한쪽의 字句가 분명히 옳다고 판별한 경우, 인용문의 경우라도 원전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원전에 비추어 新朝本과 기타 이본 모두 틀렸을 경우에는 원전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다.
- 2) 인용문 원전의 이름은 書名과 篇名까지 밝혔다. 편명이 없을 경우는 卷次를 밝혔고, 『春秋』와 같은 편년체 역사서는 편명 대신 왕명과 재위년을 밝혔다.
- 3) 교감주에서 교감에 참조한 원전을 제시할 때, 13경과 같이 후대의 주석이 첨가되어 별도의 책이 이루어진 경우는 經文만 있는 原書와 주석이 첨가된 주

석서를 구분하였다. 즉, 『禮記』 經文을 참조한 경우는 교감주에 인용서명을 “『禮記』”라고 쓰고, 鄭玄의 注 또는 孔穎達의 疏를 참조한 경우는 교감주에 “『禮記注疏』”라고 썼다.

- 4) 誤字를 교감하였을 때는 교감주에서 “바로잡는다”라 하였고, 脫字를 교감하였을 때는 “보충한다”라 하였다.

이상의 방식을 참고하여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의 교감기는 아래와 같은 기본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한다. 이외의 예외적인 사항은 각 책의 특성에 따라 첨가하기로 한다.

- 1) 신조본의 내용이 명백히 틀렸을 경우: ▲▲: 新朝本에는 ●●로 되어 있으나 某本에 따라 바로잡는다.
- 2) 신조본의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 新朝本에는 빠져 있으나 某本에 따라 보충한다.
- 3) 자구가 다를 때, 신조본이 옳으면 원문대로 두고 주처리하지 않는다. 신조본이 틀렸을 경우, “▲▲: 新朝本에는 ●●로 되어 있으나 某本에 따라 바로잡는다.”라고 표시한다
- 4) 신조본과 이본의 자구가 서로 다르나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조본대로 처리하고 “▲▲: 某本에는 ●●로 되어 있다.”라고 표시한다.

이를 종합하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조본의 원문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조본대로 입력하고 교감주를 붙이지 않는다. 신조본의 원문이 틀리고 이본이 옳을 경우는 이본대로 바꾸고 교감주를 사용하여 근거를 밝힌다. 신조본과 이본의 정오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는 신조본대로 입력하고 교감주에서 이본의 글자를 명시한다.

# 관련 양식

〈관련 양식 ①〉

## 회의록

회의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회의장소				
참석자	성명	직책	성명	직책
회의 주제 (구체적으로 명기)				
회의 내용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    (인)

확인 자    : 연구책임자    (인)

다산학술문화재단 연구지원실장 귀하

〈관련 양식 ②〉

## 감수결과 의견문

\* 본 자료는 가정본의 교열상태를 파악하고, 정본 출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세부항목을 중시하여 감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목 및 총평	세부항목	주요내용
표점·교감 부분	이본 대조의 성실도	저본(底本: 新朝鮮社本)과 이본(異本)의 대조가 얼마나 꼼꼼히 진행되었습니까?
	원전 검색의 성실도	《여유당전서》에 인용된 고전 원문을 성실히 찾아내고, 그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대조하였습니까?
	교감주 표기의 명확도	이본과 원전의 교감내용을 표준범례안에 따라 교감주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까?
	표점·부호의 적절도	본문에 사용된 표점과 문장부호는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습니까?
	이상의 항목에서 수정·보완할 점 (총평)	이상 4항목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표점·교감의 보완점	이상의 항목 외에 교감·교열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래의 내용은 장차 정본 『여유당전서』를 재편집하여 출판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래 내용에 관련하여 생각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집약하여 정본의 교감·교열·감수에 활용하고, 장차 정본의 출판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편집·형식 부분	편집 체제의 적절도	본문의 편집 형태는 자료의 성격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해제 내용의 정확도	해제의 내용은 자료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범례 내용의 적절도	이 책의 범례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편집 내용의 보완점	이상 세 항목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본 출간을 위한 향후 과제	편집 형태	정본 출간을 할 때, 책판크기·서체·글씨크기·인쇄상태 등 책 형태에 있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타	이밖에 정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자료: 定本《與猶堂全書》-《해당서명 기입》(假定本) -

감 수 자: 해당성명 기입 (인)



〈관련 양식 ③〉

신조본 대조작업 결과보고서

문서명	
문서분량	글자수: 면수:
작업자	
작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오류 내용 및 특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입력 오류</li> <li>- 세주본문 혼동</li> <li>- 글자, 기호누락</li> <li>- 글자, 기호추가</li> <li>- 각주 오류</li> <li>- 기타(오식 자형 변형)</li> </ul>

〈관련 양식 ④〉

신조본 대조작업 평가보고서

문서명	
문서분량	
작업자	
작업기간	
입력 자료 평가	
대조 작업 표본 평가자	
표본 평가 결과 및 특이 사항	
등급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C : 70점 이상. C 등급은 재 대조, C 등급 이하는 대조비 환수)

〈政法集-경세유표 필사본 정리카드〉

✎ 작 성 자

✎ 작성일시 ; 2005. 11. 25(금) / 06.07. 03(월) / 06. 08. 09(수)

분류번호		(한)-정법-경세-03-규장각			
소 장	현소장처	규장각	청구 번호	古 5120 171 1/14	
	소장경위	1910년 朝鮮總督府에서 관리하던 도서가 1911년 朝鮮總督府取調局으로 관할업무가 이관되어 보관되었다가, 1928년에 京城帝國大學으로 옮겨졌다. 해방이후에 1946년에 서울大學校가 설립되면서 현재 규장각에서 관리 중인 자료임.			
서 명	표지제	與猶堂集[經世遺表]-[邦禮草本一三]			
	권수제	經世遺表卷之			
	판심제	없음			
저 자	저자명	負累[臣] 丁鏞			
	저작형태	撰			
간 사	간사처				
	간사지				
	간사년도				
책 지	표지색상	황토색(0)청색(0)흑색( )살색( )기타( )			
	표지문양	군字紋( )菱花紋( )蓮花紋( )七寶紋( )其他( )			
	지질	楮紙(0)綿紙( )竹紙( )洋紙( )其他( )			
형 태	판 면	총권수	42卷14册(零本)	선장	4선장
		행자수	10행 22자	삽 도	있음
		책크기	24×15.5	반곽크기	
		보관상태	완(0) / 결·부식; 상( )하( )좌( )우( )중앙( )		
		낙장		결락	卷39-40(1册)缺

판 중	판본	필사본-稿本( )手稿本( )傳寫本(0)			
	필사인	1인( ) 2인(0) 3인 이상(0)			
	판 식	반곽형태	사주쌍변	계선	유계(0)무계( )
		印格	남사란( )오사란( )주사란( )	寫格	남사란( )오사란(0)주사란( )
		판구형태	대흑구( )소흑구( )없음(0)		
		어미형태	없음		
어미색상		없음			
인 장	위치(총수/ 크기)	앞표지뒷면, 邦禮草本引, 목차, 본문 상단(1/ 5.5×5.5)			
	모양(인문/ 서체)	방형(京城帝國大學圖書章/전서)			
	특징	1책에는 앞표지뒷면과 리에 2책에는 앞표지뒷면과 목차에, 나머지는 앞표지뒷면과 본문에 각각 인장이 있다. 그리고 앞표지 뒷면에 있는 인장의 하단에는 소장처 도서번호(209027~209040)가 있다.			
표 기	문자	한문(0) 한글( ) 국·한문( ) 기타( )	크기	대( )중(0)소( )	
	종류	초서( ) 행서( ) 행·초서( ) 예서(0)	색상	흑색(0)적색( )남색( )	
	주종류	문장주(0) 두주(0) 변주( ) 미주( )	주형태	단행( )쌍행(0)	
	원소장자 (책주)기록	권두			
본문					
권미					

내용	권두	<p>▶표지; 표제명은 大字로 '與猶堂集[經世遺表]一'로 되어 있고, 우측상단에는 부제명이 '邦禮艸本一二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측하단에는 소장처의 청구번호가 적힌 종이(古5120 171 1/14)가 붙어 있다. 장정은 흰색의 두꺼운 실로 새로 하였다.</p> <p>▶서문; 첫칸은 내림자 없이 '邦禮艸本引'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칸에는 내용전체를 1자 내려 썼으나, 왕명에 해당하는 글자(孝宗大王, 英宗大王, 二祖)는 행간을 바꾸어 내림자 없이 쓰고 있다.</p> <p>▶목차; 첫칸은 내림자 없이 '經世遺表序官目次'로 시작되며, 한 칸을 비우고 3칸부터 내용을 기술하였다. 3칸에는 2자를 내려서 '議政府在六曹之上'이라 하였고, 4칸에는 1자를 내려서 부제명과 순서(天官吏曹第一)를 이어서 적었다. 그리고 부제명 안의 소재목 전체는 2자 내려서 2단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그 아래에는 주형태로 해당관청의 별칭이나 특기사항을 부기하였다.</p>
	본문	<p>▶권수제(1칸); 내림자 없이 권수제(經世遺表卷之一)를 적었다.</p> <p>▶저자명(2칸); 하단에는 저자명(負累臣 丁鏞 撰)을 적었다.</p> <p>▶부제명(3칸); 3자를 내려서 부제명과 순서(天官吏曹第一)를 적었다.</p> <p>▶본문서술형태(4칸); 본문내용 전체는 내림자 없이 썼으나, 왕명에 해당하는 글자(祖, 王)는 행을 바꿔서 기술하였고, 행간에서 國, 命과 같은 글자 앞에서는 격일자하여 높여 쓰고 있다. 그리고 본문내용에 관한 부연설명은 謹案으로 시작하고 내용전체를 1자 내려 썼다.</p>
	권미	<p>발문; 뒷 표지;</p>
참고사항	<p>○ 서체는 좌우행렬에 맞게 쓴 예서체로 부드럽고 반듯한 느낌을 주며, 추사체에서 보이는 예술미가 담겨 있다. 필획의 두께와 곡선의 처리가 자유로와 전문적인 필사자의 서체로 보인다.</p> <p>○ 기호의 사용; 본문의 행간에는 'ㅇ'로 관주를 표시하였고, 수정한 글자에는 '엷은 종이'가 붙어 있다.</p> <p>○ 기타정보; 『辭源』의 '負累'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다산이 쓴 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辭源』에서는 '負累'를 "無罪而蒙受惡名 史記八三鄒陽傳: "鄒陽客游, 以讒見禽, 恐死而負累." 正義: "諸不以罪爲累" 按負累, 謂其罪不白, 將永負惡名"이라 하여 '죄없이 악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는 뜻과 '죄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악명을 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p>	

참고사항	○ 규장각 도서검색-상세정보
	판사항 稿本.
	발행사항 [刊地未詳]: [刊者未詳], [純祖年間(1800-1834)]
	형태사항 14冊(零本); 24×15.5 cm.
	일반사항 표지서명: 與猶堂集./ 규장각소장: 卷 39-40(1冊)缺.
	마이크로필름 M/F84-16-217-A
	주제명 史部 -- 政法類 -- 通制
	도서상태 / 번호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기한 청구기호 / 순서
	1 10900209027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邦禮艸本一二三/邦禮艸本引, 經世遺表序官目次, 天吏吏曹第一, 地官戶曹第二, 春官禮曹第三
	2 10900209028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邦禮艸本四五六/經世遺表序官目次, 夏官兵曹第四, 秋官刑曹第五, 冬官工曹第六
	3 10900209029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邦禮艸本七八九/天官修制 東班官階(西班牙官階), 天官修制 三班官階, 經世遺表卷之九
4 10900209030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郡縣分等, 考績之法/天官修制 郡縣分等, 天官修制 考績之法	
5 10900209031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田制一二三/地官修制 田制一, 地官修制 田制二, 地官修制 田制三	
6 10900209032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田制四五六/地官修制 田制四, 地官修制 田制五, 地官修制 田制考六	
7 10900209033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田制七八九/地官修制 田制七, 地官修制 田制八, 地官修制 田制九	
8 10900209034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田制十一十二/地官修制 田制十, 地官修制 田制十一, 地官修制 田制十二,	
9 10900209035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結負考辨, 量田考, 方田始末, 魚鱗圖說/地官修制 田制別考一, 地官修制 田制別考二, 地官修制 田制別考三	
10 10900209036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邦禮艸本, 賦貢一二三/地官修制 賦貢制一, 地官修制 賦貢制二, 地官修制 賦貢制三	
11 10900209037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邦禮艸本, 賦貢四五六七/地官修制 賦貢制四, 地官修制 賦貢制五, 地官修制 賦貢制六, 地官修制 賦貢制七	

12 10900209038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倉廩之儲一二三/ 地官修制 倉廩之儲一,地官修制 倉廩之儲二,地官修制 倉廩之儲三
13 10900209039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均役追議,船廠論,戰船議/均役事目追議 海稅,魚稅,藿稅,鹽稅,均役事目追議 船稅,總論, 戰船使用議附
14 10900209040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대출불가 古 5120 171 00 科擧法,治選法,武科式/春官修制 科擧之規一,春官修制 科擧之規二,夏官修制 武科
[참고내용: (한)-정법-경제-05-규장각(奎 7090 1/16) 결락내용]
15册 20100005749 규장각 규장각서고 대출불가 奎 7090 00 地官修制,戶籍,教民之法/ 地官修制 戶籍法,王宮朝市部遂坊區之圖,地官修制 教民之法

○ 친필유묵 정리카드 (샘플)

✎ 작성자; 기초조사연구부

✎ 작성일시; 2010.06

자료명	逍遙園書几敬復					비고란	
분류	형식분류	간찰					
	내용분류						
신조본 수록 여부	수록되지 않음	진위여부	정약용 친필 저작				
사진 정보	번호						
	수량	1					
소장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명	정약용 (1762~1836)				
		청구기호	없음				
작성연도	乙酉	작성연월일	正月 廿六日	나이	64		
	1825		1월 26일				
인물	발신자	신분					
		호칭	若鏞 頓首				
		인물명	정약용(丁若鏞)				
		작성지역					
	수신자	신분					
		호칭	逍遙園 (소요원주인 李光壽 (자는 景社)에게 보내는 편지)				
		인물명	이광수(李光壽)				
		작성지역					

형태사항	재질	紙		크기 (세*가)	29.0×79.4		
	장정	납장/접련/합철/ 첩장/축장		삽도	無		
	봉투	유무	크기	별지	無		
		無					
	보관상태	완/결·부식/상/하/좌/우/중양/					
	인장	개수	형태	색깔	크기	인장글씨	
0							
수결	착명	서압	수촌	수장	착관	기타	
표기	문자	한자/한글/ 국·한문/기타		크기	대/중/소		
	종류	초서/행서/ 행·초서/예서		색상	흑색/적색		
탈초	逍遙園 書几敬復。 耿耿勞思，常欲相見，卽奉惠書， 恭審新春，起居住勝，深慰此心。 自古止酒斷色者，或有之， 每因懷祿味宦，不然折節讀書， 玩易研禮者，或能之， 未有如賢，仍於牢騷崎嶇臨汎遊 覽之中，截然却杯觴絕諧謔， 端飭和平，復其天理者。 每春州人來，輒問敬之尙止酒否？ 及聞其無改，未嘗不引領欽歎， 賢深居，何由悉達此至意也， 鋪年數，與八八重畫之卦相等， 衰朽羸困，無復餘地，委頓如冥漠， 君無足相報者。 立夏，欲理漁舟，更圖穿貂， 想未易遂意，想未易遂意，姑不詳言耳。 示意，適有隣人在華幕，故有所言，今春無科， 且當忍住奈何？'山水綠齋'上屋脊梁，宜用竹竿，欲得之否？ 得此，則今秋肉芝能南來 否？好笑。餘付擗口，不宣 略謝。若鋪頓首。 乙酉正月廿六日					참고문헌	
						『다산시문집』 제 22권 잡평(雜評) 산행일기(山行 日記) * 참고자료 다산시문집 제13권 기(記) 소요원기(逍遙 園記) 다산시문집 제22권 잡평(雜評) 산행일기(山行 日記)	
관련 시기 사건							

7장

## 정본사업 참여자

- 총괄 책임: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
- 연구 책임: 송재소
- 출간 책임: 김태영
- 편집운영위원회
  - 위원장: 송재소(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 위원: 이지형(전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김태영(경희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금장태(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이광호(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 김연중(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과 교수)
    - 방인(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 조성을(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심경호(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장동우(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주행(다산학술문화재단)

○ 연구참여자 (가나다 순)

권태욱, 김대원, 김만일, 김언중, 금장태, 김문식, 김언중, 김영우, 김태영, 노경희, 박인호, 박종천, 박철상, 방인, 백정의, 손흥철, 송재소, 심경호, 안병직, 양보경, 요대용, 이광호, 이봉규, 이상필, 이원택, 이정섭, 이종일, 이주행, 이지형, 임재완, 장동우, 장정욱, 정공식, 조성을, 황병기(총 35인)

○ 행정업무 참여자

강주성, 이정철, 최광승, 김성은, 백대웅, 이민정, 이승우

○ 서목별 연구 참여자

책번호	서명	책임 연구	감수	연구 실무자	
				책임교열	기초조사
1	詩集	沈慶昊	宋載邵	손흥철 임흥태 김선주 이태희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노요한
2~4	文集	沈慶昊	金彦鍾	손흥철 임흥태 김선주 이태희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노요한
5	雜纂集	沈慶昊	金彦鍾	손흥철 임흥태 김선주 이태희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노요한
6	大學公議 외	李光虎	宋載邵	황병기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7	孟子要議	李旣衡	宋載邵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8~9	論語古今注	李旣衡	金彦鍾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10	詩經講義	金彦鍾	沈慶昊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11~12	尙書古訓	金彦鍾 林在完	金文植	임흥태 김선주 순남숙 유연석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13	梅氏書平	李旣衡	金萬鎰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14	春秋考徵	琴章泰 朴鍾天	李光虎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이대승
15~16	周易四箋	方仁	黃炳起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미옥 이대승
17	易學緒言	方仁 張正郁	金永友	임흥태 김선주 유연석 순남숙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이대승
18~20	喪禮四箋	張東宇 朴鍾天	朴鍾天 張東宇	임흥태 김선주 유연석 순남숙 김경미 전성진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박찬성
21	喪禮外編	朴鍾天	張東宇	손흥철 임흥태 김선주 유연석 순남숙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이대승
22	喪儀節要 외	朴鍾天	張東宇	임흥태 김선주 유연석 순남숙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이대승
23	樂書孤存	權泰旭	李相弼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24~26	經世遺表	金泰永	李俸珪 李元澤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27~29	牧民心書	李柱幸 孫興徹	李相弼 安秉直	임흥태 김선주 박지운 박승원 강지희 유연석 전현희 서대원 임부연 강필선 김대중 조미옥	김보름 조한륜 박찬성 최여원 김현진 김정철
30~31	欽欽新書	李鍾日	鄭肯植	임흥태 김선주 유연석 순남숙 김경미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32	我邦疆域考	趙誠乙	朴仁鎬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김선주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33	大東水經	楊普景	趙誠乙	임흥태 김선주 박지운 박승원 강지희 유연석 전현희 서대원 임부연 강필선 김대중 전성진	김보름 조한륜 박찬성 최여원 김현진 김정철 황성근
34	麻科會通	金大源	白貞義	손흥철 임흥태 이태희 김선주	박지운 김보름 조한륜 조미옥
35~37	補遺	金彦鍾	李廷燮 姚大勇	요대용 임흥태 김선주 박지운 박승원 강지희 유연석 전현희 서대원 임부연 강필선 김대중	김보름 조한륜 박찬성 최여원 김현진 김정철

○ 출간사업 참여자

사업내용		참여자
출간진행		박승원, 송상형, 김준우
보완 연구	표점	임홍태
	교감	이주행, 이대승
신조본 대조작업		김남중, 김선배, 김정철, 김준우, 김현진, 김혜선, 박승원, 박찬성, 신재훈, 안승권, 윤혜민, 이대승, 최선자, 최여원 (가나다 순)
『다산 간찰집』 출간	책임연구	박철상
	보조연구	김보름, 백승호, 조한륜
	진행	이주행
출간편집		소나무(유재현, 백대웅 외)

8장

# 연구논문 목록

○ 필사본 및 정본 체제 관련 연구 논문

연도	학회지/서명	권호	제목	저자
1985	정다산 연구의 현황		『목민심서』 考異 (민음사)	안병직
2004	다산학	5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경집(經集) 체제의 검토	김문식
2005	다산학	7호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경집(經集)을 중심으로	장동우
2006	다산학	9호	『여유당전서보유』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하여(上)	김언중
2006	다산학	9호	일본 소재 정약용(丁若鏞) 필사본의 소장 현황과 서지적(書誌的) 특징	노경희
2007	다산학	10호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필사본의 원문 비교	김문식
2007	다산학	10호	『경세유표(經世遺表)』의 문헌학적 제문제: 성립과정과 저술시기 중심으로-	조성을
2007	다산학	10호	특별기고 : 『여유당전서보유』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하여 (中)	김언중
2007	다산학	11호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하여(下)	김언중
2007	다산학	11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문집 정본 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시편(詩篇)의 계년(繫年) 방법을 중심으로	심경호
2007	다산학	11호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표감(標勘)·교열(校閱) 표준범례안(標準範例案)	범레기
2008	다산학	12호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박종천
2008	다산학	13호	『다산여황상서간첩(茶山與黃裳書簡帖)』의 내용과 자료가치	정민

2008	다산학	13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의 문헌학적 검토	조성을
2009	다산학	14호	『주역사전(周易四筮)』의 텍스트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정고본(定稿本) 및 신조본(新朝本)의 저본(底本)을 찾기 위한 시론	방인
2009	다산학	14호	다산(茶山)의 『이담속찬(耳談續纂)』 편찬 과정에 대하여	임미정
2009	다산학	15호	『여유당전서』 “경집(經集)” 필사본에 관한 고찰: 규장각본과 아사미문고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동우
2010	다산학	17호	단국대본 『주역사전』 연구: 정고본 및 신조본의 저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시론	방인
2010	다산학	17호	다산(茶山) 저술 “고본(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노경희
2011	다산학	18호	전통적인 인문 개념과 정약용의 공부법	임형택
2011	다산학	18호	필사본 『경세유표』에 대한 서지적 검토	안병직
2011	다산학	18호	“여유당집”의 성립에 관한 고찰	김보름
2011	다산학	18호	『이담속찬』의 이본 연구	임미정
2012	다산학	20호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박종천
2012	한문학보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매씨서평』의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김보름
2012	한문학연구	50호	茶山 저술의 전승과 유통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茶山家藏의 稿本에서 『與猶堂全書』에 이르기까지	노경희
2013	다산학	23호	다산 저작 고본稿本의 제문제	박철상
2013	다산학	23호	다산 정약용의 『상서尙書』 주석사 계열 고찰	김문식
2013	다산학	23호	다산 정약용 산문의 저술시기 고찰	심경호
2013	다산학	23호	다산의 『논어』 주석서 전승에 대한 연구	박종천
2013	다산학	23호	『아언각비雅言覺非』의 이본異本과 유전遺傳	노경희
2013	다산학	23호	다산의 『채파유의菜笮遺意』 연구	임미정

9장

#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탄신 250주년이 되는 임진년壬辰年 세말歲末에 우리 학계의 오랜 숙원이던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발간되었습니다. 정말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는 총 37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산 선생의 방대한 저술을 처음으로 활자화한 신조본新朝鮮社本 《여유당전서》 154권 76책을 저본으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교감校勘하고 표점標點을 붙이는 한편 현대적 편집 체제를 입혀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 총 34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1975, 전5권)에 수록된 자료들을 선별하고 교감「표점작업을 거친 것이 3책으로 보완되어 모두 37책의 『정본 여유당전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조사된 《여유당전서》 및 《여유당전서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간찰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별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대의 석학들이 온 힘을 모아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것이 지난至難했던 한 시대에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 문화의 긍지를 되살려 준 “조선출판계의 금자탑”이었다면, 이제 그로부터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뜻을 모아 『정본 여유당전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21세기 문명적 전환기에 세계 인문학을 향하여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8년 말 민간차원의 다산학 연구지원 기관으로 발족한 다산학술문화재단(茶山學術文化財團)이 채 자리도 잡지 못했음에도 2002년부터 《여유당전서》 정본화(定本化) 사업에 뛰어든 것은 큰 모험이자 힘에 겨운 도전이었다고 회고됩니다. 정보화의 시의성을 절감하는 학술계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500만 자에 이르는 대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교감을 위한 필사본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재정적 난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평생 다산학(茶山學)에 매진해 오신 이지형·김태영·송재소 교수를 비롯한 많은 원로 교수들께서 희생적으로 동참하여 지도적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책임연구자 및 전임연구자, 300여 종에 이르는 국내외 필사본들을 찾아서 제공해 준 연구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사업에 헌신해주셨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4년부터 8개년에 걸쳐 정보화사업을 물심양면으로 꾸준히 지도·지원해 주셨으며 마지막 출간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업 후반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SBS문화재단의 재정적 지원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편집과 제작을 위해 책임을 다해 준 ‘소나무 출판사’ 여러분의 뒷받침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참으로 정부·민간·학술·출판계의 온 정성과 열정이 이룩해 낸 귀중한 결실입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그간 본 학술사업에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운영의 경험, 전문연구 인력의 축적 등은 우리 학술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다산학(茶山學) 및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질정(正)과 꾸준한 점검을 통하여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전산화와 웹서비스를 통해 용이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 또한 약속드립니다.

이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정 해 창

## 『정본 여유당전서』 해제

송재소宋載邵  
정본사업연구책임자

## 1. 신조본

《여유당전서》는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저작집이다. 다산 사후에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저술들이 처음으로 완간된 것은 1938년이였다. 1936년의 다산 선생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34년부터 간행에 착수하여 1938년에 완간되었다. 5개년에 걸친 이 간행 사업은 다산의 외현손外玄孫 김성진金誠鎭이 편집하고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두 분의 교열을 거쳐 154권 76책의 연활자本鉛活字本으로 완성되었다. 발행처는 신조선사新朝鮮社이다.

다산의 저작집은 그동안 《여유당집與猶堂集》, 《열수전서洌水全書》 등의 이름으로 불려 오다가 신조본의 간행을 계기로 《여유당전서》로 통칭되고 있다. ‘여유당’은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 생가의 당호堂號이다. 신조본이 출간되기 이전에도 《목민심서牧民心書》(1902년), 《흠흠신서欽欽新書》(1908년), 《경세유표經

世遺表》(1914년) 등 다산의 저술들이 개별적으로 출간되기도 했지만 전집의 형태로 묶여서 출간된 것은 신조본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조본이 출간됨으로써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다산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60년에 문헌편찬위원회에서 《민보의民堡議》를 추가하여 신조본을 4책으로 축쇄영인縮刷影印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를 출간하였고, 1969년에는 경인문화사에서 신조본을 다시 6책으로 축쇄 영인한 바 있으며, 1985년에는 여강출판사에서 신조본을 실물대實物大의 크기로 영인하여 20책을 출간하였다. 그동안 이 신조본을 저본으로 하여 2,000편이 넘는 학술 논문과 300여 편의 석·박사 논문, 그리고 100여 권의 연구 저서가 출간되었으니 신조본이 기여한 공功이 실로 크다고 하겠다.

## 2. 『정본 여유당전서』

신조본은 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식자植字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오·탈자가 수없이 발견되었고, 다산의 저작이 아닌 글이 잘못 수록되기도 했다. 또한 《민보의》와 같이 널리 알려진 다산의 저술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시집詩集의 경우에는 1819년부터 1836년까지 시의 저작 연도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착종錯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이로 출간된 책이 지닌 숙명적인 한계라 여겨지지만, 이 밖에도 신조본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여유당전서》 정본화定本化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조본 출간 당시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다산의 저작들이 이후 꾸

준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신조본 간행 이래 새로 발굴한 저술들을 모아 영인影印한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5책이 1975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다산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산의 저술로 판단하기에 의심스러운 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조본이 출간된 지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조심스럽게 정보사업에 착수하였다. 마침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편집 체제는 신조본을 따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조본의 체제는 다산이 〈자찬묘지명〉에서 스스로 밝힌 저술 목록의 체제와 다르다. 그래서 학계 일각에서는 〈자찬묘지명〉의 체제대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자찬묘지명〉에는 경집經集 232권, 시詩 6권, 잡문雜文 60권, 잡찬雜纂 260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신조본은 이를 해체하여 시문집 25권, 경집 48권, 예집禮集 24권, 악집樂集 4권, 정법집政法集 39권, 지리지地理集 8권, 의학집醫學集 6권의 순서로 재구성하여 7집 154권의 형태로 편집하였다. 우리는 신조본의 체제를 따를 것인지, 〈자찬묘지명〉의 체제에 따라 편차를 완전히 바꿀 것인지를 두고 여러 번의 회의와 원로 학자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신조본의 체제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신조본을 편집하고 교열하신 분들이 〈자찬묘지명〉을 읽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 체제를 따르지 않고 편집 체제를 바꾼 데에는 선학先學들의 심려深慮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당전서보유》도 수록된 저술의 진위眞僞 여부를 정밀하게 고증하여 별권別卷으로 묶었다.

둘째, 교감校勘 작업을 통하여 신조본의 오「탈」자를 가능한 한 바로잡았다. 식자公植字工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탈」자 이외에도 한 단락이 누락된 부분이나 순서가 뒤바뀐 부분 등을 바로잡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300여 종이 넘는 각종 필사본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교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려 하였다.

셋째, 한자·한문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표점標點 작업을 가하였다. 기본적인 마침표와 쉼표 이외에도 인명·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 대화나 인용문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 13개의 부호를 사용했는데, 표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부호를 선정하고 그 용법을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한문 문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점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재단에서 수집하여 정리한 신조본과 《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친필·유묵을 탈초·표점하여 간단한 해제를 덧붙여 별책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서 다산의 저작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재구성해 보려는 일념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표점·교감을 담당할 전문 학자와 재단의 전임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보조 연구원 및 출판의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총 80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집운영회의와 자체 워크숍만 해도 30회 이상 개최되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은 《여유당전서》의 분량이 워낙 방대한 탓도 있지만, 행여 다산 선생의 저술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전 37책의 『정본 여유당전서』가 탄생하였다. 그 전체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번호	서명		번호	서명
1책	시집詩集		18책	상례사전喪禮四箋 I
2책	문집文集 I		19책	상례사전喪禮四箋 II
3책	문집文集 II		20책	상례사전喪禮四箋 III
4책	문집文集 III		21책	상례외편喪禮外編
5책	잡찬집 雜纂集	문헌비고간오 文獻備考刊誤	22책	상의절요喪儀節要
		아언각비雅言覺非		제례고정祭禮考定
		이담속찬耳談續纂		가례작의嘉禮酌義
		소학주관小學珠串		예의문답禮疑問答
6책	대학공의大學公議			풍수집의風水集議
	대학강의大學講義		23책	악서고존樂書孤存
	소학지언小學枝言		24책	경세유표經世遺表 I
	심경밀험心經密驗		25책	경세유표經世遺表 II
	중용자잠中庸自箴		26책	경세유표經世遺表 III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27책	목민심서牧民心書 I
7책	맹자요의孟子要義		28책	목민심서牧民心書 II
8책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I		29책	목민심서牧民心書 III
9책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II		30책	흠흠신서欽欽新書 I
10책	시경강의詩經講義		31책	흠흠신서欽欽新書 II
11책	상서고훈尙書古訓 I		32책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12책	상서고훈尙書古訓 II		33책	대동수경大東水經
13책	매씨서평梅氏書平		34책	마과회통麻科會通
14책	춘추고징春秋考徵			
15책	주역사전周易四箋 I		35책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I

16책	주역사전周易四箋 II	36책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II
17책	역학서언易學緒言	37책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III

### 3. 다산의 시대와 생애

다산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조선왕조의 봉건적 병폐가 누적되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조선 사회는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하강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집권층 내부의 격렬한 권력투쟁의 결과 살아남은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사상적으로도 권위주의화한 주자학朱子學이 교조적教條的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어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과 민족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실학자들이다. 그리고 다산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였다.

다산은 1762년(영조 38)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부친 정재원丁載遠과 모친 해남윤씨 海南尹氏 사이의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다산은 어렸을 때부터 자질이 영특하여 10세 이전에 이미 《삼미자집三眉子集》이라는 시문집을 남겼다고 한다. 16세에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를 처음으로 읽고 평생 성호를 사숙私淑했다.

22세(정조 7) 때 과거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했는데, 이것이 정조와 다산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다. 28세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다산은 정조의 총애 속에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유능한 청년 관료로서 촉망을 받았다.

31세 때는 수원성 축조에 활차滑車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경비를 절약케 하여 정조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러나 34세 때에는 서학西學(천주교天主教)을 신봉한다는 반대파들의 모함으로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잠시 좌천되기도 하였다. 36세에 반대파들의 모함이 더욱 심해지자 이른바 <자명소自明疏>를 올리고 사직하려 하였으나 정조는 그를 곡산도호부사谷山都護府使로 내보냈다. 곡산부사로 재직한 2년여 동안 그는 많은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때 겪은 일선 지방관으로서의 경험이 후일 그가 《목민심서》를 집필하는 데 커다란 자본이 되었다.

38세에 다시 내직으로 돌아왔으나 점차 신변의 위협을 느껴 39세 되는 해 봄에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처자와 함께 낙향하였다. 그리고 거처하는 집을 ‘여유당與猶堂’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해(1800년) 6월 28일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다산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1801년의 신유옥사辛酉獄事로 수많은 남인 학자들이 화를 당했는데, 이때 다산의 셋째 형 정약종丁若鍾은 사형을 당하였고,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은 신지도로, 다산은 장기長鬐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이른바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 사건으로 정약전은 흑산도에, 그는 강진에 이배移配되었다. 처음에는 강진읍 주막 등에 거처하다가 1808년(47세) 다산茶山の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때부터 호號를 ‘다산’으로 불렀다. 그는 1818년 해배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는 18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실로 정력적인 저술 작업에 몰두했다. 사실상 다산의 주요한 저술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집필되었거나 구상된 것이다. 다산은 어쩔 수 없는 유배지를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한 셈이다. 특히 경세학經世學과 더불어 다산사상의 두 축을 이루는 경학經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818년(순조 18) 57세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술 작업을 계속하다가 1836년(현종 2) 7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 4. 다산사상의 개요

다산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음악,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그러므로 다산의 학문은 넓고도 깊다. 이렇게 호한한 다산사상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 1) 철학사상哲學思想

다산의 철학은 당시의 주류사상이었던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한다. 성리학은 주로 철학적 제문제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우리나라 중세기의 성리학은 단순히 철학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군림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리학에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우선 리理의 실제성을 부정한다. 무형의 추상물인 리가 현상의 존재근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서도 그는 성즉리性卽理 자체를 부정하고 성성이 기호嗜好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허하고 비생산적인 이기심성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윤리관도 철저히 실천적인 성격을 띤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인仁의 기氣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이러한 탈성리학적 사상은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등의 경전 주석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고 시문집의 <오학론五學論>과 서간문 등에서도 살필 수 있다.

## 2) 정경사상 政經思想

다산의 정치·경제사상의 핵심은 개혁사상이다. 그는 당시 사회를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로 진단하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개혁안을 담은 대표적인 저술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인데, 《경세유표》는 당시의 법질서를 초월한 국가기구 전반에 걸친 개혁의 청사진이고, 《목민심서》는 법질서 안에서의 지방 행정에 대한 개혁안이다. 다산의 개혁안은 제도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 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지제도의 개혁인데, 초기에는 급진적인 여전론閭田論을 제시하였으나 후에는 정전제井田制로 수정하였다.

토지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는 당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환곡還穀과 군포軍布의 개혁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봉건 지배층의 기반을 강화·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분제도와 과거제도도 중요한 개혁 대상이었다.

천자天子는 대중이 추대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천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탕론湯論>과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백성이 통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백성의 필요에 의해 통치자를 선출하였기 때문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밝힌 <원목原牧> 등의 글에서 우리는 다산 정치철학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 3) 문학사상

다산은 2,500여 수의 시를 남긴 뛰어난 시인이기도 하다. 다산시의 특징은 강렬한 비판의식을 담은 사회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시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들이 날날이 고발되어 있다. 잘못된 사회제도가 백성을 어떻게 멍들게 하며,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강한 민족주체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 다산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비록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시를 쓰지만 그는 중화주의의 절대적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는 “나는 본래 조선사람, 조선시朝鮮詩 즐겨 쓰리”라 하여 ‘조선시’를 쓰겠다고 선언하였다. 그가 말한 조선시는 조선사람이 조선땅에서 조선사람의 정서를 조선식으로 노래한 시를 뜻한다. 실제로 그는 시에서 우리나라의 고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토속어土俗語를 한자화하여 시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학을 중국 문학의 주변 문학 정도로 여겼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다산의 작업은 매우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과학사상

다산은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과학적 자세는 사고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산은 일체의 비합리적인 것을 배척하였다.

그는 손목의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하는 진맥법診脈法의 부정확성을 설파하였고, 얼굴 모양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관상법을 배격하였으며, 풍수지리설 또한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는 풍수설을 가리켜 “아, 이야말로 꿈속에서 꿈꾸고 속이는 속에서 또 속이는 연극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인과 사람의 눈의 근시와 원시 현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제가朴齊家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종두법種痘法을 연구하여 보급한 전말을 기록한 <종두설種痘說>, 불후의 의서醫書인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을 통하여 의학자로서의 다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다산의 자연과학적 업적이 근대과학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상당 부분은 서양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사물을 관찰하는 그의

합리적 사고는 철저한 바가 있다.

#### 5) 기타

편의상 ‘기타’의 항목에 묶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다. 그만큼 다산의 사상은 넓고도 깊다. 그중에서도 예악사상禮樂思想은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禮에 관한 글들은 다산이 많은 공력을 기울여 저술한 것이다. 그리고 《흙흙신서》가 담고 있는 다산의 법사상 또한 중요하다. 이 책은 일종의 형법서刑法書로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다. 다산은 이 책에서 150여 건의 살인사건을 예시하고 있는데 법의학, 사실인정, 법해석 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서 재판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이자 훌륭한 판례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산의 생명존중사상도 드러나 있다.

이 밖에도 서간문과 비지류碑誌類의 글들도 주목할 만하다.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흑산도에 유배된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도도한 다산 사상의 핵심적인 일면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선배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산의 중심 사상이 다른 저술에서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 경우가 많다.

일찍이 정인보 선생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런즉 다산의 생평저서生平著書는 다산 일생 정력의 소재所在로써만 귀할 뿐이 아니라 그때의 조선의 내內와 표表가 다산의 눈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형眞形이 나타난 것이니 근세 조선을 알려하는 이는 다산의 유저遺著를 통하여 찾아볼 것이다.”

정인보 선생의 말과 같이 “근세 조선”의 “진형眞形”이라고 할 만한 다산의 저술이 신조선사에 의해 최초로 출간된 지 7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탄생 250주년을 맞는 다산 선생에게 드리는 조그마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

러나 이 『정본 여유당전서』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먼 훗날 언젠가는 또 새로운 정본이 만들어지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다산학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자부해 본다.

# 언론보도

년도	월일	언론사	작성자	제목
2003	10.03	한겨레신문	조일준 기자	이항·정약용 저작 '정본' 확립 나선다
	10.07	경향신문	조운찬 기자	퇴계·다산사상 '그릇 그대로' 전한다
2005	08.02	경향신문	조운찬 기자	茶山 장남 정학연 시집 찾았다
2010	10.26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대회
2011	04.28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	다산의 실학정신, 첨단시대에도 빛난다
2012	06.25	교수신문	윤상민 기자	日·中에 우리 학문의 해석권 뺏길 수 있다
	10.02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정본 여유당전서' 한국학 새 이정표 세워
	10.02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의 모든 것'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10.04	중앙일보	배영대 기자	다산 정약용 연구 집대성 『정본 여유당 전서』 나온다
	11.24	동아일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려야 할 '여유당전서'
	12.03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다산 문집 총정리 '여유당전서' 74년만에 '정본' 출간 지휘 송재소 교수
	12.17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학의 신기원 '정본 여유당전서' 18일 발간
	12.17	중앙일보	이재훈 기자	정본 여유당전서 전37권 나왔다, 다산 탄생250년
	12.18	한국일보	오미환선임기자	정약용 전집 오류 바로잡아 한국학·다산학의 새 이정표

	12.19	서울신문	문소영 기자	다산학의 집대성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
	12.19	한겨레신문	최원형 기자	다산 저작 집대성한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12.20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 "죽음은 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버섯"
	12.20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정해창 이사장 "다산의 애민정신 이어받아야"
	12.20	문화일보	최영창 기자	茶山 학문의 결정체...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12.21	중앙일보	배영대 기자	정약용 죽기 6일전 쓴 편지속에 무슨 내용이?
	12.21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죽는다는 것은 하루살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
	12.24	문화일보	최영창 차장	다산 '定本 여유당전서' 의미
	12.25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실학 집대성 정약용 저작 모음집 '정본 여유당전서' 38권으로 출간
2013	01.07	OhmyNews	임윤수	취임 앞둔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산이 미리 한 말은?
	02.08	한국경제	김재일 기자	부국강병 위한 茶山의 고뇌 되새기는 계기 되길
	02.09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다산은 조선의 다빈치... 그가 쓴 책 다 모으니 500만字
	02.26	교수신문	editor @kyosu.net	신조본(1938) 편집 체제 따라 ... 茶山 정신 되살리는 데 집중

### ※참고사항

언론보도 자료는 《여유당전서》 정보사업 및 『정본 여유당전서』 출판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 이황·정약용 저작 '정본' 확립 나선다

고문서 정보사업에 대한 학술워크숍이 국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다산학술문화재단과 퇴계학연구원은 4~5일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퇴계전서' 및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정보사업이란 고문헌을 최초 원저자의 글 그대로 복원시키는 한편, 후대에 간행되는 모든 판본들에 대해서는 그 편찬과정을 해명하여 원저자의 글을 최대한 살린 판본을 확립하는 일을 말한다.

고문헌은 작가 자신의 수정·첨삭은 물론이고, 이후 필사본이 늘어날수록 후대 연구자의 의도나 오류에 의해 원래 저작과 달라지게 마련이다. 같은 내용을 연구하더라도 어느 판본을 텍스트로 삼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다산 정약용은 우리 역사상 유례 없이 방대한 저술을 남겨 다수의 필사본이 전해져오다가 1936년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154권 76책으로 재판집해 활



△ 조선 유학계의 거봉인 퇴계 이황(왼쪽)과 실학사상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의 저작들에 대한 정보작업을 계기로 정보 통일화 및 표점 표준화 논의가 일고 있다. 정약용 초상화 그림비 제공

자본으로 출간한 바 있으며, 퇴계 이황의 저작도 지금까지 간행된 판본이 10여종에 이른다.

김윤구 명지대 철학과 교수는 '고전정보사업의 필요성'이란 발제문에서 "정보사업의 1차적 목표는 여러 상이한 판본들을 하나로 묶어 연구자가 한 권의 책 안에서 상이한 판본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 확립은 우리의 풍부한 지적 자산을 제대로 전승하고 디지털화하며 한국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표준적 표점체계 수립 방식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표점이란 한자 문헌의 문맥과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대식 문장부호(쉼표, 마침표, 중점, 물음표 등)로, 아직 사용원칙이 통일돼 있지 않아 독해자와 판본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봉규 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은 표점도 거의 통일돼 있다"며, "우리 학계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85-0484

조일준 기자

## 퇴계·다산사상 ‘그릇 그대로’ 전한다

4년전 다산 정약용의 ‘흙흙신서’를 번역, 출간한 현대실학사 대표 정해림씨는 여유당전서 속에 들어있는 ‘흙흙신서’를 필사본과 대조하다 원문의 두 항목이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누락된 부분은 한자로는 1,500여자 분량으로 번역문으로는 5쪽에 달했다.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 ‘경세유표’ 등 다산의 저작 시리즈를 펴내며 여유당전서를 필사본과 꼼꼼히 대조, 교감한 정대표는 “경세유표에서 찾아낸 오자만 530여자나 된다”며 “대체로 여유당전서에는 1쪽당 한두개의 오자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930년대 신조선사에서 발간된 여유당전서는 다산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원저작물이다. 여기에는 목민심서 등 1표2서, 시·문 등 다산의 주요 저서가 총망라돼 있다. 그러나 오자가 많을 뿐 아니라 ‘아학편’ ‘비어고’ ‘대동선교고’ 등 상당수 작품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서(全書)의 구실을 못해왔다. 70년대 들어 여유당전서 보유편(補遺編)이 나왔지만 보유편의 어느 정도가 다산 작품인가는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70여년전 정인보, 안재홍 등 국학자들에 의해 출간된 여유당전서가 이렇진대 수 많은 고문헌들은 불문가지다. 지적 자산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헌의 나라’로 불리고 있으나 최초 원저자의 글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후대에 가필,

첨삭으로 원저자의 글이 변질되는가 하면 오·탈자가 많아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원저자의 글을 총망라하면서 정확한 판본을 만들려는 정본(定本) 사업이 최근 들어 학계에서 일고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과 퇴계학연구원은 각각 5년에 걸쳐 여유당전서와 퇴계전서의 정본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기로 했다.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정본사업에 착수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양 기관은 각각 정본편찬위원회를 구성, 지난 4~6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퇴계전서 및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우성·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동환 김언중(고려대)·이광호(연세대)·송재소(성균관)·정순우(정문연)·조성을(아주대) 교수 등 퇴계학·다산학 연구자들과 서양철학자 김윤구(명지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 정본사업의 의미와 정본 편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칸트, 라인홀트 등 서양의 정본(cannon) 간행사업을 소개한 김윤구 교수는 “유럽의 경우 보통 30년 이상 많게는 300년의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정본들은 서구 지성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학문의 주권을 위해서도 정본사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을 교수는 ‘정약용 저작의 서지학적 제문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는 오·탈자가 많을 뿐 아니라 편집체계도 다산이 구상했던 것과

다르다”면서 “누락된 작품을 보완하고 다산이 자찬묘지명에 밝힌 편차에 따라 경집류 다음에 문집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계전서 정본 편찬 작업 방향’을 발표한 정석태 박사(퇴계학연구원)는 “다산의 정본 작업이 원본이 적는데 문제가 있다면 퇴계집은 판본이 16개나 많아 오히려 정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퇴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초본(草本)류·판본류·사본류 등의 차이를 밝히고 오류를 바로잡아 교감·표점본 ‘퇴계전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퇴계전서 및 여유당전서 정본편찬위원장을 맡은 송재소 교수는 “한국사상을 대표하는 퇴계와 다산의 저작에 대한 정본사업이니 만큼 표점 등 두 정본의 편찬기준을 통일, 뒤이을 정본사업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로학자와 정본실무자로 소위원회 구성하는 등 조만간 정본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 茶山 장남 정학연 시집 찾았다



일본 국내청 서릉부에 소장돼 있는 ‘삼창관집’의 표지와 첫쪽.

다산 정약용의 큰아들 유산(西山) 정학연(丁學淵:1783~1859)이 쓴 시집 ‘삼창관집’(三倉館集)이 발굴됐다.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최근 일본 국내청 서릉부에 소장돼 있는 정학연의 시집 ‘삼창관집’을 발굴해 ‘다산학’ 제6호에 영인, 소개했다.

정학연은 동생 정학유와 함께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간 뒤 강진의 유배지를 오가며 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의 저술 활동을 도운 다산의 제자. 문장과 학문의 수준도 뛰어나 정약용이 강진 다산초당에서 가르쳤던 ‘18제자’ 그룹(다신계)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개인 문집이 없어 정학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학연의 저술로는 농업과 목축의 방법을 기록한 ‘종축회통’(3권3책)과 ‘선음’(鮮音), ‘근체시선’(近體詩選) 등 시선집에 들어 있는 시 몇 편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번에 발굴된 ‘삼창관집’은 정학연이 1802~1808년에 쓴 한시 245수를 모은 시집으로, 책 첫쪽에 ‘열수 정학가 저’(洌水 丁學稼 著)라고 저자가 정학연(‘학가’는 학연의 초명)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 의도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작품을 연도별로 수록, 창작 시기와 시기에 따른 저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궁내청 서릉부에서 ‘삼창관집’을 처음 발견하고 해제를 쓴 노경희씨(일본 교토대 문학부 박사과정)는 “삼창관이라는 말은 ‘시명다식’(詩名多識, 정학유가 편찬한 책으로 ‘시경’에 나오는 각종 사물의 이름을 고증한 책)의 서문을 쓰고 찍은 정학연의 낙관에도 보인다”면서 정학연이 사용했던 호로 추정했다.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정학연의 20대 청년기로 부친 정약용이 강진 유배를 시작해 읍내에 머물다가 다산 초당으로 옮기기까지의 유배 전반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창관집’에 실린 시들은 정학연의 청년기 행적 및 작품 세계뿐 아니라 다산의 유배 당시 행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805년에 쓴 ‘아버지를 따라가 보은산방에서 거처하다’(陪家君寓居寶恩山房)는 다산이 강진의 주막집에서 읍내 북쪽 우두봉의 보은산방으로 옮긴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 ‘황상에게 주다’(贈黃裳)라는 시는 보은산방에서 황상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강진과 한양을 오가며 본 농촌의 정경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품도 적지 않다.

1804년에 지은 ‘봄날’(春事)은 초봄 농가의 한가로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시골집 어린이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배꽃 훔달리는 밝은 날/버드나무 가지 꺾어 악기처럼 불어 대는데/저 숲속에선 때때로 송아지 울음소리 들리네.”(農舍 兒童隊隊行 梨花雪白日初晴 卷取柳枝如 篳篥 隔林時作犢牛鳴) ‘삼창관집’에 실린 작품을 분석한 김영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수록된 시들은 강진에서 황상, 혜장선사 등 다산의 제자들과 교류하며 지어졌거나 한양과 강진을 오가는 노정에서 읊은 게 많다”면서 “다산이 즐겨 지었던 사회시와 같은 사실주의풍의 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학연의 ‘삼창관’ 낙관

김 교수는 또 “지금까지 전하는 정학연의 시는 1830년대 한양에서 신위, 남상교, 홍현주 등과 교류하며 지은 게 대부분”이라며 “삼창관집은 그간 밝혀지지 않은 정학연의 초기 시 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평했다.

노경희씨도 “정학연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이상적이 ‘문장은 나라를 빛낼 수 있고, 의술은 나라를 치료할 만하다’(文能華國 醫醫國)고 평가할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었다”면서 “다산 가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라고 말했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오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신조본 여유당전서 출간과 다산 저술의 필사본 전승'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양이 방대한 다산의 글이 문집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유전되다가 1934~1938년 정인보와 안재홍이 주축이 돼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로 출간된 의미가 재조명된다.

이어 2부에서는 재단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여유당전서 정보 발간을 위해 다산이 저술한 필사본들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살핀다.

여유당전서 정보 발간을 재추진하는 이유는 신조본 여유당전서가 당시로는 괄목할 만한 업적이긴 하지만, 체제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선시대 문집의 전통적 분류방식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다산이 직접 쓴 '자찬묘지명'에서 내세운 자신의 문집 분류 체계를 따르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aeshik@yna.co.kr

## 다산의 실학정신, 첨단시대에도 빛난다

내년 탄신 250돌... 기념사업회 결성  
'여유당전서' 정보 발간 등 각종 행사

내년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개혁에 고심했던 그를 기리기 위해 실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원로 학자들이 최근 '다산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회'(위원장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



다산 정약용 초상.  
동아일보DB

위원회에는 고문으로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정범진 나주 정씨 월헌공파 회장,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 위원으로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실학학회 회장, 최광식 문화재청장 등이 활동하며 총 50명이다.

위원회는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실학사상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를 7월 초에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8월), 실학박물관 특별전(4, 5월),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유물전(6, 7월),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7월)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약용의 대표적 저술인 ‘여유당전서’를 내년 11월에 ‘여유당전서 정본’으로 다시 발간하고 디지털로 복원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여유당전서는 1934~1938년 정인보 등에 의해 발간된 적이 있으나 당시 문집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문집 체제를 따르지 않았고 빠진 글도 제법 있어 이번에 정본 발간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다. 이우성 위원장은 “다산 탄신 250주년에 여유당전서 정본이 발간되는 것의 의의가 적지 않다”며 “정본 발간으로 정약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日·中에 우리 학문의 해석권 뺏길 수 있다”

학계, 고전 텍스트 정보화 위한 국가위원회 요청

동아시아 역사논쟁에 이어 새로운 사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고전텍스트 정보화사업 이야기다. 한 민족의 의식, 사유,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 사상 전쟁이 몰고 올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1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 고전 텍스트 정보사업’ 학술대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정보사업은 번역, 해석에 가려 진정한 연구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학계의 현실이었다. 지난 10년간 ‘한국 고전텍스트 정보사업’은 예산, 통일되지 않은 표준범례 등의 악조건 속에서 더디게 진행됐다. 마침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동안 지원했던 네 개의 개별 연구소의 결과물이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여유당전서』, 충북대 우암사상연구소의 『송자대전』, 퇴계학연구원의 『퇴계전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태수 인제대 교수(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의 기초발표 장면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의 유학적 문화유산을 집대성해 정본화한 후 세계에 서비스 한다는 儒藏 편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유장』 사업에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국내전통학자들의 저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가 발달했지만 대장경이 없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24년부터 10여년의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불교원전을 수집, 활자로 정리한 『대정신수대장경』을 출판했다. 여기에는 한국 불교의 정수『고려대장경』이 정본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록돼 외국연구자들에게 열람되고 있다. 한국 고유의 자료가 외국 기관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퇴계전서』정본화 작업에 참여했던 문석운 경희대 교수(철학과)는 “만리장성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본사업이다. 우리 선조의 고서를 중국, 일본이 정본화 자료를 본다는 것은 학문의 해석권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정수를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암전집』정본화 작업에 참여했던 서대원 충북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학계의 논쟁이 붙으면 자료를 선점한 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인력지원 없이는, 10년 후 국내학자가 정본화 할 수 있는 선조의 저서는 남지 않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정본사업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본사업이 국가주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철 용인대 교수(중국학)는 정본화 작업을 할 저서 목록부터 선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수 인제대 교수(학술협의회 이사장)는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든 정본사업이 표준화되고 인터넷서비스까지 마치려면 국가주도의 위원회가 구성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본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

연합뉴스, 2012.10.02

## ‘정본 여유당전서’ 한국학 새 이정표 세워

---

### 국내 학계 역량 총결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 정약용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해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고전 정본화(定本化) 사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업이다.

중국, 일본 등이 고전 정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학문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지만 국내 정본사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25사(史)에 대한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완료했으며 고전 전적의 정본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는 국내 고전 연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산 정약용 전문가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여유당전서가 다산이 죽은 지 100년 뒤인 1938년 완간됐는데 제대로 교열을 못해 다산의 저술 중 빠진 부분도 많았다”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으로 다산 사후 약 200년 만에 다산의 학문 전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이사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다산만큼 방대한 저서를 남긴 학자도 많지 않다”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다산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성호 이익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인데 1930년대 ‘여유당전서’가 발간된 이후 제대로 된 정본이 없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본은 학문의 기반인데 우리나라는 학문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이 고전 정본사업의 시발점이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본 여유당전서’에는 국내 학계의 역량이 총결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한문 고전에 능통한 원로 교수들도 기꺼이 힘을 보탤다.

송 명예교수는 ‘여유당전서 정본사업편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과 연구를 총괄했다.

‘여유당전서 정본사업편집·운영위원’으로는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중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유권중 중앙대 교수(철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이 참여했다.

이주행 본부장은 “선생님들께 연구비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참여하셨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을 기획한 것은 2001년이였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이 펴낸 저작의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지만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기까지 지난 10년은 난관의 연속이였다.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전문 연구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다산의 저작을 두루 대조해 틀린 글자를 바로잡는 교감 작업과 읽기 쉽게 한문 문장에 문장부호를 붙이는 표점 작업은 표준화된 표점 범례가 없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나서서 1934-38년 발간한 ‘여유당전서’는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주행 본부장은 “힘겨웠던 시대(일제강점기)에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쇄공의 실수 등으로 인해 저술당 수백 자에 이르는 오탈자가 발생했는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에 있는 필사본을 한데 모아 일일이 대조해 오탈자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정치,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저술을 남긴 ‘르네상스형 천재’였던 다산의 방대한 저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음악, 법률, 의학 등 10개 분야로 나눠서 ‘정보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원로 교수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인력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정보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한자 수는 500만 자에 달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는 등 보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산의 사상을 조명해온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이어 ‘다산 인문학 사전’도 펴낼 예정이다.

yunzhen@yna.co.kr

## ‘다산의 모든 것’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

### 다산학술문화재단 10년의 결실...‘신발굴자료집’도 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 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의 결정체인 ‘여유당전서’가 새롭게 출간된다.

‘여유당전서’는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다산의 외현손인 김성진과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정리해 1934~38년 발간한 문집.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정보(定本) 여유당전서’를 다음 달 발간한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총 38권으로, 기존의 ‘여유당전서’에 1970년대 발간된 ‘여유당전서 보유(補遺)’ 일부를 추가했다. ‘여유당전서 보유’는 ‘여유당전서’에서 빠졌던 글들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1권 ‘시집’을 비롯해 ‘아언각비’ ‘이담속찬’ ‘소학주관’ 등을 묶은 ‘잡찬집’ ‘문집’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시경강의’ ‘상서고훈’ ‘때씨서평’ ‘춘추고징’ ‘주역사전’ ‘역학서언’ ‘상례사전’ ‘악서고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강역고’ ‘대동수경’ ‘마과회통’ 등으로 구성돼 있다.

38권은 ‘신발굴자료집’으로, 편지, 시 등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 100여 건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원문을 번역해 해제를 붙였으며 개별 사진도 실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이주행 본부장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라기보다는 박물관, 미술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지, 시 등 하나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술을 통해서만 이해되던 다산의 모습이 아닌 교우관, 감성 등 다양한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여유당전서’의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부호도 달았다.

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표점 작업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이다.

편집은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기획한 이래 10년 만의 결실이다.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해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고전 텍스트 정보사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업이다.

여유당전서 정보사업편집·운영위원회에는 한문학, 역사학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한문학의 대가인 위원장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종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유권중 중앙대 교수(철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본부장(철학)이 편집·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을 이끌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책으로 펴낸 데 이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행 본부장은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에 이어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 학자들도 다산의 저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다산의 사상과 학문 세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zhen@yna.co.kr

---

한국일보, 2012.10.02

## ‘정보 여유당전서’ 한국학 새 이정표 세워

---

국내 학계 역량 총결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 정약용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해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고전 정본화(定本化) 사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업이다.

중국, 일본 등이 고전 정보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학문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지만 국내 정보사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25사(史)에 대한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완료했으며 고전 전적의 정보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정보 여유당전서’는 국내 고전 연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산 정약용 전문가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여유당전서’가 다산이 죽은 지 100년 뒤인 1938년 완간됐는데 제대로 교열을 못해 다산의 저술 중 빠진 부분도 많았다”면서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으로 다산 사후 약 200년 만에 다산의 학문 전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이사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다산만큼 방대한 저서를 남긴 학자도 많지 않다”면서 “‘정보 여유당전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다산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성호 이익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인데 1930년대 ‘여유당전서’가 발간된 이후 제대로 된 정본이 없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본은 학문의 기반인데 우리나라는 학문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이 고전 정보사업의 시발점이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보 여유당전서’에는 국내 학계의 역량이 총결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보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한문 고전에 능통한 원로 교수들도 기꺼이 힘을 보탤다.

송 명예교수는 ‘여유당전서 정보사업편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과 연구를 총괄했다.

‘여유당전서 정보사업편집·운영위원’으로는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종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유권중 중앙대 교수(철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이 참여했다.

이주행 본부장은 “선생님들께 연구비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참여하셨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을 기획한 것은 2001년이였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이 펴낸 저작의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지만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기까지 지난 10년은 난관의 연속이였다.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전문 연구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다산의 저작을 두루 대조해 틀린 글자를 바로잡는 교감 작업과 읽기 쉽게 한문 문장에 문장부호를 붙이는 표점 작업은 표준화된 표점 범례가 없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나서서 1934~38년 발간한 ‘여유당전서’는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주행 본부장은 “힘겨웠던 시대(일제강점기)에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쇄공의 실수 등으로 인해 저술당 수백 자에 이르는 오탈자가 발생했는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에 있는 필사본을 한데 모아 일일이 대조해 오탈자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정치,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저술을 남긴 ‘르네상스형 천재’였던 다산의 방대한 저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음악, 법률, 의학 등 10개 분야로 나눠서 ‘정보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원로 교수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인력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정보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한자 수는 500만 자에 달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는 등 보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산의 사상을 조명해온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이어 ‘다산 인문학 사전’도 펴낼 예정이다.

황윤정 기자

## 다산 정약용 연구 집대성 『정보 여유당 전서』 나온다

### 탄생 250주년 맞아 10년 준비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을 모아놓은 『여유당 전서』가 『정보(定本) 여유당 전서』(이하 정보)라는 새 이름을 달고 11월 말 출간된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10년간 준비해 오다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



정약용

모두 38권인 정보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대표작을 비롯해 지금까지 알려진 다산의 모든 저술을 망라한다. 정보 편집위원장 송재소(성균관대 한문학) 명예교수와 금장태(서울대 종교학)·이지형(성균관대 한문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다산 전문가가 대부분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다산 연구에 관해선 이 정보를 기본 자료로 한다는 의미”라며 “인터넷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우리 고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산의 저술은 당초 손으로 쓴 필사본으로만 전해졌다. 이를 『여유당 전서』라는 낱말자 인쇄본 전집으로 처음 묶어낸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6~38년이다. 다산 서거 100주년을 맞아 다산의 외현손 김성진과 위당(爲堂) 정인보, 민세(民世) 안재홍 등 저명 학자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펴냈다. 당시 ‘신조선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기에 흔히 ‘신조본’으로 불린다.

새로 나올 정보는 신조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형식을 많이 달리했다. 낱말자가 아닌 컴퓨터로 500만여 자에 달하는 한자 원문을 입력해 향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 국내외 흩어져 있는 다산의 필사본을 가능한 모두 수집했고, 오·탈자는 물론 누락된 문장, 편집체계와 내용까지 일부 바로 잡았다. 읽기 편하도록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했고 문장부호도 넣었다.

편집위원인 김문식(단국대·한국사) 교수는 “현재 우리 학계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다산 연구의 기본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대 기자 [balance@joongang.co.kr]

## [동아광장/박석무]세계문화유산으로 기려야 할 ‘여유당전서’

올해는 다산 탄생 250주년이다. 마침내 온 세계의 학술·문화계에서 그를 알아주어 유네스코는 2012년 기념할 인물로 다산을 선정했다. 한국의 정약용은 세계의 정약용으로 예우를 받게 되었고 이런 때를 맞아 11월에는 그의 전 저작물을 총망라하여 제대로 교정·교열하고 표점(띄어쓰기 표시)까지 찍은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정약용 문집)가 출간됐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이 나라 학술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이번 간행은 다산학 연구의 재도약을 가능케 할 좋은 발판을 제공했다고 평가해도 좋겠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던 선학(先學)들인 위당 정인보, 민세 안재홍 등은 다산 서세(逝世·별세의 높임말) 100주년을 맞아 ‘여유당전서’ 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다산 선생의 학문적 위상과 업적을 세상에 알리며 저서 간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1938년 총 154권을 76책으로 묶어 활자인쇄본 간행이 완료됐다. 본디 저자의 분류로는 500권이 넘는 분량이었으나 활자로 인쇄하면서 권수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76책은 1962년에야 축쇄영인본이 나왔고, 1970년에는 경인문

화사에서 6책으로 축쇄영인하고, 전서에서 빠진 보유편을 5책으로 영인 간행했다. 1985년에는 여강출판사에서 20책으로 76책의 전서를 다시 영인하여 간행하였고 최근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총간의 하나로 6책으로 다른 책과 대조하여 바르게 만든 축쇄영인본을 간행했다.

### 10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본 다산

이렇듯 여러 차례 간행은 되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이나 인쇄 과정에서 빠진 글자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저자의 저술이 아닌 글들이 포함됐고, 잘못 들어간 글이나 빠진 글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산 자신의 저술에 가장 가까운 정보사업에 착수해 다산학술문화재단의 10년간 공로로 이번에 간행되기 이르렀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적으로 경하할 일이요 세계 학술사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행을 계기로 국민적 힘을 모아 유네스코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조선 민족은 다산 서세 100주기이던 1936년을 전후하여 다산의 저술을 읽어보고서야 그 위대함과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짐작하기 시작했다. 다산이 뜻을 펴지 못하고, 그의 학문과 정책이 국가시책에 반영되지 못해 망국의 서러움까지 당했음을 자각하면서 다산 저술의 진가를 뼈아프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산의 학문 종지(宗旨)는 경학(經學)에 있고 그런 종지에 따라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던 경세학(經世學)인 일표이서(一表二書·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를 통해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우자던 다산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국

민은 없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갈구하던 민족주의 학자들은 다산의 학문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뜻을 품기도 했다. 위당 정인보는 1934년 9월 10~15일 6회에 걸쳐 정치학자·경제학자·법학자이던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1935년 8월에는 신동아에 저서 간행의 간절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1936년 6월에는 동아일보에 '다산 선생의 일생'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여 다산학의 개요를 설명했다. 서세 100주기를 기념하는 명문의 글이 바로 그 기사였다.

정인보는 '여유당전서'를 통독하고 그 책을 교정하고 교열한 능력으로 다산의 일생을 서술했다. 그는 "선생 한 사람에 대한 고구(考究)는 곧 조선역사의 연구요 근세 조선사상의 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나 조선정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및 조선의 성쇠존망에 대한 연구는 다산의 저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선언을 했었다.

#### 7개 분야 500권으로 구성

그는 500권이 넘는 저서를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전서의 편집을 완료했다. 1집은 25권 12책으로 시(詩)와 문(文)의 분야다. 2집은 48권 24책으로 경학 즉 철학분야다. 3집은 24권 12책 예집(禮集)으로 상례(喪禮)·제례(祭禮)의 예학분야다. 4집은 4권 2책으로 악집(樂集)이니 음악에 관한 분야다. 5집은 정법집으로 39권 19책으로 이른바 '일표이서'라는 경제학 분야다.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학 분야다. 마지막 7집은 6권 3책의 의약집이니 의학·약학에 관한 책으로 '마과회통'이 바로 그것

이다.

다산의 정신세계에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주의, 백성만이 궁극적으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본정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한없이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애민정신, 공직자의 청렴정신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청렴입국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다. 오늘의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제공해주는 지극한 보배가 바로 '여유당전서'이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동아일보, 2012.12.03(월)

### 다산 문집 총정리 '여유당전서' 74년만에 '정본' 출간 지휘 송재소 교수

---

“유례없이 방대한 1인저술… 유네스코 등재 추진해볼만”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는 한국학의 보고(寶庫)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근세조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산의 유저(遺著)를 읽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정본(定本) 여유당전서' 출간은 한국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을 총망라한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출간 74년 만에 ‘정본 여유당전서’로 새롭게 나온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주도로 10년간 매달린 끝에 18일 정본 37권과 별책 1권이 도서출판 사암에서 출간되는 것.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 등 다산 연구자가 총동원됐고 실무자까지 총 80여 명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다.》



다산 정약용의 향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짙어진다. 다산 시 연구의 권위자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981년 출간돼 사랑받다가 절판된 ‘다산 시선’(창비)을 내년 초 수정증보판으로 역주해 다시 출간한다. 다산의 시를 찾는 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편집위원장으로 10년간 정본 출간을 진두지휘한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69)는 “다산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과학 의학 군사학 지리학 등 다방면을 아우르며 그 깊이도 상당했다”며 “한 사람이 이처럼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여유당전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유당전서’는 1934~38년 다산의 외현손 김성진과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에서 시에 이르기까지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다산의 저술을 최초로 모아 154권 76책의 활자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출판사 신조선사가 간

행해 ‘신조본 여유당전서’로도 불린다. 신조본은 다산 연구의 교과서라 할 만하지만, 오·탈자가 다수 발견됐고 다산이 쓰지 않은 글이 잘못 수록되거나 저술의 순서가 뒤섞인 문제가 있었다.

연구의 기본서가 되는 정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기존에 누락됐거나 새롭게 발견된 다산의 저술을 보충했다. 한문 원문에는 없는 13가지 문장부호로 표점(標點) 작업을 하고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시도해 읽기 쉬워졌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흩어진 다산 저술의 필사본 300여 종을 수집해 일일이 비교하며 정확도를 높였다. 송 교수는 “지금까지 신조본을 토대로 발표된 논문이 2300여 편, 단행본이 100여 권에 이른다”며 “정본 출간을 계기로 다산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정본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외국 학자도 정본에 접근할 수 있고, 독자가 정본의 오류를 지적하면 고치는 ‘집단지성’이 활용된다. 송 교수는 “여유당전서는 한자 500만 자가 넘는 분량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100% 완전한 정본을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웹을 통해 다같이 완성도를 높여 가면 된다”고 말했다.

여유당전서를 모두 읽기 어려운 대중이나 외국인을 위해 송 교수는 ‘여유당전서 절요(節要)’ 또는 ‘다산학 절요’를 낼 계획도 있다. 여유당전서의 핵심만 뽑아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한 책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에 이어 ‘다산학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다산의 저술

주제가 다양한 만큼 여유당전서 속 중요한 내용을 표제어로 내세워 뜻을 풀어내면 곧 조선후기의 백과사전이 된다. “다산은 당시 조선에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업제도, 군사제도 등 각계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려 하니 다산의 관심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다산이 태어난 지 250년이 지난 지금도 다산에 주목하는 이유를 물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다산은 제도부터 국민의 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고 글을 통해 그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산의 개혁정신은 어느 시대에나 본받을 가치가 있어요.”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

연합뉴스, 2012.12.17

---

## 다산학의 신기원 ‘정보 여유당전서’ 18일 발간

---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 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가 새롭게 출간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18일 ‘정보(定本) 여유당전서’(도서출판 사암)를 발간한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기획에 착수한 지 10여 년 만에 완성한 역작이다.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선생 등이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1934-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지 70여 년 만이다.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보 여유당전서’는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기존 ‘여유당전서’에 실린 저술 가운데 다산의 것이 아닌 것은 빼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은 포함시켰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부호를 달았다. 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표점 작업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고전 연구의 기초 작업이다.

편집은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총 37권이며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도 이번에 함께 출간된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산학은 물론 국내 고전 연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 10여 년간 투입된 전문 인력은 80여 명에 이른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동참했다.

편집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송 명예교수와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중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 등이 참여했다.

30여 차례에 걸친 편집운영회의와 워크숍, 국내외 학술회의를 열었으며 300여 종에 이르는 국내외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 확인해 ‘정본 여유당전서’를 완성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yunzhen@yna.co.kr

## 정본 여유당전서 전37권 나왔다, 다산 탄생250년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다산학술문화재단이 다산 정약용(1762~ 1836)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정본 여유당전서(定本 與猶堂全書)’ 전 37권을 21일 출간한다.

정인보·안재홍이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던 다산의 저서를 모아 154권 76책으로 정리한 ‘여유당전서’(신조선사)를 발간한 지 77년 만이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이 책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다산의 저작이 아닌 것을 제외했다. 또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키는 등 새로 편집했다. 부록으로 실린 ‘다산 간찰집’을 포함해 총 38권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 간 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했다. 국내외 300여종의 필사본을 대조, 확인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여유당전서”가 한 시대의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 문화의 긍지를 되살려 준 조선출판계의 금자탑이었다면,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나온 ‘정본 여유당전서’는 21세기 문명적 전환기에 세계 인문학을 향해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기대했다.

realpaper7@newsis.com

한국일보, 2012.12.18

## 정약용 전집 오류 바로잡아 한국학·다산학의 새 이정표

### ■ ‘여유당전서’ 74년 만에 정본 출간

송재소 교수 등 학자 50여명 10년 작업 끝 37권 펴내

띠어쓰기 표점 작업 가치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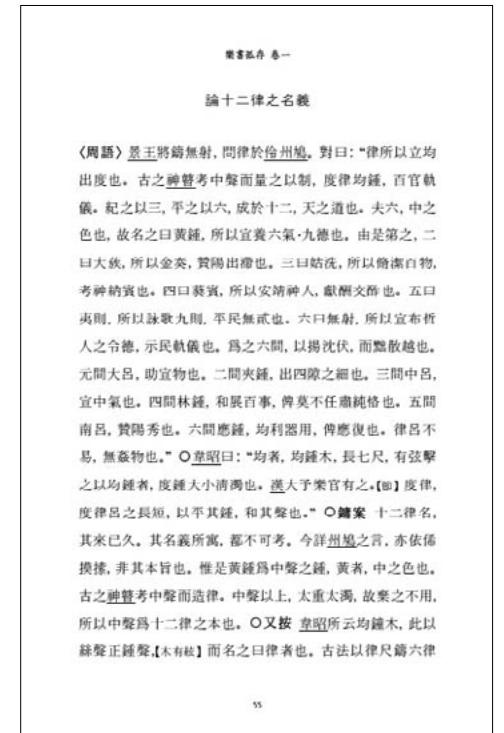
웹사이트에서 무료 공개키로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방대한 저술을 한데 모은 <여유당전서>가 출간 74년 만에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로 새로 나왔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 10여 년 작업 끝에 총 37권으로 펴냈다. 탄생 250주년인 올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유네스코의 세계기념인물로 꼽힌 다산의 영전에 후학들이 올리는 마땅한

경의이자 다산학 연구의 정확한 토대를 마련하는 획기적 출판물이다. 여유당은 경기 남양주 능내리에 있는 다산 생가의 당호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38년 154권 76책으로 신조선사에서 나온 <여유당전서>는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다산의 저술을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 대표작부터 시까지 총망라해 활자로 찍은 최초의 전집이다. 다산의 외현손 김성진이 편집하고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이 교열한 이 전집이 나오므로써 비로소 다산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이를 저본으로 해서 나온 학술 논문이 2,000여편, 석·박사 논문이 300여편, 연구 저서가 100여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전집은 오·탈자가 많고 다산의 글이 아닌 것이 실리거나 <민보의> 같이 잘 알려진 저술이 빠지는 등 오류가 많아서 정확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숙제였다.

이번 전집은 신조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가장 믿을 만한 판본을 완성했다는 점에



다산학술문화재단이 펴낸 <정본 여유당전서> 전 37권. <여유당전서>에 빠진 다산의 편지글은 별책 <다산간찰집>으로 내놓았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1938년 완간된 신조본과 달리 가로쓰기를 하고 문장부호를 사용해 편집했다.

서 말 그대로 '정본'이다. 여러 이본을 비교해서 정확한 텍스트를 만드는 교감(校勘) 작업으로 정확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300종이 넘는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하고 검토했다. 다산의 정확한 얼굴을 보여주는 판본이라는 점에서, 번역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기념비적 출판물이다.

한자 원문의 독해를 돕기 위해 띄어쓰기 등을 표시하는 표점(標點)작업을 한 것도 이번 전집의 가치를 높인다. 기본적인 마침표와 쉼표 외에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 표기, 인용문과 대화 등을 나타내기 위해 총 13개의 부호를 사용했다.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띄어쓰기 한 군데만 달라도 뜻이 바뀌는 것이 한문이니, 표점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다산과 다산학을 연구해 온 국내 학계 역량의 총화이기도 하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편집운영위원장을 맡아 총지휘하고,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 등 내로라 하는 학자와 연구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철학·정치·경제·문학·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다산의 방대한 저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0개 분야로 나눠 편찬을 진행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여유당전서〉 정본화에 착수한 것은 2001년. 전문 연구자를 모으고 편찬에 필요한 연구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1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10년 사업의 완성을 축하한다.

위당 정인보는 “다산의 평생 저술은 조선의 내(內)와 표(表)가 다산의 눈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형(眞形·참모습)이 나타난 것이니, 근세 조선을 알려면 다산의 저술을 읽으라”고 했다. 송재소 교수는 “〈여유당전서〉는 한국학의 보고(寶庫)”라며 “〈정보 여유당전서〉의 출간은 한국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말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외국 학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가 오류를 지적하면 바로잡아 더 완벽한 정본을 만들기 위해서다.

오미환선임기자 mhoh@hk.co.kr

---

서울신문, 2012.12.19

## 다산학의 집대성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

목민심서·新발굴 저작 등 포함 편지모음 '다산 간찰집'도 발간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정보 여유당전서'(도서출판 사암 펴냄)가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연구 인력 80여명이 투입돼 18일 새롭게 출간됐다. 2001년 기획에 착수한 지 10여년 만이다. 모

두 37권이며 ‘정본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도 이번에 함께 출간된다.

‘여유당전서’는 국학자 정인보·안재홍 선생 등이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1934~19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70년 전에 이미 출간했다. 그러나 당시 ‘여유당전서’에는 인쇄 과정 등에서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에는 ‘목민심서’는 물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켰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 부호를 달았다. 또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종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정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 등이 참여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다산 저작 집대성한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정본 여유당전서〉

10여년간 300여 필사본 대조  
기존 ‘신조본’ 오류 고쳐  
신뢰도 가장 높은 정본 확정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탄생 250돌을 맞아,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가 10년이 넘는 ‘정본화 작업’을 거쳐 〈정본 여유당전서〉(사진)로 새롭게 거듭났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18일 전 37권으로 이뤄진 〈정본 여유당전서〉(사암 펴냄)를 발간했다. 2004년부터 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래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존에 전해오던 〈여유당전서〉에 대한 비판적·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본’을 확정된 것이다.

이번 작업은 다산 사상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국내 고전 연구에서 취약한 분야였던 정보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학자 정인보·안재홍은 다산 서거 100돌이던 1936년에 여러 필사본 상태로 전해 오던 다산의 글과 저작들을 모아 <여유당전서>를 펴낸 바 있다. 154권 76책으로 이뤄진 이 '신조본' <여유당전서>는 다산의 지적 세계를 집대성해, 그 뒤로 오랫동안 다산 연구의 핵심 텍스트로 구실을 해왔다. 그동안 신조본을 저본으로 삼아 2000편이 넘는 논문과 300편 이상의 석·박사논문이 발표됐을 정도다.

그러나 신조본은 시대적 한계도 안고 있었다. 식자공의 실수로 저술당 수백자에 이르는 오·탈자가 있었고, 다산의 저작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다산의 저술이 아닌 글이 잘못 실리기도 했다. 또 신조본 출간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그 뒤에 발간된 저작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그간 정보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정보사업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한 지난 10여년 동안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외 300여종의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하고 30여차례의 편집운영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연구 검토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기존 '신조본'의 편집 체제에 따르되, '신조본'에 누락됐던 <민보의>와 같은 저술을 포함시키는 등 전체 저술 목록을 새로 확정했다.

이주행 재단 본부장은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은 국내 학계에서 한 사상가의 전체 저술을 정보화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많은 한국 고전들의 정보사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

연합뉴스, 2012.12.20

## 다산 “죽음은 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버섯”

---

별세 6일전 편지 발견.. '목민심서' 집필 언급 편지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하면서 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있으며 또 두풍(頭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혼(回婚)이 이미 임박하였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중략) 2월16일 병제(病弟) 약용(若鏞) 돈수(頓首)”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랜 유배 생활로



다산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발견 (서울=연합뉴스) 조선 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세상을 뜨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처음 발견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다산은 이 편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12.20 < 문화부 기사 참조 > photo@yna.co.kr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다산 간찰집' 발간을 총괄한 고문헌연구가 박철상 씨는 여기저기 흩어진 다산의 간찰(편지)을 한데 모아 정리하던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편지를 찾아냈다.

"회혼이 임박하였다"는 편지 내용으로 보아 이 편지는 다산이 1836년에 쓴 편지로 보인다고 박씨는 추정했다.

회혼은 혼인 60주년을 일컫는 말로, 부부가 혼인 60주년을 맞으면 자녀가 이를

기력이 쇠잔해졌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어쩌다 친구가 찾아와도 옛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세상을 뜨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발견됐다.

축하하는 잔치(회혼례)를 열었다. 다산은 혼인 60주년 회혼례 당일인 1836년 2월22일 아침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박씨는 "정약용은 1836년 2월22일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상을 뜨기 6일전의 편지"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약용의 편지 중 마지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산의 절필(絶筆)이라 할 수 있는 편지"라면서 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쓴 편지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다.

"저는 노쇠함이 날로 심하여 책을 몇 줄만 보면 이미 두 눈썹이 아교 붙인 듯 달라붙고, 이웃 마을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소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는 채(蔡) 영감이 찾아와 쌓인 회포를 풀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마주할 뿐이었습니다."(1821년 쓴 편지)

"저는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있어 참으로 괴롭습니다. 힘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정신과 진액은 모조리 소진되어 남은 것은 겨우 실낱같은 목숨뿐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1830년 쓴 편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언급한 다산의 편지도 발견됐다.



“사군자(士君子)가 입신(立身)하여 임금을 섬김에는 오직 이 목민(牧民)이라는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을 씻고 정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의(失意)하게 되어 백성을 윤택하게 할 길이 없어지자 옛 사람이 남긴 언행 40권을 모아 ‘목민심서’라 이름 지었습니다. 품에 안고 돌아온 지 2년이 되었건만 함께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오형(吾兄)께 처음으로 이 책을 봉증(奉贈)하니 제사가 지난 뒤에 모여서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합니다.(중략) 8월14일에.”

이 편지는 1820년 8월14일 다산이 조선 후기 문신 한익상(1767-1846)에게 보냈다.

박씨는 “이는 (다산의 연보인) ‘사암선생연보’를 기준으로 ‘목민심서’ 초고가 완성된 것이 1818년이고 이때 12편 72조의 편제가 모두 갖춰졌으며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821년 서문을 썼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다산은 1818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다산이 48권이나 되는 자기 저술(목민심서)을 40권이라 했을 리 없다는 게 박씨의 분석이다.

그는 “이때까지 다산은 ‘목민심서’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한익상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검토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면서 “결국 한익상과 만난 이후 ‘목민심서’는 지금의 모습인 48권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1935년 7월18일자 조선일보에 사진으로 실렸다.



‘목민심서’ 언급한 다산 편지 발견 (서울=연합뉴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언급한 다산의 편지가 발견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일제강점기인 1935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사진으로 실려 있다. 고문헌연구가 박철상 씨는 “조선일보에 실린 편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다산이 ‘목민심서’에 대해 자신이 지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편지가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2012.12.20 << 문화부 기사 참조 >> photo@yna.co.kr

박씨는 “조선일보에 실린 편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다산이 ‘목민심서’에 대해 자신이 지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편지가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다산 간찰집’에는 다산의 저술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편지 121편이 실렸다.

박씨는 “의원(醫員)으로서 다산의 모습, 저술하는 다산의 모습, 그리고 해배(유배에서 풀려남) 이후의 다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다산의 얼굴을 알려주기 충분한 자료들”이라고 소개했다.

다산은 무엇보다 편지를 쓰는 데 신중했다.

“편지 한 통을 쓸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빌어야 한다. ‘이 편지가 큰길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열어보아도 내게 죄를 주는 일이 없겠는가?’ (중략) 그런 다음에야 봉투를 붙여야 한다.”

유배지인 강진으로 찾아온 아들 학유에게 써준 글 ‘신학유가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씨는 “다산의 간찰은 형식적인 인사말은 별로 없고 꼭 필요한 말만 썼으며 해학적인 언사들이 가득해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면서 “다산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zhen@yna.co.kr

---

연합뉴스, 2012.12.20

## 정해창 이사장 “다산의 애민정신 이어받아야”

---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다산의 꿈은 어지럽고 약한 조선을 부강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다산의 애민(愛民)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인 올해는 전 법무장관 정해창(75)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에게 특별한 해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올 한 해 동안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다산의 삶과 학문 세계를 재조명했으며 최근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한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를 발간,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 10년 넘는 시간을 투입해 완성한 역작이다.

정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4년이 되는데 그 가운데 11년이란 긴 시간을 투입,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사업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이라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계의 기념비적 쾌거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인 1934-38년 국학자 정인보 등이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펴낸 ‘여

유당전서’는 그동안 다산 연구의 기본 ‘교과서’로 활용됐지만 오탈자, 미수록 저술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는 한편 국제적 고전 정리 방식인 표점(標點·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작업), 띄어쓰기, 가로쓰기 체제 등 현대화된 편집 체제를 갖춘 ‘정본’을 발간하는 것은 다산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학계의 숙원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학술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재단 설립 후 일천한 시점부터 이 사업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다산이 펴낸 저작의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지만 ‘정본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흩어져 있는 300종이 넘는 필사본을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문 연구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표준화된 표점 범례가 없는 상황에서 표점 작업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정 이사장은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우리의 지적 자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차원의 학술사업’이라면서 “다산 저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등 다산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본 여유당전서’의 보급에 힘쓰는 한편

‘다산학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다산 저술의 한글 번역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산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다산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정 이사장은 “다산의 꿈은 어지럽고 약한 조선을 부강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다산 프로젝트’는 25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다산의 사상 가운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되새겨야 할 덕목과 임무로는 “끊임없이 자신과 공동체의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이며 도덕성과 청렴성, 원칙성과 책임감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다산은 유교경전인 사서육경(四書六經)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한편 일표이서(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심서)를 통해 국가경영의 소신을 개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 인격과 지성을 도야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대공무사(大公無私)하는 정신을 지닐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국가경영, 비전, 제도, 법제를 혁신할 청사진을 피력하고 지방행정 및 사법의 실무지침과 개혁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애민(愛民)의 마음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yunzhen@yna.co.kr

## 茶山 학문의 결정체...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70여년만에 오자 정리, 삽표 등 달아 읽기 쉽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새롭게 출간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정본(定本) 여유당전서’(전 37권 · 도서출판 사암)를 21일 발간한다.

국학자 정인보 · 안재홍 선생 등이 다산 서거 100주년(1936)을 기념하고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1934~19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을 모아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지 70여 년 만의 일이다. 부록으로 나오는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새로 발굴된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까지 포함하면 총 38권의 대작이다.

신조본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인쇄 과정에서 식자공(植字工)의 실수로 오·탈자가 많이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의 경우, 편집 체제는 신조본을 따랐으며 교감

(校勘) 작업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기존 ‘여유당전서’에 실린 저술 가운데 다산의 것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은 포함시켰다. 또 전문 학자뿐만 아니라 한문에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원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점(標點)을 가해 원문에 삽표와 마침표 등 총 13개의 문장부호를 달았다. 편집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교감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산학은 물론 국내 고전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기획에 착수한 지난 2001년 이후 10여 년 동안 투입된 전문 인력만 80여 명에 달하며 300여 종의 국내외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 확인해 ‘정본 여유당전서’를 완성했다. 30여 차례에 걸친 편집운영회의와 워크숍, 매년 두 차례 국내외 학술회의도 개최했다.

송재소(편집운영위원장)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이지형(성균관대) · 김태영(경희대) · 금장태(서울대) 명예교수, 이광호 연세대 교수, 김언중 · 심경호 고려대 교수, 방인 경북대 교수, 김문식 단국대 교수 등 국내의 대표적인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동참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

## 정약용 죽기 6일전 쓴 편지속에 무슨 내용이?

### 정약용 타계 6일 전 쓴 편지 발견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타계 6일 전에 쓴 편지가 공개됐다. 오랜 유배 생활과 병환에 시달렸던 그의 심경을 헤아려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이 타계 6일 전에 쓴 편지. [국립박물관 소장·『다산 간찰집』 수록]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하면서 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있으며 또 두풍(頭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혼(回婚)이 이미 임박하였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중략) 2월16일 병제(病弟) 약용(若鏞) 돈수(頓首·머리 조아림).”

자신을 ‘병든 아우’(病弟)로 표현하며 죽음을 하루살이 버섯의 덧없음에 비유한 대목이 애절하다. 수신자는 미상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정보 여유당전서』(전 37권)에 별책으로 들어간 『다산 간찰집』에 수록됐다. 121편의 다산 편지를 실었다.

이 작업을 총괄한 고문헌연구가 박철상씨는 “다산 자료를 조사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에 소장된 이 편지를 발견했다. 회혼(혼인 60주년)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1836년 편지로 보이며, 다산은 1836년 2월 22일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타계 6일전의 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마지막 편지”라고 추정했다.

배영대 기자 [balance@joongang.co.kr]

##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죽는다는 것은 하루살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

다산문화재단,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수록 ‘간찰집’ 발간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별세하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다산의 편지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것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최근 펴낸 ‘다산 간찰집’에 이 편



지를 수록했다. ‘다산 간찰집’에는 다산의 저술이 총망라된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편지 121편이 번역·주석과 함께 수록됐다. ‘다산 간찰집’ 발간을 주도한 고문헌 연구가 박철상 씨가 흠어져 있는 다산의 편지들을 모으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2월 16일자로 적힌 이 편지에서 다산은 “저는 이렇게 자리보전하고 있으며 또 두풍(頭風·두통이 오래 낫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혼(回婚·결혼 60주년)이 이미 임박하였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다산은 1836년 2월 22일(음력)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편지는 그보다 6일 전인 1836년 2월 16일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지의 수신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노년기에 쓴 편지에는 쇠약해진 몸으로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끼던 제자 황상에게 보낸 편

지에는 그리움이 절절하다.

박 씨는 “문집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는 가공하지도 꾸미지도 않은 다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다산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출간기념회를 열고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와 별책인 ‘다산 간찰집’을 공개한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mailto:savoring@donga.com)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다산 ‘定本 여유당전서’ 의미

최영창/문화부 차장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강진 유배기 500여 권의 저술로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의 문집은 조선시대에 간행되지 못했다. 이른바 ‘폐족’으로 낙인찍힌 데다 다산과 그의 자손들도 문집 출간이 적대 세력에게 또다른 빌미를 줄지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다산의 간찰(簡札·편지)이나 아들에게 써 준 글 등을 보면, 그는 ‘목민심서’가 필사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편지를 쓸 때는 혹시라도 남에게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두 번, 세 번 읽어보곤 했다.



이처럼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던 다산이 남긴 저술들은 20세기에 들어와 빛을 보게 됐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장지연이 ‘목민심서’와 ‘흙흙신서’ 등을 펴낸 데 이어 일제강점기인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정인보·안재홍 등이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154권 76책으로 재편집한 ‘여유당전서’를 신조선사에서 활자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조선학 부흥운동을 통해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기 위한 국학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다산의 복권은 물론,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지난 21일 신조본 ‘여유당전서’ 출간 이후 70여 년 만에 ‘정본(定本) 여유당전서’ 37권(책)을 상재했다. 지난 10여 년간 8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국내외에서 300여 종의 필사본을 발굴하고, 이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교감(校勘)과 문장부호를 다는 표점(標點) 작업을 통해 ‘비판적 정본’을 완성한 민간재단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여유당전서’처럼 500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의 교감·표점 등 정보화가 이뤄진 것도 사실상 처음이며 무엇보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게 돼 의미를 더한다.

사실 신조본 ‘여유당전서’는 석·박사논문 300여 편과 단행본 100여 권을 필두로 그동안 출간된 다산 관련 논문과 저술 2000여 건이 이를 저본으로 한 데서 알 수 있듯, 20세기 후반 ‘다산학(茶山學)’의 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수많은 오탈자의 교감 문제와 편집 및 구성체제의 오류, 신조본 필사 저본의 부재 등이 지적되면서 정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본 여유당전서’는 현재 전하는 다산의 수많은 필사본 저술 가운데 다산 친필과 다른 사람이 베낀 것, 다산 당대 및 후대의 것, 다산 자신 또는 후학들이 손을 댄(고친) 부분 등을 가려내 다산의 진의에 가장 근접한 텍스트(대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정본 여유당전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B 구축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기획본부장은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을 하면서 표점과 교감의 경우, 범례의 표준화가 절실함을 느꼈다”며 “이번에 겪었던 시행착오 등을 출간기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계전서’와 우암 송시열 저서의 정본사업이 재정 문제로 중단돼 있는 등 국내에 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지만, 서구에서 고전 텍스트의 정본(캐논)화 사업은 인문학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고전을 비롯, 다산 등 한국 학자들의 저술까지 정본화하는 유장(儒藏) 편찬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이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다산학’의 창출과 함께 한국학 고전 정본사업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ycchoi@munhwa.com

---

경향신문, 2012.12.25

---

### 실학 집대성 정약용 저작 모음집 ‘정본 여유당전서’ 38권으로 출간

---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모두 500여권에 달하는 저작을 남겼다. 다산 사후에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저술은 다산 서거 100주년을 맞아야 비로소 정인보·안재홍에 의해 정리돼 <여유당전서>로 간행된다. 1938년 신조선사에서 간행된 이 저작집을 바탕으로 200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300여편의 석·박사논문, 100여권의 연구 저서가 출간돼 ‘다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조본은 오·탈자가 적지 않은 데다 다산의 저작이 아닌 글이 수록되거나 ‘민보의’처럼 널리 알려진 저술이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아 74년만에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별책으로 펴낸 <다산 간찰집>을 포함해 모두 38권의 대작이다. ‘정본’ 발간으로 다산에 대한 더욱 밀도있는 재평가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해석에 가려 그간 주목받지 못한 고전 텍스트 ‘정본화’ 사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다.

‘정본’은 신조본의 편집 체제를 따랐으나 출간 당시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거나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켰고, 다산의 저술로 판단하기에 의심스러운 글은 제외했다.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외에 산재한 300여종의 각종 필사본을 대비해 정확성을 기했고, 한문 문장에 읽기 쉽도록 문장부호도 달았다. 다산의 저작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되살리려는 이 작업에는 10여년이 걸렸다. 80여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했고 편집운영회의와 자체 워크숍만 30여차례 개최됐다.

<정본 여유당전서> 편집운영위원장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해제를 통해 “정인보 선생은 일찍이 ‘근세 조선을 알려 하는 이는 다산의 유저(遺著)를 통하여 찾아볼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먼 훗날 언젠가는 또 새로운 정본이 만들어지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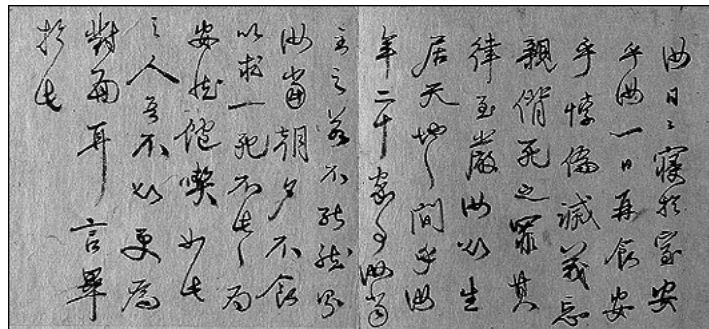


적어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다산학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자부해 본다”고 밝혔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OhmyNews, 2013.01.07

### 취임 앞둔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산이 미리 한 말은? [서평]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 간찰집>



<다산 간찰집>은 다산의 친필 편지를 영인본으로 싣고, 초서로 된 원문을 인쇄체로 탈초하고 번역해서 실었다. 주석을 달고 해설도 덧붙였다. 다산이 1807년 3월에 쓴 편지 영인본. 윤영상 소장 -<다산 간찰집> 62쪽- © 윤영상

다산(정약용 1762~1836)이 살았던 시대에도 미디어 기술이 요즘과 같이 발달해 있었다면 다산에 대한 기록은 좀 더 풍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동영상

은커녕 사진이나 녹음기술도 전혀 없었다.

우리는 다만 다산이 남긴 글과 주변 기록들을 통해서만 다산을 접할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산이 살아온 삶, 다산이 추구했던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그가 남긴 일기나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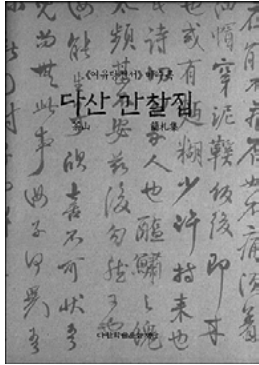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다산(茶山)의 저술을 한데 모은 문집으로 그 분량이 154권 76책이나 된다.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이 생전에 지은 ‘목민심서(牧民心書),’경세유표(經世遺表),’흠흠신서(欽欽新書)’ 등에서 ‘시율(詩律)’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술과 실증적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는 다산의 민낯 같은 편지들

다산학술문화재단 지음, 도서출판 사암 출판의 <다산 간찰집>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되지 않은 다산의 편지를 모아 출간한 책이다. 다산의 친필 편지를 영인본으로 싣고, 초서로 된 원문을 인쇄체로 탈초하고 번역해서 실었다. 주석을 달고 해설도 덧붙였다.

요즘도 개인 간에 주고받는 편지는 사적인 글들이다. 은밀할 수도 있다. <다산 간찰집>에 실린 다산의 편지도 지극히 사적인 글들이다.

요즘말로하면 민낯 같은 글이고 내용이다. 다산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 실



▲ <다산 간찰집> 표지  
© 도서출판 사암

린 마음이 민낫처럼 드러나 있다. 그러기에 다산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데는 더 없이 좋은 글이고 손색없는 내용들이다.

동년배는 이제 새벽별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물어가니 그림던 차에 편지를 받으니 너무나 위안이 됩니다. 다만, 우환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형제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니 비록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해도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상사(喪事)와 근심병이 글로 다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몸은 초겨울 추위에 병이 들어 이렇게 자리보전하고 있고, 흉년 든 농사 끝은 너무 처참하여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괴이한 것은 어찌 여러 친구를 따라 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산 간찰집〉 241쪽-

1833년 11월 8일, 다산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다산이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쓴 편지다. 참 인간적이다. 여느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뇌, 생로병사의 고뇌가 가득하다. 먼저 죽은 친구들을 따라 죽지 않는 것이 괴이하다고 쓴 부분에서는 늙고 병든 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삶의 고통이 물씬하다.

〈다산 간찰집〉에 실린 한 통 한 통의 편지에는 다산의 삶이 담겨 있고, 시대적 고뇌가 담겨있다.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실용지학(實用之學)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하면서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안을

제시하던 시대적 선비로서 주변을 아우르던 다산의 삶을 읽을 수 있는 편지도 한둘이 아니다.

### 혹시 취임 앞둔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리 한 말?

하나, 처음 부임하면 규모(規模)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바로잡고, 하나하나 지시하여 당연히 해야 할 법식을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 처음 부임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려면 틀림없이 백성들의 주목을 끌 만한 실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실마리를 찾으려면 지시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것.

하나, 처음 부임하면 몇 달 안에 아전들의 비방과 칭찬을 반드시 힘껏 탐문하고 기록하여 한 권이 되면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줄 것.

하나, 아전, 노비, 장교, 향임 등이 농간을 부리는 일은 듣는 대로 기록하여 보여주어神明(神明)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

하나, 송정(松政)은 중요하고 시비하의 큰 관건이 되니 당장 처치할 방도와 일후(日後)에 규찰(糾察)하고 금지(禁止)할 방도를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훈수할 것.

하나, 비록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허물하지 말고 오래도록 보살펴서 지친(至親)처럼 의지해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지요? -〈다산 간찰집〉 243쪽-

이 편지 역시 돌아가시기 3년 전, 글로 다 쓸 수 없을 만큼 상사(喪事)와 근심병으로 심신이 고단하던 1833년에 쓴 편지 내용이다. 봉화 현감에 부임하는 사람에게

초임 수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라는 부탁의 편지다.

취임을 앞둔 대통령당선자나 기관장, 정치지도자들에게 들려줘도 참 좋을 내용이다. 다산은 이런 사람이었다. <목민심서>는 그저 머리로 쓴 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는 것은 다산의 삶이 이렇게 말하고 당부 할 수 있을 만큼 곳곳했으리란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 다산이 친필로 그려낸 삶이자 인생 파노라마

<다산 간찰집>에 실린 편지들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안부를 묻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내용들이다. 다산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흔적이라서 더더욱 가치가 있다. 다산은 편지지가 모자라 쓰고 싶은 말을 다 쓰지 못할 만큼 궁하거나 청빈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마른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고 안개는 뜰에 깔리는데 덩그러니 혼자 앉아 옛 추억을 더듬고 있으니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겠습니까?(중략) 종이가 다해 갖추지 못합니다(紙盡不備). 10월 7일, 병제(病弟) 배(拜)  
-<다산 간찰집> 271쪽-

근래 <목민심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던데, 바로 이모(李某)가 퍼뜨린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걱정스러우니 일자반구(一字半句)라도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소문이 놀랍고 소름이 끼

칩니다. -<다산 간찰집> 281쪽-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산'하면 <목민심서>를 떠올릴 것이다. 다산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목민심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억측이나 시기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다산은 1836년, 177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함에도 이미 밝혀진 다산, 이런저런 책으로 드러난 다산을 만날 기회는 누구에게나 많다. 그렇게 만나는 다산은 공식적이고 걸리지고 다듬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다산 간찰집>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정약용은 연민의 정이 느껴질 만큼 높고 병들어 있는 노인이자 거목 같은 선비의 사생활이다.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자애함도 느껴지고, 인간미 듬뿍한 정도 느낄 수 있다.

<다산 간찰집>을 통해서 만나는 다산은 친필로 그린 민낯, 다산이 사적으로 드러낸 민마음, 다산이 맨몸으로 그려낸 삶이자 가치로 드러낸 인생 파노라마다.

덧붙이는 글 | <다산 간찰집> | 지은이 다산학술문화재단 | 펴낸곳 도서출판 사암 | 2012.12.15 | 값 3만원

임윤수(zzzohmy)

### “부국강병 위한 茶山의 고뇌 되새기는 계기 되길”

어떻게 지내십니까-’정본 여유당전서’ 34권 발간한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5·6공 때 법무장관· 靑비서실장...1996년 정계 떠나 다산연구 ‘올인’  
다산 필사본 300여종 일일이 대조...11년간 80여명 연구...30억 들어



“한문고전이 쉬워진 겁니다.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한문에 기초 소양만 갖췄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공을 들였습니다. 다산(茶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출간한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정해창 이사장(76)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가 다산의 나라바로세우기를 위한 고뇌와 애민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유당전서』는 18세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문집. 국학자 정인보 선생 등이 다산 서거 100주년(1936)을 맞아 필사본 형태

로 전해 오던 다산의 저술을 정리해 1938년 신조선사에서 발간했다. 신조본에는《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등 다산의 대표 저서인 1표2서를 포함한 154권 76책이 망라돼 있다.

“신조본은 다산 연구의 교과서나 마찬가지로요. 이후 다산 연구에 불이 붙었거든요. 2000편이 넘는 논문과 300편 이상의 석·박사 논문, 100권이 넘는 단행본이 쏟아졌습니다. ‘다산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신조본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오·탈자가 많았고 다산 저작 중 빠진 것도 상당했다. 신조본이 다산 연구에 물꼬를 텃다면『정본 여유당전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이라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 신조본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다산 저작 원본 텍스트를 확정하는 교감(校勘) 작업을 거쳐 34책으로 다시 편집했다. 그는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로쓰기로 편집하고 분야별로 해제도 붙였다”고 말했다.

300여종의 국내외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정본화 작업은 간단치 않았다. 지난 11년간 전문 인력만 80여명이 투입됐다. 편집운영위원장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지형(성균관대)·김태영(경희대)·금장태(서울대) 명예교수 등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3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 웬만한 민간단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었다.

“젊은 연구자를 위해 표점 표시 등 현대화된 텍스트가 절실하다는 학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2년간 재단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힘에 부치더라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 사업지원을 통해 국고도 지원받았어요.”

자신은 다산연구 지원자일 뿐이라는 정 이사장은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유당 말기인 1958년 행정·사법 양과에 합격, 1962년 검찰에 들어갔다. 5공 말 전 두환 정부와 6공 초 노태우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다. 이후 형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있다가 1990년 말부터 2년 남짓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1996년 총선 때 경북 김천에서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나주정씨 월헌공파 종회장으로 있던 1998년에 직접 발의해 설립했다. 월헌공은 정 이사장의 17대조이며, 다산의 11대조다. 다산은 정 이사장의 직계 선조는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24촌이 된다.

“『정본 여유당전서』발간을 통해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게 돼 기쁘다”는 정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 사회에 대한 조언도 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게 당연해요.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독립성이 커지면서 각자 자기 몫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탓이오’ 운동을 다시 일으키면 어떨까요.”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조선일보, 2013.02.09

## “다산은 조선의 다빈치… 그가 쓴 책 다 모으니 500만字”

『정본 여유당전서』 펴낸 다산재단 송재소 편집위원장 인터뷰

1930년대 만들어진 ‘여유당전서’ 바탕… 학자 80여명이 8년 동안 수정 작업

2012년은 다산 정약용(1762~1836년) 탄생 250주년. 이를 기념해 나온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는 다산 연구의 기초를 새로 닦은 일종의 ‘학문적 사건’이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글자 수만 500만 자에 이르는 거질(巨帙). 연구자 80여명이 편찬에 참여, 단락을 나누고 표점을 찍어 후학들의 편의를 도왔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에 들어간 것은 2004년. 국내외 필사본 300여 종을 찾아 일일이 대조했다. 일본 궁내청 서릉부, 미국 버클리대의 아사미 문고 등 해외 자료실도 샅샅이 뒤졌다. 단락이 누락되거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을 바로잡고, 다산 저작이 아닌 것은 털어냈다.



송재소 교수는 “다산은 한국 사상사에서 폭과 깊이가 남달랐던 전무후무한 사상가”라고 했다. /이태경 기자

‘여유당전서’가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은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1934년부터 4년간에 걸쳐 처음 간행된 신조선사(社)의 ‘여유당전서’(76책)가 처음이었다. 정인보·안재홍 등 당대 최고 학자들의 교열·교감을 거쳐 ‘다산학’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았다. 2000편이 넘는 학술 논문과 학위논문 300여편, 연구저서 100여권이 신조본 ‘여유당전서’에서 나왔다.

74년 만에 ‘정본 여유당전서’를 출간한 이유는 신조본(本)의 공헌에도, 여기에 술한 오탈자와 함께 다산의 저작이 아닌 글이 잘못 수록됐기 때문이다. 편집위원장을 맡은 송재소(70)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정본화는 건물을 세우기 전, 기초를 닦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개인이 이처럼 방대한 분량을 저작으로 남긴 이는 다산이 유일하다”고 했다. 퇴계전서도 여유당전서에 비하면 절반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 시문(詩文)·철학·경제학부터 지리학·의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다. 다산은 왜 이렇게 광범위한 저술을 남겼을까. “다산은 당시 조선을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로 봤어요.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한 겁니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릴 만하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을 들어봤을 법하지만, 정작 그의 글을 직접 읽은 이는 많지 않다. ‘목민심서’가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1권짜리 축약본이나 해설서가 많이 팔렸을 뿐, 6권짜리 목민심서 완역본을 읽은 이는 드물다. 송 교수는 “19세기 후반 지방관들은 임지에 부임하면서

대부분 ‘목민심서’를 베껴서 떠났지만 실제 지방 정치는 엉망이었으니 ‘목민심서’를 제대로 읽은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지금 다산 저작 가운데 ‘목민심서’ 필사본이 가장 많이 나도는 이유도 지방관들이 앞다퉈 찾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이 다산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을까. 송 교수는 “다산이 쓴 짧은 글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신라, 고구려의 역사를 논한 평론이나 사회 비평 같은 글을 예로 들었다. 여유당전서는 절반도 채 번역되지 않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같은 개별 저작이 나왔을 뿐이다.

송 교수는 퇴계전서나 우암 송시열 전집, 성호 이익 전집도 한시바빠 정본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에서도 실러 전집, 괴테 전집처럼 텍스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본화(定本化)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 여유당전서’를 곧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류를 바로잡아 더 정확한 정본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기철 기자

## 신조본(1938) 편집 체제 따라 ... 茶山 정신 되살리는 데 집중

『정본 여유당전서』 이렇게 만들었다

2012년 유네스코 '올해의 문화인물'에 올랐던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문집이 『정본 여유당전서』(사암출판사 刊)가 지난해 말 출간됐다. 정본 여유당전서 편집운영 위원장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전서' 1권에 '해제' 형식으로 이번 출간의 의미를 정리해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조본에서부터 이번 정본에 이르기까지 과정, 이번 정본 전서의 구성 등 송재소 편집운영위원장의 '해제' 글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여유당전서』는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저작집이다. 다산 사후에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저술들이 처음으로 완간된 것은 1938년이였다. 1936년의 다산 선생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34년부터 간행에 착수해 1938년에 완간됐다. 5개년에 걸친 이 간행 사업은 다산의 외현손 金誠鎭이

편집하고 정인보, 안재홍 두 분의 교열을 거쳐 154권 76책의 鉛活字本으로 완성됐다. 발행처는 新朝鮮社다.

### 신조본

다산의 저작집은 그동안 『與猶堂集』, 『洌水全書』 등의 이름으로 불려 오다가 신조본의 간행을 계기로 『여유당전서』로 통칭되고 있다. '여유당'은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 생가의 堂號다. 신조본이 출간되기 이전에도 『목민심서』(1902년), 『흠흠신서』(1908년), 『경세유표』(1914년) 등 다산의 저술들이 개별적으로 출간되기도했지만 전집의 형태로 묶여서 출간된 것은 신조본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조본이 출간됨으로써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다산 연구가 시작됐고 '다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60년에 문헌편찬위원회에서 『民堡議』를 추가해 신조본을 4책으로 축쇄영인한 『丁茶山全書』를 출간했고, 1969년에는 경인문화사에서 신조본을 다시 6책으로 축쇄영인한 바 있으며, 1985년에는 여강출판사에서 신조본을 實物大의 크기로 영인해 20책을 출간했다. 그동안 이 신조본을 저본으로 해 2천 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300여 편의 석·박사 논문, 그리고 100여권의 연구 저서가 출간됐으니 신조본이 기여한 功이 실로 크다고 하겠다. 신조본은 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植字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오·탈자가 수없이 발견됐고, 다산의 저작이 아닌 글이 잘못 수록되기도 했다. 또한 『민보의』와 같이 널리 알려진 다산의 저술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詩集의 경우에는 1819년부터 1836년까지 시의 저작 연도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만큼 錯綜돼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이로 출간된 책이 지닌 숙명적인 한계라 여겨지지만, 이 밖에도 신조본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여유당전서』定本化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뿐만 아니라 신조본 출간 당시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다산의 저작들이 이후 꾸준히 발견됐다. 그래서 신조본 간행 이래 새로 발굴한 저술들을 모아 影印한 『여유당전서보유』 5책이 1975년에 간행됐다. 이 책은 다산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다산의 저술로 판단하기에 의심스러운 글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신조본이 출간된 지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산 학술문화재단에서는 조심스럽게 정본사업에 착수했다. 마침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본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 2004년부터 정본사업 시작

첫째, 편집 체제는 신조본을 따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조본의 체제는 다산이 「자찬묘지명」에서 스스로 밝힌 저술목록의 체제와 다르다. 그래서 학계 일각에서는 「자찬묘지명」의 체제대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자찬묘지명」에는 經集 232권, 詩 6권, 雜文 60권, 雜纂 260권의 순서로 기록돼 있다. 신조본은 이를 해체해 시문집 25권, 경집 48권, 禮集 24권, 樂集 4권, 政法集 39권, 地理集 8권, 醫學集 6권의 순서로 재구성해 7집 154권의 형태로 편집했다. 우리는 신조본의 체제를 따를 것인지, 「자찬묘지명」의 체제에 따라 편차를 완전히 바꿀 것인지를 두고 여

러 번의 회의와 원로 학자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신조본의 체제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신조본을 편집하고 교열하신 분들이 「자찬묘지명」을 읽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 체제를 따르지 않고 편집 체제를 바꾼 데에는 先學들의 深慮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당전서보유』도 수록된 저술의 眞僞여부를 정밀하게 고증해 別卷으로 묶었다.

둘째, 校勘 작업을 통해 신조본의 오·탈자를 가능한 한 바로잡았다. 植字工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탈자 이외에도 한 단락이 누락된 부분이나 순서가 뒤바뀐 부분 등을 바로잡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300여 종이 넘는 각종 필사본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교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려 했다.

셋째, 한자·한문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標點 작업을 가했다. 기본적인 마침표와 쉼표 이외에도 인명·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 대화나 인용문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 13개의 부호를 사용했는데, 표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한국 실정에 알맞은 부호를 선정하고 그 용법을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문 문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점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재단에서 수집해 정리한 신조본과 《보유》에 수록되지 않은 친필·유묵을 탈



▲ 다산 정약용



초·표점해 간단한 해제를 덧붙여 별책으로 구성했다.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서 다산의 저작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재구성해 보려는 일  
념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소요됐다. 그리고 교감·표점을 담당할 전문 학  
자와 재단의 전임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보조 연구원 및 출판의 실무를 담당할 인  
력이 총 80여명에 달하였다.

### 10년 걸쳐 80여명 연구자들 동원돼 마무리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집운영회의와 자체 워크숍만 해도 30회 이상 개최  
됐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은 『여유당전서』의 분 량  
이 워낙 방대한 탓도 있지만, 행여 다산 선생의 저술에累了 끼치지 않기 위해 신  
중을 신중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전 37책의 『정보여유당 전서』  
가 탄생했다.

교수신문 editor@kyosu.net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보사업백서

초판 발행일 | 2014년 10월 ???일

펴낸이 | 정해창  
기획 | 다산학술문화재단  
편집 | 이주행, 이대승

펴낸곳 | 도서출판 사암  
신고번호 | 제22-2799호(2005.8.3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801호  
전화 | 02-585-9548  
팩스 | 02-585-9549  
전자우편 | saambooks@gmail.com

ISBN 978-89-91881-90-7 03810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3015842?????????)